

안동 유람



RUN ST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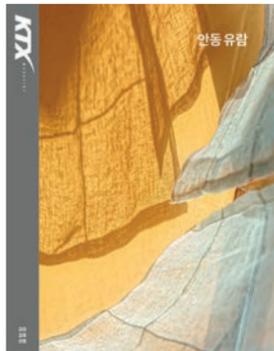
ARC'TERYX



042 이달의 여행

안동 유람

경북 안동이 사랑한 풍경을 걷고
안동을 만든 손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역의 큰 어른을 만나
위로와 가르침도 얻었다.



표지 이야기

안동 삼베, 그리고 안동포

경북 안동 사후원의 삼베 밭. 따스한
봄볕이 창을 비추자 삼베 밭이 방바닥에
황금색 그림자를 드리운다. 안동 땅에서
자란 대마의 가장 부드러운 속껍질로 만든
삼베는 특별히 안동포라 부른다.
올이 가늘고 고운 안동포는 햇살을
머금은 듯 연한 노란빛을 띤다.



A HILO

020 촬영지 여행

이름은 몰라도 익숙한 고등학교

서울 중앙고등학교가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속 금괴가 숨겨진 장소로 등장했다.

022 여행자의 공간

사진에 대한 정체성 탐구 기지, 사진서가

무려 1800여 권의 사진 관련 서적과 자료를 소장한 국내 1호 사진 라이브러리를 찾았다.

024 여행자의 방

여행 기록자를 위한 호텔

부산을 여행하고 추억하며 기록하는 호텔, 굿데이즈를 살폈다.

026 여행자의 물건

한낮의 피크닉

개성과 실속까지 챙긴 필수 나들이 아이템을 골랐다.

030 시절, 풍경

이토록 환한 풍경의 안쪽

산과 계곡, 바다와 풀밭에서 봄의 한순간을 포착했다.

038 전국 행사달력

5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즐길 거리가 풍성한 5월, 전국 곳곳의 행사를 모았다.

066 여행의 발견

세종 밤마실을 즐기는 네 가지 방법

불 밝힌 이음다리와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을 돌아다니며 세종의 밤을 만끽했다.

082 세계 기차여행

북인도 여행의 정수, 조드푸르

라자스탄의 사막 도시 조드푸르를 향하는 기차에서 인도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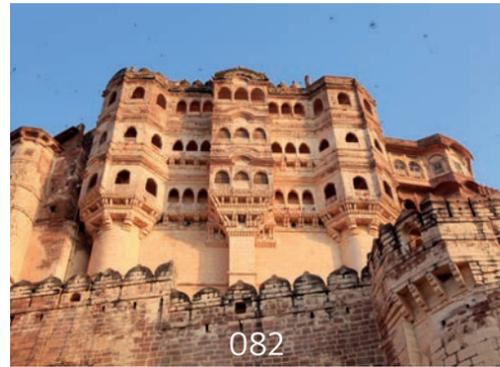
090 함께 여행

궁궐, 공부 말고 산책

김서을 작가와 서울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가벼운 마음으로 거닐었다.



066



082



090



BOOK in BOOK

made in

SUWON

no.05

BOOK in BOOK

made in SUWON

수원을 만드는 사람과 공간, 일곱 가지 이야기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급부상한 행궁동, 경기도 수원 의 협한 사람과 공간을 만났다.

언제나 누구나 서울우유

우유가 불편하던 너도

우유를 좋아하던 나도



QR코드를 스캔하여 A2+ 우유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100% 서울우유 모델 박은빈

114 인터뷰

세상을 조립하는 시인 이훤

이훤이 카메라로 담거나 글로 풀어낸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범위를 서서히 넓혔다.

122 전시 보러 갑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엄청나게 크거나 작고, 믿을 수 없이 생생한 인형들의 집. <론 뮤익> 개인전을 보고 왔다.

142 지역 생산자들

오늘의 예술, 쿤스트호이테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 협업하는 쿤스트호이테의 작업 세계를 들여다봤다.

148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도심 속 브런치 세계 여행

맛도 분위기도 이국적 감성 물씬한 서울 신사동의 브런치 가게를 다녀왔다.

154 KTX타기 1시간 전

영화 보고 전주 구경

전북 전주역을 떠나기 1시간 전, 마지막 발걸음을 찍을 곳으로 향했다.

160 지식 더하기

과시하라, 책 읽는 나를

텍스트랩이 불러온, 책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분석했다.

162 트렌드 읽기

잘 자란다, 될성부른 아역 배우들

지금 가장 빛나는 아역 배우들의 활약상을 시대 흐름 속에서 짚어 봤다.

164 이달의 선택

에디터가 추천하는 5월의 콘텐츠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5월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176 플레이리스트

지소쿠리클럽과 떠나는 음악 여행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 지소쿠리클럽. 이들의 취향이 담긴 노래를 모았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172 열차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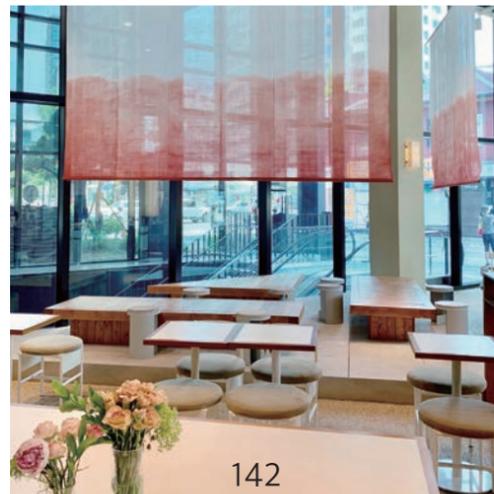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114



122



142



148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8 | 홈페이지 www.monami.com

monami®



Plus Pen 3000
PRIME

유성볼펜으로 거듭나다

프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프러스펜 3000 수성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2025년 5월호

KTX MAGAZINE

제22권 제5호 통권 제251호
2025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김수진 ksj@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강은주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LG ARTS CENTER
SEOUL

25th
ANNIVERSARY

LG아트센터 25주년 기획공연 공연으로 떠나는 감도 높은 예술 여행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헤다 가블러'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이영애, 무대에서 만나는 강렬한 비극의 아이콘

헤다 가블러

2025.5.7 - 6.8

KTX 할인



NEW/ADVENTURES

10만 한국 관객들이 환호한 그들이 온다!

LG SIGNATURE와 함께하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2025.6.19 - 6.29



KTX 할인



LG아트센터 서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공항철도/9호선 마곡나루역 Tel. 1661 - 0017

CoMPAS 25



의도한 일탈 뜻밖의 발견

<KTX매거진> 편집실은 서울 필동, 남산아래에 있습니다. 버스로 출근하는 저에겐 105번 또는 421번 두가지 선택지가 있죠. 보통 먼저 오는 버스를타는데, 얼마 전부터는 10분 이상 기다리더라도 꼭 105번 버스를 탑니다. 421번에 비해 105번이 덜 막히기도 하지만, 어느 날 차창 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로3가 방향으로 직진하는 버스와 달리 105번 버스는 홍인지문 사거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데요, 좁은 이면도로 한편으로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차도와 인도에 반반 걸친 채 200미터가량 이어진 꽃들의 행렬. 겨울철엔 초록색 천막으로 퐁퐁 감싸 정체를 알 수 없던 노점상들이 '도심 속 정원'을 만드는 꽃가게였던 것입니다.

버스 차창 너머로 알록달록 피어난 마거리트와 캄파놀라, 제라늄과 이베리스, 그리고 수선화의 향연. 배낭을 메고 선글라스를 쓴 채 상추 모종을 고르는 아주머니와 황금색 굴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도 눈에 띕니다. 도심 한가운데 도로변에 들어선 노점 시장. 자료를 찾아보니 종로꽃 시장의 역사는 70년이 넘었더군요. 낯설고도 정겨운 풍경에 이 골목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뱃나무가 광광 꽃봉오리를 티뜨리던 어느 날, 저는 그만 출근길에 버스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 손에 쑥 들어오는 화분에 오종종하게 심긴 푸른 생명들. 그냥 구경만 하기에는 아쉬워 수국과 페어리스타, 아기 사과나무를 샀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것들을 사무실로 데려오는 동안 어찌나 마음이 든든하던지요. 꽃 시장이 익숙한 듯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이 집 저 집 기웃거린 그 아침의 일탈이, 마감 중에 문득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이달 <KTX매거진> 기자들도 경북 안동의 맹개마을에서, 세종의 밤거리에서, 서울의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덮치듯 다가온 봄을 만났습니다. K-드라마 촬영지로 외국인 방문자가 더 많은 수원 행궁동에서, 영화제를 앞두고 미리 가 본 전북 전주에서, 이휘 작가가 사는 서울 정릉동에서 기자들도 한 번쯤은 틈새 길과 공원 같은 곳에 마음을 빼앗겼기를. 그러다 뚜벅뚜벅 걸어 든 곳에서 저처럼 뜻밖의 발견을 했기를. 어쩌면 그 순간의 느낌이 이달 <KTX매거진>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흘린 듯 종로 꽃 시장을 거닐었던 날도 어느새 2주가 지났네요. 그사이 보라색 수국은 잎이 더 단단해졌고, 아기 사과나무는 보드라운 흰 꽃을 피웠습니다. 화분 3개가 나란히 놓인 창가 너머로 구름 같은 벚꽃이 봄밤을 뒤덮었습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참 좋은 계절입니다.

편집장 최현주

국내 최대 공예 축제 2025 공예주간



2025 공예주간
기간 5월 16일~25일
주요 거점 도시 고성, 부안, 전주
공식 홈페이지 www.kcdf.kr/craftweek
인스타그램 @koreacraftweek



올해로 8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 공예 축제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2025 공예주간은 '공생공락(共生工樂, Living Together, Craft Together)'. 3개 거점 도시 고성, 부안, 전주를 중심으로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채로운 공예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광주,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21개의 기획 프로그램이 열린다. 지역 특화형, 마켓 확산형, 청년 네트워크형, 공예 심화형, 공예 동행형 등으로 구성된 기획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공예 자산 소개, 청년 공예가 네트워킹, 문화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체험, 장인 중심 심화강연·세미나 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2025 공예주간에는 전통 공예부터 현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문화 예술 기관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매년 공예주간과 협업해 온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전통 자기와 자개, 종이공예 기법을 활용한 텐바이텐의 디즈니 캐릭터 디자인 작품을 전시, 판매 중이다. 공예 관련 스타트업이 모여 만든 신진 공예 작가 쇼케이스를 비롯해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주력하는 사회적 기업, 문화 소외 계층 지원 단체 등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싱그러운 5월, 흥미로운 공예 도시로 여행을 떠나 보자.



강원 고성 크래프트립 고성

자연과 공예, 지역과 사람이 만나는 장이 펼쳐진다. 르네블루바이워커히에서는 친환경 작품을 전시하고, 서로재에서는 공예와 차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변을 무대로 야외 작품 전시와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재활용 공예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전북 부안 부안상감×부안감상

고려청자의 고장에 자리한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상감청자 전시, 가마 소성 시연, 흙 반죽 체험, 그리고 전북 무형유산 이은규 사기장과 함께하는 상감 클래스 등을 진행한다. 줄포 게스트 하우스는 공예품으로 침실과 거실을 꾸미고, 청자 식기를 이용한 부안의 색다른 미식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북 전주 전주공예마을 여정: 유람기

전통과 현대 공예가 공존하는 전주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지, 부채, 지우산 등 전통 공예품 전시와 체험, 그리고 공방 투어가 펼쳐진다.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광장에서는 공예 팝업 마켓이 열리고, 지역 작가와 협업한 공예 굿즈 제작 및 나눔 행사도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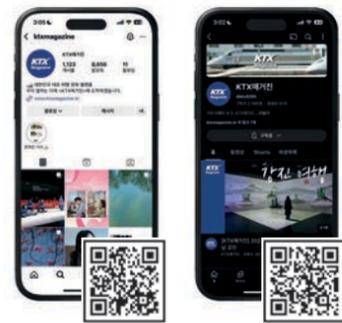
강의하는 날, 기차에 올랐다. 노트북을 펴고 잡지도 펼쳤다. 이달 '테마가 있는 골목탐험'에서 이웃 동네인 서울 서촌을 다뤄 반가웠다. 표지에 나온 경북 영주도 여행지 후보에 올린다. #KTX매거진 #서촌여행 #영주 #강의가는길



<KTX매거진> 4월호에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만한 글이 실렸다. 'KTX차량은 어떻게 진화했을까'라는 제목으로 KTX의 역사와 기술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KTX매거진 #철도덕후 #고속철도 #KTX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보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대천로
부산행 열차 안에서 읽은 <KTX매거진> 4월호는 나에게 작은 위안이 됐다. 서로를 위로하며 쉬어가는 경북 영주의 무성마을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여유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았다. 또 변하지 않는 영풍장도장의 꾸준한 태도는 얼마나 고귀한가.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5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5월 11일까지



우지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KTX매거진> 4월호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민하는 서울의 아코·대학로 예술극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평소 관심이 많은 주제였고, 심도 깊게 취재한 기사라 읽고 난 뒤 생각이 많아졌다. 꽃이 활짝 피면 오랜만에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가야겠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대한민국 18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NOBLIAN BLACK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쓸비치남해가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주'도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쓸비치 남해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면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해운대 | 소노벨 천안 · 청송 · 변산 · 제주 · 단양 | 소노휴양평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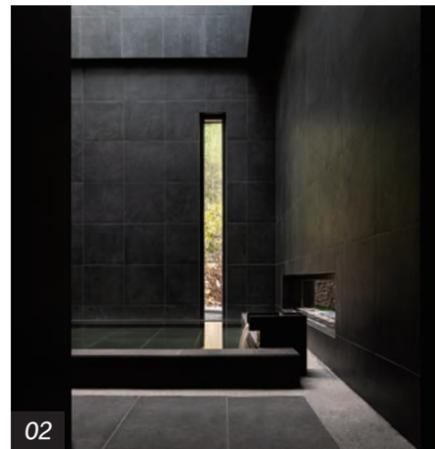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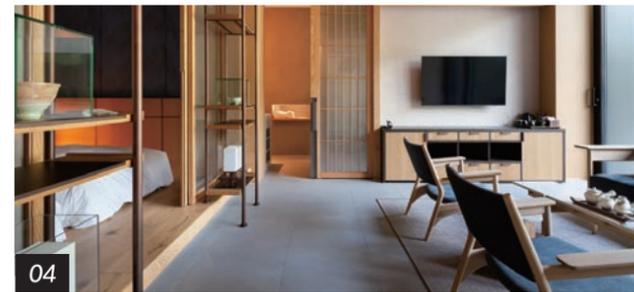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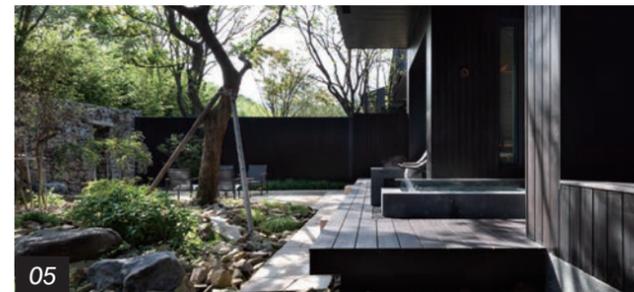
02



04



03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LIGHTROOM
ULSAN

David Hockney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 Photo by Justin Sutcliffe © David Hockney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계 최고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David Hockney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 Photo by Justin Sutcliffe © David Hockney



David Hockney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 Photo by Justin Sutcliffe © David Hockney

이제 'LIGHTROOM ULSAN'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1층에 특별 전시장을 만들고, 런던, 서울에 이어 울산에 라이트룸을 유치하였습니다. '라이트룸 울산'은 사방 스크린과 바닥까지 5면에 최첨단의 빔프로젝션 시스템을 적용한 몰입형 영상 시설과 업계 최고의 사운드 디자인을 결합하여 관람객들이 이전까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제시하는 가장 창의적인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세요

미술, 음악, 영화, 패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고 인재들의 통찰과 영감이 창조해낸 예술 세계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과 압도적인 비주얼은 다른 모든 미디어아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David Hock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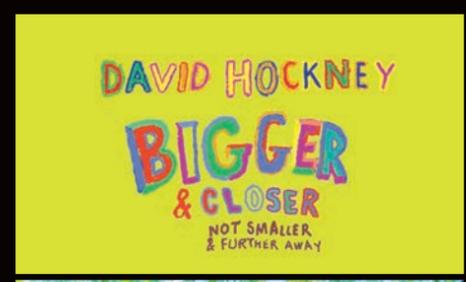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

데이비드 호크니의 지난 60년간의 예술 세계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 세계를 다룬 <데이비드 호크니: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60년간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 세계를 회화, 사진, 오디오 비주얼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몰입형 전시입니다. 호크니가 직접 전시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3년간 제작팀과 함께 자신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감각적인 경험을 만들어 냈습니다. 작가가 전시 내레이션을 직접 맡아 자신의 작업 방식과 의도를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거장의 예술적 시선과 세심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입체적 공간에 다채로운 음악과 조명 연출, 그리고 무빙 이미지가 더해져 기존 미술관이나 갤러리 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전시장에 가득찬 커다란 화면을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관객은 거장의 바로 뒤에서 작품의 탄생을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동안 플라로이드와 아이패드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예술적 실험을 계속해 온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번 전시에 대해 "내 일관적인 커리어의 연장선"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캔버스와 아이패드를 넘어 더 큰 매체로 확장되는 작가의 광대한 작품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David Hockney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 Photo by Justin Sutcliffe © David Hockney

세계적인 이머시브 아트 체험관
LIGHTROOM

David Hockney
데이비드 호크니
2025. 04. 01 - 08. 31

The Moonwalkers
더 문워커스 워드 톰행크스
2025. 07. 14 - 2026. 01. 31

라이트룸 울산
울산 중구 백양로 62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MAND**
☎ 052. 243. 9510
www.lightroomulsan.com



푸르른 자연의 합창

분수의 물줄기가 선율을 만들고, 오리들은 화음을 보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하는 초록의 합창.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경북 안동 낙강물길공원의
시원한 분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익숙한 고등학교

사라진 고종 황제의 금괴가 한 고등학교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비밀 작전을 펼친다. 그런데 학교 외관이 낯설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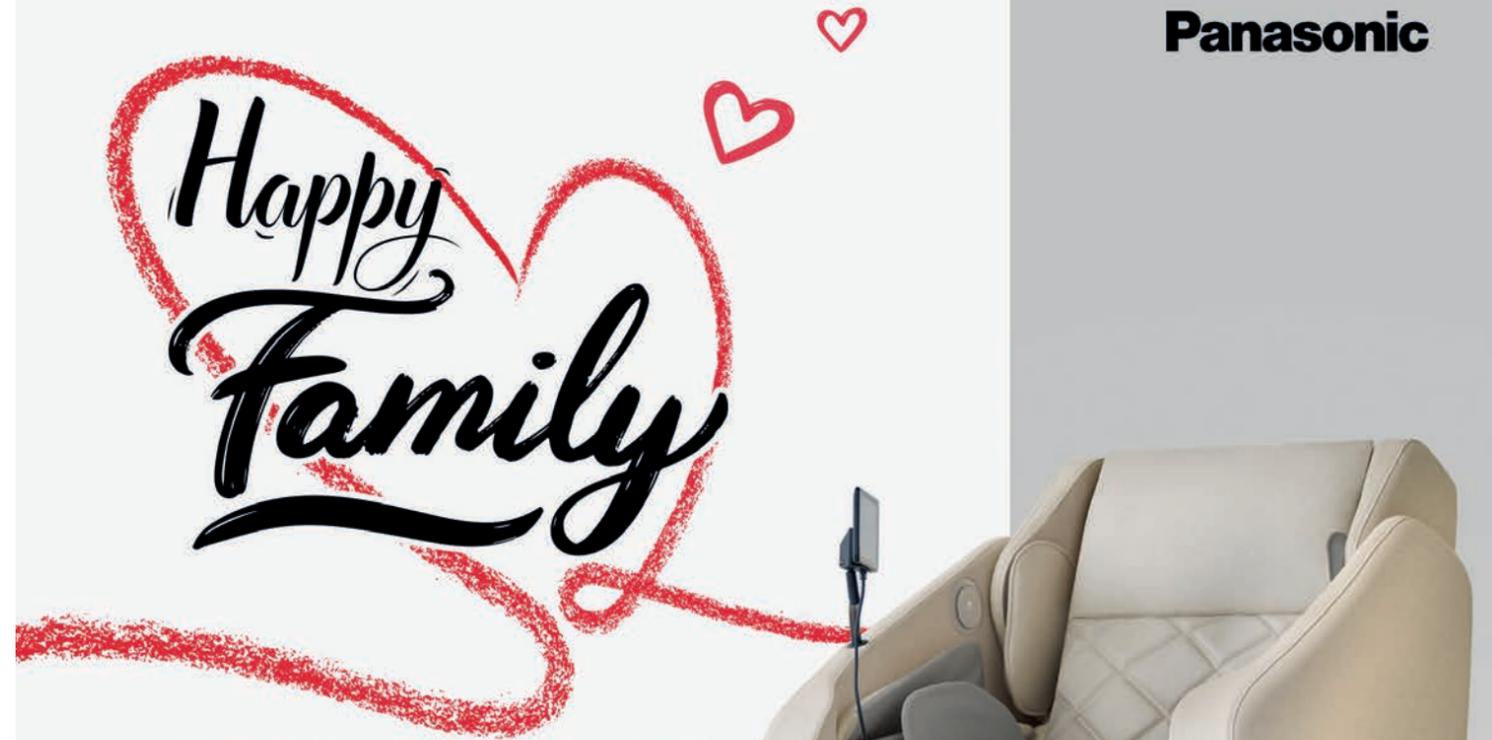
국정원 요원 해성이 작전 도중 국보급 국가유산의 일부를 훼손해 해고될 상황에 처한다. 팀원들 모두 절망하는 가운데 팀장이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며 운을 뚫는다. "서울에 학교가 하나 있어. 병문고라고, 너희도 한 번쯤 들어 봤을 거야." 병문고등학교 초대 이사장은 서병문. 고종 황제가 독립을 위해 맡긴 금괴를 빼돌리지만 해방 이후 급히 도망치다 일부를 챙기지 못한다. 해성은 그 금괴가 숨겨져 있다는 병문고등학교에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 금괴를 찾아내야 한다. 이른바 작전명 '언더커버 하이스쿨'. 드라마 제목과도 같다. 등곳길 첫날, 교복을 입은 해성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이 왠지 익숙하다면 착각이 아니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로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을 거다. <도깨비> <여신강림> <선재 업고 튀어> 등 특히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이곳에서 촬영했다. 민족 반역자로 불리는 서병문이 설립한 학교라는 극 중 설정과 달리 실제로는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은 장소라는 점이 놀랍다. 당시 학교의 숙직실은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을 논의하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학생들은 6·10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교정에 두 기념비가 세워졌다. 중앙고등학교는 눈에 익은 촬영지이자, 몰랐던 역사 공간이다.



고등학생으로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 해성이 금괴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액션, 코미디, 로맨스가 뒤섞인 이 작품에 서강준, 진기주, 김신록이 출연했다.



© MBC



파나소닉 안마의자 가정의달 특별 할인

MAN1
200만원 상당 할인 혜택
기간: 5/1~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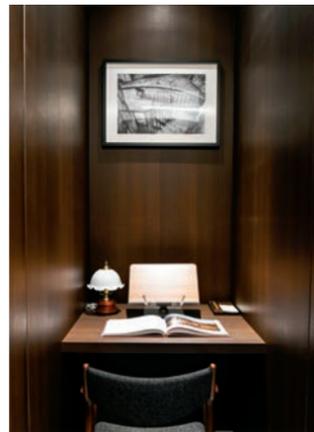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질찬 판매중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panasonic.co.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 파나소닉 중인프라자 (051)255-022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 금호월드 (062)350-8397 | 롯데 백화점 본점 | 롯데 백화점 잠실 | 롯데 백화점 강남 | 롯데 백화점 입산 | 롯데 백화점 센텀 | 롯데 백화점 대전 | 롯데 백화점 광주 | 롯데 백화점 인천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 현대 백화점 목동 | 현대 백화점 판교 | 현대 백화점 여의도 | 현대 백화점 대구 | 현대 백화점 중동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신세계 백화점 강남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 신세계 백화점 대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사진에 대한 정체성 탐구 기지, 사진서가

한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1800여 권의 사진 서적. 국내 1호 사진 라이브러리가 지난 2월 25일 문을 열었다.

나를 매혹하는 사진은? 내가 정말 찍고 싶은 사진은 어떤 걸까? 사진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도 종종 이런 근원적 의문에 빠져든다. 사진을 열심히 찍긴 하는데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 대혼란의 미궁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서울시 양천구 주택가에 자리한 사진서가 답이 될지 모른다. 이곳엔 지독한 사진 애호가 김진아 대표가 20년 동안 모은 1800여 권의 사진 서적이 진열되어 있다. 전 세계 유명 사진작가들의 사진집을 찬찬히 탐구하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사진의 방향성도 찾게 될 것이다. 사진 촬영에 들인 노력만큼 사진을 보는 데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가 전 세계 60여 개국을 여행하며 모은 고가의 사진 집들을 일반에 공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다. "사진집을 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해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진에서 시작해 차츰 의미심장한 사진, 나아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진으로 단계를 높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서는 건축설계사로 37년간 일한 김진아 대표가 5년 전에 지은 5층 규모의 건물 1~2층에 자리 잡았다. 1층은 국내 작가 사진집을 비롯해 사진 촬영과 포토샵 등에 관한 기술서 등을 비치하고, 2층은 외국 사진작가들의 사진집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놓았다. 1인용 독서 공간과 창을 향해 소파를 배치한 라운지 공간, 여럿이 둘러앉기 좋은 테이블 공간 등 공간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 대표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평일 낮 시간을 공략할 것. 공간 안에 더해 사진집 보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사진서가 이용료는 1시간 6000원, 2시간 1만 원이며 이용료에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양천구 곰달래로5길5-1



하늘과 바다를 잇는 특별한 경험 송도해상케이블카

A Special Experience Connecting the Sky and the Sea Songdo Cable Car



송도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 바로가기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즐기는 특별한 재미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 여행 필수코스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여행 기록자를 위한 호텔

부산을 여행하고 추억하며 기록하는 호텔, 굿올데이즈. 기억은 쉽게 흐려지지만 기록은 오래도록 남는다.



부산 여행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여행자에게 어울리는 호텔이 있다.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자리한 굿올데이즈. 이름처럼 '좋았던 옛 시절(good old days)'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에서는 스쳐 가는 하루를 특별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

2021년 문을 연 굿올데이즈의 콘셉트는 '시간'과 '기록'. 로비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메운 150종의 엽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 풍경을 담은 엽서들로 굿올데이즈와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들이 협업해 만들었다.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엽서에 그려 보는 여유.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객실에는 문구 서랍이 딸린 넉넉한 크기의 책상이 놓여 있다. 150종의 엽서 중 랜덤으로 넣은 엽서 두 장, 메모지 두 개, 우표와 봉투, 부산 지도가 담긴 웰컴 패키지가 놓여 있어 무엇이든 쓰고 그리고 싶어진다. 최대 3년 뒤까지 미래로 보내 주는 우편 서비스도 제공한다.

굿올데이즈는 아날로그 감성을 호텔 곳곳에 심어 두었다. 객실에는 버튼 하나로 음악이 흘러나오는 디지털 기기 대신 턴테이블과 LP가, 티백 대신 찻잎이, 캡슐 머신 대신 드립용 원두와 기구가 비치돼 있다. 숨 가쁜 일상에 잠시 심표를 찍을 수 있는 곳. 느린 호흡으로 하루를 보내기 좋다. 아침에는 따뜻한 스킨과 삶은 달걀, 시리얼과 제철 과일이 담긴 조식 바구니가 객실앞으로 배달된다.

굿올데이즈는 여행자와 부산의 로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객실 내 찻잎과 원두는 모두 중앙동 카페에서 공수한 것으로, QR코드를 통해 카페를 소개한다. 체크인 데스크 옆에는 중앙동 노포 맛집을 안내하는 엽서를 비치해 여행자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 6층 루프톱에 오르면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와 멀리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41번길 5 문의 @goodolddays_hotel



체력저하, 세포노화탓? 즐기세포로 노화 시계 늦춘다

즐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즐기세포 치료에 있다.

젊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활기차고 튼튼한 체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소진돼 나간다. 몸살이 나도 하루이틀이면 회복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컨디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운동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즐기세포, 노화된 세포를 깨운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도 이상이 없는데, 당장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특별한 처방을 고려해 봐도 좋다. 그중 즐기세포 치료는 '노화 시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즐기세포 치료는 면역력 증진과 기초 체력 향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화 세포로 인해 몸이 물에 젖은 솜이불처럼 무거울 때, 즐기세포는 이를 활성화해 젊음을 재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즐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통해 신체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고 세포 기능을 회복하는 게 핵심이다.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체 개선을 유도하는 치료 방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체내에 주입된 즐기세포는 약해진 세포를 튼튼하게 되돌리고, 만들어진 신생 혈관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단백질 합성 효과가 높아지고, 기초 체력이 자연스럽게 증진된다. 그야말로 젊은 시절의 체력이 돌아오는 것이다.

면역력 증진과 기초 체력 강화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즐기세포 치료는 이러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데 유리한 치료다. 뿐만 아니라 즐기세포 속 SDF-1α, PDGF, TGF-β1, VEGF 등의 성장인자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잔병치레가 잦다면, 또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즐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즐기세포 항노화 치료는 자신의 세

포를 활용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시술 후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두드러지는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할 필요는 없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진 세상이 된 것이다.

즐기세포를 특정 부위에 집중 주입하는 청담셀의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신 즐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 Cell)'을 필두로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 즐기세포를 진피층에 주입해 아름다운 피부로 개선하는 '미셀(美Cell)', 성기능을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두피에 직접 즐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이 대표적이다.



청담셀의원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즐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골수 지방 즐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기술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즐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7년 연속 수상했다. 청담셀의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의학 전문가로, 즐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 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고 현재는 대한즐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2-514-2225



한낮의 피크닉

기분전환겸나들이아이템만 쏙쏙.

1

2

3

4

5

문의 디스 1544-5114 파타고니아코리아 1544-1876 킨 02-6975-3140

1 플라워 프린트가 돋보이는 UV 차단 기능의 우양산은 닥스. 2, 3, 4 8리터 수납력에 착용감이 탄탄한 슬링 백, 폐그물 재생 소재로 만들어 뛰어난 내구성에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의 모자는 모두 파타고니아. 5 발 모양에 맞춘 완벽한 핏과 안정적인 접지력이 특징인 샌들은 킨.



2025 문경 찻사발 축제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2025.05.03.(토) ~ 05.11.(일) / 9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개막식 2025.05.03. 15:00
문경새재야외공연장



문의 페이지 070-8657-4236 브이디엘 080-023-7007 아워글래스 1644-4490 닥터벨머 080-023-7007

1가볍게 휴대해 야외에서도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페이퍼팝 메가토티 등받이** 종이 의자. 2자연스러운 피부 보정과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하는 **브이디엘 커버스테인 내추럴 리퀴드 비비 라이트**. 3선명한 발색과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선사하는 **아워글래스 스캐터드 라이트 글리터 아이섀도우**. 4입술을 도톰하게 연출하고 쿨링감과 보습력까지 챙긴 **아워글래스 팬텀 볼류마이징 글로스 밤**. 5유·수분 밸런스 유지와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닥터벨머 클레리파잉 진정 미스트**.

Panasonic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
파나소닉 REAL PRO MAN1



1 새로운 프레임
마사지 볼 도달 부위를 목에서부터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장한 SJ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 리얼 프로 3D 마사지 기법
10밀리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파나소닉만의 독창적 기술을 적용,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 느껴진다.



3 전신을 감싸는 셸 디자인
몸 전체를 감싸는 셸 형태 의자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이 가능하다.



4 나노이 X
일반 음이온의 1000배 이상 수분을 간직한 나노이 입자가 쾌적한 환경과 탁월한 탈취 효과를 제공한다.

최첨단 기술로 구현한 궁극의 휴식과 편안함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한다면, 파나소닉 프리미엄 안마의자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파나소닉이 최근 선보인 리얼 프로 맨 1(REAL PRO MAN1)은 89년간 축적해 온 파나소닉 기술력의 집합체다. 마사지 구동 영역을 확장한 SJ 프레임을 적용해 마사지 볼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목부터 척추, 허벅지까지 신체 부위를 골고루 마사지해 긴장을 풀어 준다. 상하, 좌우, 전후로 부드럽게 작동하는 3D 입체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총체. 4개의 마사지 롤이 마사지 전문가의 엄지손가락과 유사한 10밀리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며 온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안마의자에 공기 청정 기술인 나노이 X(Nanoe X)를 적용한 것도 놀랍다. 일반 이온보다 약 1000배 이상 수분을 간직한 입자가 탁월한 탈취 효과를 제공해 쾌적한 마사지 속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셸(shell) 형태로 몸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은 의자에 폭 안기는 듯한 편안함을 주고, 130도에서 170도까지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음악 감상을 하며 마사지를 즐길 수 있고, 마사지 부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직관적인 컨트롤러 화면과 USB 충전 포트도 장착되어 있다.

가정의 달 특별 할인 이벤트

퍼스트 클래스 안마의자 브랜드의 선두 주자, 파나소닉에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벤트 기간에 리얼 프로 맨1을 구매하면 2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 2025년 5월 1일~31일 문의 www.panasonic.co.kr

산아래 계곡엔 물고기가 산다. 물고기가 노니는 계곡에 푸른 숲이 담긴다.
숲이 빠진 물 위로 빨강고노란 점들이 어른거린다.
꽃인가 싶은, 오색 연등. 부처님오신날의 어느 산사.

2024년 5월, 전남 순천 송광사 계곡

이토록 환한 풍경의 안쪽

때론 새의 시선으로, 때론 땅에 엎드려서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볼 것.
산과 계곡, 바다와 풀밭에서 봄의 한순간을 포착했다.

산과들이 온통 연둑빛으로 피어날 때 바다도 힘차게 달음박질한다.
갈매기를 닮은 파도의 발자국. 레이스 같은 무늬를 남기며 저만치 부서지는 계절의 흔적.

2025년 4월, 강원도 강릉 옥계 해변

얼음처럼 투명하고 젤리처럼 탱글탱글한 아침,
보송한 숨털을 파닥이며 큰 숨으로 자라나는 초록빛 생명.

2024년 5월, 전북 김제의 어느 풀밭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 효과

적용금리 5% 기준, 기업지원금을 이자로 환산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면 누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청약 가능



재직자가 월10만원~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가입!

만기 시 기업납입금 (재직자 납입금의 20%)과 이자를 더해 재직자에게 지급



세제혜택과 교육복지 서비스, 우대금리 등 지원

중소기업 세액공제 및 손비인정, 재직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등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등

KOSME 중소기업지원진흥공단
www.sbcplan.or.kr



가입처 내일채움공제
문의 1588-6259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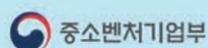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문의 1566-2566



문의 1599-0079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과 근로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



중진공



근로자



기업



3년 이상 장기재직

최소 1,224만원 목돈이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중견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3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제외)

지원대상

가입기간 3년~10년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중소기업=1:2 이상 비율로 납입)

3년간 1,224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지원조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개 지역본(지)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가입방법

기업

인력



전화 1588-6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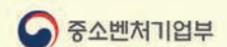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찾아가는 중진공

대상 내일채움공제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내용 중진공 직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설명, 상담 등 현장 소통 진행(필요 시)

접수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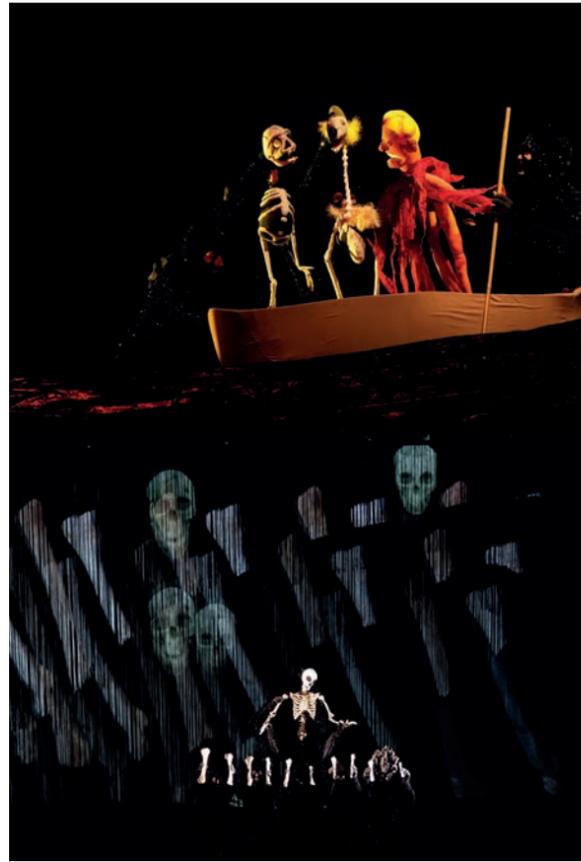


SHOW

EXHIBITION

FESTIVAL

© Richard Ter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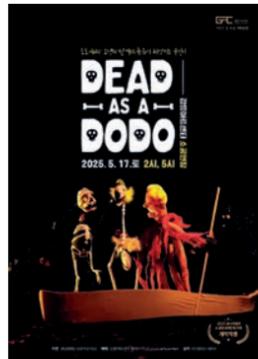
© Erato Tzavara

〈DEAD AS A DODO〉

강릉 05.17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평론가들이 극찬한 미국의 창작 집단, 와카 와카(Wakka Wakka) 프로덕션이 한국을 찾는다. 오는 6월 1일까지 춘천 전역에서 열리는 제24회 유니마총회 & 춘천세계인형극제 개막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자이언트 퍼펫 미디어 아트, 뮤지컬이 어우러진 인형극이다. 지하 세계를 배경으로 해골이 된 도도새와 소년의 모험 이야기가 아이는 물론 성인 관객에게도 감동을 안겨 준다.

장소 강원도 강릉아트센터 문의 033-660-6800



© 김포문화재단

〈구스타프 클림트 & 앙리 마티스: 황금빛 영원, 색채의 선율〉

김포 04.01~05.31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두 명의 예술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이용해 두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다. 하루 총 6회차로 나눠 두 작가의 콘텐츠를 번갈아 상영한다.

장소 경기도 김포미디어아트센터 문의 031-999-3953



© Anthony Browne

〈앤서니 브라운展: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

서울 05.02~09.28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우리 할아버지> 등 꾸준히 신작을 선보여 온 영국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상상 가득한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초기작 <거울 속으로>부터 <고릴라> <월리> 등 대표작까지 총 260여 점의 원화를 공개한다. 그림책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전시 동선과 작품 속 숨은 상징을 곳곳에 배치한 구성이 특별하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730-4368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 문경찻사발축제

문경 05.03~11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2025 문경찻사발축제가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9일간 열린다. 올해는 KTX 문경역 개통과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으로 축제장 접근성이 좋아졌다. 문경 도에 작가들의 시연 행사인 '사기장의 하루'를 비롯해 요장 투어, 문경 도자기 명품 경매, 찻사발 테마를 접목한 야외 방탈출 미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장소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문의 054-571-7677



2025 익산서동축제

익산 05.03~06

2025 익산서동축제가 무왕 행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는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 어린이 동반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콘텐츠도 강화했다. 서동 설화와 서동요를 활용한 미션 스토리형 영웅 RPG 게임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서동선발대회, 어린이 서동요제 등이 마련된다. 야간에는 서동공원과 금마저수지 일대에 유등을 전시해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장소 전북 익산서동공원 일원 문의 063-843-8817





FESTIVAL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04.30~05.09

영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주로 모인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57개국 22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배창호 감독 특별전과 마스터즈 섹션, 지역 독립 영화 쇼케이스, 배우 이정현이 프로그래밍한 영화를 감상하는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까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장소 전북 전주 영화거리 및 전주시 일원 문의 063-288-5433



EXHIBITION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서울 04.30~09.14

국내 최초로 오세아니아 예술과 문화를 살펴보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케브랑가-자크시라크 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 18세기부터 현대까지 오세아니아의 전통 예술품과 현대 작품 180여 점을 공개한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000



FESTIVAL

제10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제주 05.10~06.15

제주의 맛과 이야기를 다룬 미식 축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5월 10~17일엔 '제주의 맛(Taste of Jeju)'을 주제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 4명(박준우, 장한이, 조광호, 채낙영)과 제주 셰프가 협업하는 '고메디너', 4인의 셰프가 제주 식재료로 요리를 선보이는 '마스터셰프 클래스', 전 세계 80종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와인 테이스팅'이 진행된다. 6월 5~15일엔 제주 대표 베이커리와 카페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디저트 페어', 제주 맛집 200곳이 참여한 '고메스폰 200 & 고메위크'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장소 제주 전역 및 제주신화월드,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문의 02-3467-0303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FESTIVAL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공주 05.03~06

국내 최초 구석기 유적인 석장리의 가치를 알리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석장리 구석기 체험 존과 구석기 사냥 픽, 구석기 음식 나라, 특별 공연과 강연 등 3만 5000년 전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배우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장소 충남 공주 석장리박물관, 상왕동 일원
문의 041-840-8090



SHOW

2025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바리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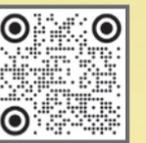
부산 05.22~24

지옥까지 내려가 아버지를 구한 바리데기.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시 6개 예술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바리데기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합창, 무용, 국악, 극,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장소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00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안동 유람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경북 안동을 걷는다.
조선시대 조리서 '수운잡방'의 음식은 오늘의 식탁으로 이어지고,
한 시대를 이끈 어른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이정표가 된다

제작 지원 안동시청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안동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안동이 사랑한 풍경

안동의 자연은 고요하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계절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오래 머무르게 한다.

시간도 쉬어 가는 낙강물길공원

숲을 만드는 데는 수십, 수백 년이 걸리지만, 숲을 잃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하다. 지난 3월, 안동의 일곱 면(面)이 화마에 휩싸였고, 나무와 사람의 삶터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남겨진 숲은 초록을 품고, 꽃은 해사하게 피어난다.

선비의 도시 안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의외로 '공원'이다. 안동수력발전소 원편, 낙동강 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낙강물길공원. 예부터 영남 사람들은 낙동강을 낙강(落江)이라고 불렀다.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발을 들이는 순간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도 숲을 고른다. 나무와 바람이 눈을 맞추는 시간이 찾아온다.

규모가 2만 6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낙강물길공원은 2000년 안동댐 인근에 조성한 폭포공원을 재단장해 2017년 새롭게 문을 열었다. 메타세쿼이아와 전나무, 연못이 어우러진 호젓한 풍경은 '비밀의 숲'이란 별칭



'비밀의 숲'이란 별칭이 붙은 낙강물길공원.

을 안겨 주었다. 연둣빛 공원 한가운데 분수가 물을 뿜어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은 차분해진다. 연못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걷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만 해도 삶이 조금은 부드러워진다. 넓은 잔디광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의 속삭임이 나란히 들린다. 늦은 오후, 부드러운 햇빛이 땅으로 내려앉으면 메타세쿼이아 나뭇잎 사이로 스민 빛이 호수에 닿아 반짝인다. 가장 사랑받는 포토존은 메타세쿼이아 숲 사이에 놓인 징검다리. 어쩐지 이 길을 걷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달빛이 물을 건너다, 월영교

낙강물길공원의 택을 따라 낙동강을 끼고 1.4킬로미터쯤 걸어가면 강물 위로 곡선을 그리는 나무 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안동 시민은 물론 여행자들도 사랑하는 다리. 2003년 개통한 길이 387미터, 너비 3.6미터의 목조 교량 월영교(月映橋)다.

‘달빛이 물에 비친다’는 뜻을 지닌 월영교는 상아동의 안동물문화관과 성곡동의 안동민속촌을 잇는다. 다

1 ‘달빛이 물에 비친다’는 뜻을 지닌 월영교는 달빛과 조명이 드리우는 밤에 더 아름답다. 2·4~6월과 10월엔 하루 네 차례, 7~9월에는 다섯 차례 다리의 분수가 물을 뿜어낸다.



1

2



리 중앙에는 팔각정 형태의 정자 월영정(月映亭)이 있다. 월영교는 전체적으로 미투리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여기엔 ‘원이 엄마의 편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1998년 안동 정상동에서 고성 이씨 이용태의 묘가 발굴되었다. 무덤 속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 담긴 한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으로 짠 미투리 한 켤레도 함께였다. ‘원이 아버지에게...’로 시작되는 편지와 유품은 4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월영교는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아름답지만, 달빛과 조명이 드리우는 밤에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매년

4~6월과 10월엔 하루 네 차례, 7~9월에는 다섯 차례 물길 위로 분수가 물을 뿜어낸다. 벚꽃이 환하게 핀 4월의 어느 날 저녁, 월영교에 서니 발아래로 잔잔한 물결이 스치고, 저 멀리 안동댐이 실루엣처럼 떠오른다. 다리를 건너 민속촌 방향으로 조금 더 걸으면 초승달을 닮은 문보트와 황포돛배가 정박한 선착장이 나온다. 밤이 내려앉은 강 위, 색색의 조명을 켜 보트들은 마치 초승달이 물 위에 내려앉은 듯하다. 월영교에서 범흥교까지 이어지는 2.08킬로미터의 호반나들이길은 2013년 완공된 산책로다. 걷다 보면 전망대 여덟 개와 정자 두 채를 만난다. 3월부터 10월까지의 해가 진 뒤 자정까지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밝힌다.

안동을 만든 손의 기억

선비의 밥상에, 햇살 담은 안동포에, 술 익는 풍경 속에 안동의 시간이 흐른다.

미식에 빠진 선비, 수운잡방

남자가 부업에 다가서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조선 시대, 음식에 대한 열정을 글로 남긴 선비가 있었다. 광산 김씨 탁청정 김유(金綏)와 그의 손자 계암 김령(金垺). 두 선비는 음식과 술을 연구하고 이를 기록해 후대에 남겼다. 그 결과물이 바로 <수운잡방(需雲雜方)>이다. 음식 조리서의 제목은 유교 경전 <역경>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需君子以飲食宴樂)”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다.

1540년경 쓰인 <수운잡방>에는 총 121가지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다. 술부터 국수, 장, 김치, 식초, 과자에 이르기까지 선비의 부업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섬세하다. 특히 술에 관한 기록은 59개에 달한다. 삼해주, 삼오주, 사오주, 벽향주, 만전향주 등 이름도 생소한 전통주와 음식의 조합은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이 오래된 조리법은 안동 와룡면 오천리 군자마을

의 계암종택 설월당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맥의 후손들은 <수운잡방>에 기록된 조리법을 되살리고, 그 맛을 사람들과 나누며 전통 반가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된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와 KBS 드라마 스페셜 <수운잡방>은 그러한 정신의 현대적 변주다.

안동 군자마을은 시내에서 약 3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다. 마을에 들어서자 술이 익어가는 커다란 옹기에 시선이 머문다. 광산 김씨 설월당 종가 15대 종부 김도은 씨는 이곳에서 <수운잡방>의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낸다. <수운잡방>의 대표 요리 삼색어탕은 은어, 새우, 묵 세 가지 재료로 만든다. 참기름을 발라 며칠을 말린 뒤 굵고 식히기를 반복한 가지 모점이, 생선을 발효한 어식회, 선비를 상징하는 문어에 더해 어란, 육회, 김치가 차려진 구첩반상이다. 여기에 삼해주가 식전주로 오른다. 음식에는 고춧가루와 생마늘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정향, 회향 등 향신료가 맛을 조율한다.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입, 두 입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재료 본연의



2



1

1 1540년경 쓰인 <수운잡방>에는 총 121가지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다. 2 <수운잡방>의 대표 요리인 삼색어탕을 비롯해 가지 모점이, 어식회, 문어, 어란, 육회, 김치가 차려진 구첩반상. 식전주인 삼해주도 곁들인다. 3 직접 빚은 술이 익어 가는 옹기. 4 광산 김씨 설월당 종가 15대 종부 김도은 씨.



3



4



1
깊은 맛이 납니다. 또 하나, <수운잡방>의 진짜 매력은 음식과 술의 조화에 있어요. 음식과 어울리는 술 한잔은 식탁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김도은 씨가 운영하는 수운잡방 전통음식체험관에 가면 500년 전 <수운잡방>에 나오는 구첩반상을 만날 수 있다. <수운잡방>은 그렇게 오래전 선비의 밥상과 오늘의 식탁을 잇고 있다.

햇살 머금은 안동포와 대마차

안동의 손맛을 이야기할 때 안동포를 빼놓을 수 없다. 안동포는 안동에서 생산한 최고급 삼베를 이르는 말. 대마의 줄기를 찌고 말려 곁껍질을 벗긴 후 가장 부드러운 속껍질만 사용한다. 속껍질을 일일이 채고 훑어 실을 만든 후 베를 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안동포는 울이 가늘고 햇살을 머금은 듯 연한 노란빛을 띤다. 오랜 시간과 장인의 손길에 더해진 만큼 안동포는 한 필에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지난해 12월, 안동 시내에 문을 연 지관서가는 안동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웅부공원 인근에 들어선 지관서가는 책과 차를 곁에 두고 사유하기 좋은 북 카페. 은은한 조명과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공간 디자인이 멋스럽다. 습기와 빛을 부드럽게 머금은 안동포는 1층과 2층의 벽 일부를 감싸며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무형유산 기능보유자가 짠 안동포 13필이 지관서가 곳곳에 사용됐다. 카페에 비치된 400여 권의 책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주제로 엄선했다. 조용한 오후, 봄 햇살이 어른어른 비치는 안동포에 등을 기대 채 책장을 넘기는 기분이 이채롭다.

햄프시드라 불리는 대마 씨앗은 차로 마시면 향기가 좋다. 한옥카페 사휴원에선 대마차를 곁들인 다과를 즐길 수 있다. 직접 볶아 우려낸 대마차와 향긋한 목련차, 안동 생강청에 더해 양갱, 망개떡, 대마 요거트도 맛볼 수 있다.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와 감각 있는 아들이 꾸려가는 이 공간에서는 조선 선비의 건강법도 배울 수 있다.

1 안동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지관서가. 2 한옥 카페 사휴원에선 대마차를 곁들인 다과를 즐길 수 있다.





1
2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진맥소주

안동 북쪽 끄트머리, 봉화군 경계와 맞닿은 맹개마을은 들어가는 길부터 범상치 않다. 장마철이면 강물이 불어나 길이 사라지기 마련. 그럴 땐 보트를 타야 한다. 맹개마을을 찾은 날은 다행히도 화창한 봄날. 연둣빛 밀삭이 바람에 일렁이고, 별 좋은 언덕 아래에서 진맥소주를 빚는 박성호 대표가 방문객을 맞아 주었다. 박 대표가 맹개마을에 터를 잡은 지는 올해로 18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새로운 삶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 그의 발길은 안동에 닿았고, 우연히 지금의 땅을 발견했다. 박 대표는 9만 9000여 제곱미터의 너른 땅에 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엔 원곡을 팔기도 했고,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밀로 술을 빚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주와 증류주를 공부하고, 안동의 소주 명인들에게 조언도 구했다. 치열했던 몇 년의 시간은 그가 출판한 <안동소주: 칠백 년 음식 유산>에 담겼고, 드디어 2019년 진맥소주가 탄생했다. ‘진맥(眞麥)’은 밀을 뜻하는 한자어로, <수운잡방>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진맥소주를 빚는 과정은 밀을 기르는 일에서 시작된다. 박 대표가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밀을 선별해 찌고, 누룩을 만들어 밀술을 담근 후 상압 증류기에 넣어 증류한다. 이렇게 얻은 80도 이상의 원액은 자연토 굴로 옮겨져 맹개의 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최소 1년 동안 숙성된다.

박성호 대표의 안내를 받아 연중 15도를 유지하는 숙성실로 들어선다. 흙 내음과 오크 향, 술의 향과 곰팡

이 냄새가 한데 뒤섞여 단 향이 난다. 크고 작은 오크통과 옹기, 스테인리스 통에서 술이 느릿느릿 익어 간다. 길게는 5~6년까지 숙성을 하는데, 숙성 시간이 길수록 맛이 섬세해지고 향은 풍부해진다. 진맥소주의 풍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크통이다. 스페인의 세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이나 버번 오크통에서 숙성해 새로운 향과 맛을 겹겹이 쌓아나간다. 국내 위스키 양조장이나 맥주 양조장과 오크통을 교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진맥소주는 22도, 40도, 53도, 54.5도 네 종류로 출시된다. 순하고 부드럽게 마시기에는 22도가 적당하나, 40도 소주가 가장 인기 있다. 상온에 둔 소주를 투명한 잔에 조심스레 따르려면 구수한 곡물 향과 향긋한 꽃 향이 코끝을 스친다. 한 모금 입에 물면 허브 향이 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랜 시간과 정성, 땅의 숨결이 술 한 잔에 오롯이 담겼다.



4



3

1 트랙터를 타거나 징검다리를 건너야 맹개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2 맹개마을을 파랗게 물들이는 밀삭. 3 2019년 첫선을 보인 진맥소주는 현재 22도, 40도, 53도, 54.5도 네 종류로 출시된다. 4 박성호 대표가 상압 증류기를 살펴보고 있다.

안동의 큰어른들

다 큰 사람도 어른의 위로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 21세기에 이르는 동안
안동의 큰어른이 되어 준 세 분을 만났다.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의 발자취를 만나러 도산면으로 향한다. 선생의 태실이 자리한 터와 종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퇴계종택, 그리고 퇴계의 학문과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도산서원이 길 위에 나란히 놓여 있다. 서원이 들어선 자리는 더할 나위 없는 명당이다. 앞으로는 낙동강의 너른 물길, 뒤로는 야트막한 산자락이 서원을 감싸 안는다. 풍수를 모르더라도 몸으로 그 조화로우미 느껴진다. 매표소를 지나 서원까지 이어진 흙길을 걷는다.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볍고 청량하다. 서원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퇴계 이황이 살아생전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지은 도산서당과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세운 도산서원이다. 이 중 도산서당은 1557년 퇴계가 구상해 1561년 완공한 소박한 집이다. 온돌방과 부엌, 퇴계가 머물던 완락재(完樂齋) 세 칸뿐인 공간. 그 작은 세계에서 선생이 전한 가르침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다. 뒷마루 옆엔 제자들이 몰래 살평상을 덧대 마루를 넓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스승의 엄격함과 제자들의 애정 어린 장난이 겹쳐진 따뜻한 장면이다.

⊕ 안동시티투어 버스

안동의 주요 관광지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안동시티투어 버스가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행한다. 요금은 1만원. 입장료와 식사, 여행자 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영교와 낙강물길공원, 안동댐정상, 주토피움, 웅부공원과 임청각, 안동찜닭 골목 등을 둘러보는 주간 도심 코스와 안동갈비&찜닭 골목, 영호루, 낙동강 음악분수, 월영교 야경, 웅부공원을 방문하는 야간 도심 코스 두 가지로 운영된다. 회양 장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도 가능하다. 출발 장소는 KTX 안동역과 안동버스터미널.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구입도 할 수 있다.

문의 www.gbtour.kr



퇴계가 살아생전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지은 도산서당.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인 1574년, 유생들과 제자들이 세웠다. 서당에서 계단을 따라 오르며 '참되게 도를 따르라'는 뜻의 진도문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너머로 전교당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 명필 한석봉이 쓴 사액 현판은 서원의 품격을 높여준다. 도산서원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다. 조선의 학문과 교육, 정치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성리학 정신의 상징이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산서원은 지금도 수많은 성리학 관련 고서와 목판을 간직하고 있다.

총과 펜을 쥔 독립투사,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야 위에 새긴 이육사의 목소리는 지금도 바람을 타고 온다. ‘광야’ ‘절정’ ‘교목’ ‘광인의 태양’ ‘꽃’ 등 세상에 남긴 96

편의 글. 그러나 이육사는 시인이기 전에 독립운동가였다. 이름 대신 '264'라는 수인 번호를 가슴에 달고 살았던 그는 글로도 총으로도 일제에 저항했다. 조국의 광복에 반평생을 바쳤고, 열일곱 번이나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생은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겨울, 베이징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



© 이육사문학관



© 안동시청청포도그(마)카다(인동)

1, 3, 5 이육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문예인 이육사문학관에서는 그의 시와 삶을 살필 수 있다. 2 이육사 선생의 시에서 이름을 가져온 264청포도 와인 4종. 4 이육사 시인이 생전에 사용한 안경도 볼 수 있다.



© 안동시청청포도그(마)카다(인동)



2



5

선생이 태어난 곳은 안동 도산면 원촌리. 깊은 산그늘 아래, 이육사문학관이 그의 이름을 안고 조용히 서 있다. 이육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04년 문예인 문학회 관에선 그의 시와 삶을 만날 수 있다. 문학관은 전시관인 '정신관', 체험 교육을 위한 '생활관', 그리고 복원된 생가 '육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소를 지나 정신관으로 들어서면 먼저 영상실을 만난다. '행동하는 민족시인 이육사'라는 제목의 12분짜리 영상을 보면 전시 공간이 비로소 하나의 시간처럼 다가온다. 정신관을 나서 산길로 접어들면 그리 높지 않은 언덕 위에서 이육사의 묘소와 마주하게 된다. 초라하리만큼 작은 봉분.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고개가 숙여진다. 정신관 왼쪽으로는 복원된 이육사의 생가 '육우당(六友堂)'이 있다. 여섯 형제가 함께 나고자란 집. 그 시절의 풍경이 오롯하다. 이육사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육사 선생의 시

에서 이름을 딴 '264청포도 와인' 양조장이 있다. 국내 개발 청포도 품종인 청수로 와인을 빚는데 풍부한 과일 향과 은은한 산미가 특징이다. 청수 단일 품종을 곱질째 발효시키는 제조 방식도 특별하다. "껍질에서 나오는 거칠고 투박한 풍미가 이육사의 시처럼 단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뽀얀맛이 흡사 이육사 시인의 정신을 닮은 듯해요." 264청포도 와인 이동수 대표의 말이다. 8년에 걸쳐 재배부터 숙성, 품질 테스트까지 마친 그의 와인은 '베를린 와인 트로피'를 비롯해 국내외 와인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64청포도 와인의 와인은 이름도 이육사 선생의 시 <광야>, <절정>, <꽃>,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빌려왔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미디엄 드라이 화이트 와인인 '절정'. 잘 익은 과일 향과 싱그러움 풀내음이 기분 좋게 퍼지고, 깔끔한 산미가 혀끝을 감싼다.

1,4 폐교를 리모델링한 권정생동화나라는 권정생 작가의 작품 세계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2기독교 월간지 <새가정>에 연재된 <몽실언니> 육필 원고 복제본, 3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과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

© 안동시블로그(마카다 인동)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맛. 테이블 와인도 물론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 “와인에 머무르지 않고 '264' 브랜드로 브랜드도 만들 계획이에요. 우리 입맛에 맞는, 그리고 우리 이야기와 어울리는 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말처럼, ‘절정은 시처럼 빛어진다. 잔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는 천천히 입안에 스며든다.

세상 모든 강아지똥에게, 권정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강아지똥이 민들레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듯, 세상의 낮고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써 내려간 사람이 있다. 동화 <강아지똥> <몽실언니> <엄마 까투리> 등을 쓴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삶은 비록 가난과 투병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동화 속 아이들은 늘 밝고 씩씩하다. 선생을 만나러 안동 일직면에 위치한 권정생동화나라로 향한다.

폐교된 일직남부초등학교를 개보수해 2014년 8월 개관한 동화나라. 이곳에서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벽면 가득 메운 책 표지와 삽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의 4남매, 마지·두리·세찌·꽂지 인형이다. 복도에는 권정생 작가의 대표작과 사진, 작품 해설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하나하나 바라보다 문득 ‘발한 똥기라는 시가 적힌 액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 발 한 똥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이름이 알려진 뒤에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세상의 낮고 작은 것들을 기꺼이 품었던 작가의 마음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전시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그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육필 원고와 일기장,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 병마와 싸우던 시절의 의료 기구, <강아지똥>으로 받은 첫 상장, 인터뷰 영상, 그리고 그가 남긴 두 통의 유언



© 안동시블로그(마카다 인동)



+

안동관광택시

안동관광택시를 이용하면 안동을 편하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다. '2025 경북방문의 해' 기념으로 2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안동 여행가는달'인 4~6월, 12월에는 추가로 3만원 더 할인 해준다. 웰컴 키트로 안동 특산품도 제공된다. 최소 5시간에서 최대 7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4인승 또는 12인승 차량 중 선택 가능하다.

문의 andongtourtaxi.com

장 등이 전시되어 있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 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여기서 나온 인세는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제 예금통장이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 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삶의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의 동무로 남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권정생동화나라에서 차로 10분, 그의 생가로 발길을 옮긴다. 작고 허름한 흙집. 문 위엔 ‘권정생’이라 적힌 종이 문패가 걸려 있다. 마당에는 유일한 가족이던 강아지 ‘뽕덕이’의 집이 남아있고, 집 뒤로는 그가 사랑하던 빌뱅이 언덕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좁은 방 하나, 누울 자리 하나뿐이었던 집에서 그는 100여 편이 넘는 동화와 시를 썼다. “좋은 동화 한 편은 백 번의 설교보다 낫다.” 천 번 만 번 맞는 말씀이다.

4



다시, 안동 권기창 안동시장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을 전개 중인 안동시청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안동의 봄 관광 코스와 추천 음식에 대해 물었다.



지난 3월 산불로 안동 역시 피해가 컸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불행 중 다행히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와 만휴정 등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불 발생 지역’이라는 인식 탓에 안동을 찾는 발걸음을 머뭇거리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지금 필요한 건 다시 여행자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여행으로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안동을 찾아 주신다면, 안동의 일상 회복도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올 상반기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요. 안동시티투어, 안동관광택시 할인 이벤트를 비롯해 KTX 이용객을 위한 유네스코 안동세계유산 기차여행 운영, 전통주 체험 행사, 수도권 지역 안동 관광 홍보 행사 등을 선보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도 100퍼센트 증액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지요. 안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여행 코스를 소개해 주세요.

안동에는 많은 명소가 있지만,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늘 그 자체로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부용대에 올라 하회마을을 내려다보며 봄바람 속에 잠시 멍하니 머무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 큰 위안이 될 겁니다. 병산서원 만대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자연의 숨결을 느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한국국학진흥원을 추천합니다. 세계기록유산전시체험관과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를 배우고 느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전망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바라보면 안동호에 비친 산의 모습이 마치 ‘누워있는 용’의 형상을 닮은 산세를 지녔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5월, 자연의 정기를 받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평소 걷는 것을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안동의 걷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주세요.

봄이 오면 안동은 걷기 좋은 도시로 변모합니다. 안동호반길을 따라 걷다가 월영교를 지나 낙강물길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저만의 힐링 루트죠.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예끼마을과 선성수상길을 따라 걷는 코스도 추천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봉정사를 찾아도 좋아요. 그윽한 산속 숲 내음을 깊이 들이마시고, 송강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하는 시간도 여행에 꼭 필요합니다.

안동의 먹거리는 무엇 하나 고를 수 없을 만큼 훌륭하죠. 시장님의 추천 메뉴가 궁금합니다.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찜닭, 간고등어, 갈비, 국시, 햇제삿밥 등이 있습니다. 진짜 안동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중 안동국시와 햇제삿밥을 권하고 싶어요. 안동에서 먹는 국시는 밀과 콩가루로 반죽한 면을 사용합니다. 맑은 육수는 담백하고 시원해서 자꾸 손이 가죠. 여기에 양념



1,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부용대. 64미터 절벽인 부용대 정상에 오르면 하회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간장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햇제삿밥은 제철 산나물에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 안동의 건강 음식입니다. 심심하지만 깊은 맛, 잔잔하게 오래 남는 여운이 있지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안동에 기부하시고 우수한 품질의 안동 특산물을 답례로 받아 가는 것도 안동을 맛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안동이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동은 오랜 시간 인문 정신 문화의 맥을 지켜 온 도시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문화가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우리의 안녕한 동아시아’라는 비전 아래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 가는 안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사유와 성찰이 있는 정신 문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 문화, 이야기와 정성이 담긴 음식 문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유산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담아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문화 공감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청소년 기후 위기 인문·예술 캠프, 동아시아 탈전시·체험 프로그램, 접빈과 풍류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 동아시아 종이·문자비엔날레 등 다채로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한·중·일 3국 간 국제문화 교류는 물론 문화, 예술, 관광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안동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 가는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Andong Excursion

We admire the scenic beauty of Andong, trace the timeless legacy of Toegye Yi Hwang, and savor traditional noble household cuisine along with a local distilled spirit that preserves centuries of craft.

Toegye Yi Hwang's Timeless Wisdom

To meet Toegye Yi Hwang, the revered mid-Joseon Confucian scholar and the face of Korea's 1,000-won bill, head to Dosan-myeon in Andong. There, you'll find the site of his birthplace, the Toegye head family estate, and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established in his honor. Dosanseowon is split into two parts: the Dosan Seodang (the lecture hall Toegye built in 1557 and completed in 1561 to teach his disciples) and the academy proper, built in 1574, three years after his death. The original Dosan Seodang is a modest three-room building with a heated floor and a kitchen. There's a story that his students secretly added floorboards to expand the narrow porch. But Dosanseowon is more than a historical site. It symbolizes the roots of Neo-Confucianism, which shaped Joseon's education, politics, and philosophy.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9, it houses countless rare texts and woodblock prints from the Neo-Confucian tradition. While facsimiles exist, you can view the original plaques and print blocks about 5 km away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s Confucian Culture Museum, which also preserves important archives entrusted by local families and academies in Andong. Notably, the museum houses UNESCO-recognized records, including Maninso: Ten Thousand People's Petitions,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Asia-Pacific Regional Register.

Address 154, Dosanseowon-gil, Dosa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1997, Toegye-ro, Dosa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Confucian Culture Museum)

Contact www.andong.go.kr/dosanseowon/(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www.koreastudy.or.kr/cfseum/(Confucian Culture Museum)

Soowoonjapbang: A Scholar's Passion for Cuisine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taboo for men to approach the kitchen. Yet one scholar defied this norm by documenting his culinary passion in writing. That man was Kim Yu of the Gwangsan Kim clan, and later his grandson Kim Ryeong. Together, they researched food and alcohol, recording their methods in classical Chinese. The result is Suunjabang, a 16th-century manuscript containing 121 recipes for everything from liquor and noodles to sauces, kimchi, vinegar, and confections. Notably, it features 59 kinds of traditional alcohol, including Samhaeju, Samaju, Saohju, Byeokhyangju, and Manjeonhyangju. This ancient culinary tradition lives on today at Seolwoldang in Gunja Village, Waryong-myeon, where descendants of Kim Ryeong continue to recreate Soowoonjapbang dishes and share the values of noble household cuisine. A standout is Samsaek Eoatang, a clear soup made with sweetfish, shrimp, and acorn jelly. Other signature dishes include grilled eggplant mojeomi, fermented raw fish, and a braised octopus dish symbolizing the scholar. Notably, none of the dishes use chili powder or raw garlic; instead, spices like clove and fennel are used as seasoning. At the Soowoonjapbang Experience Center, you can make a reservation to enjoy a traditional noble household meal faithfully recreated from 500 years ago.

Address 1013-20, Toegye-ro, Waryong-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Suunjabang Experience Center)

Contact www.soowoonjapbang.com





Wolyeonggyo Bridge: Moonlight Crossing the Water

Leaving downtown Andong and heading along the Nakdong River toward the Andong Dam Hydroelectric Plant, a curved wooden bridge appears gracefully across the water. Beloved by both locals and travelers, Wolyeonggyo Bridge was completed in 2003. Spanning 387 meters in length and 3.6 meters in width, it's Korea's longest wooden bridge. At its center stands Wolyeongjeong Pavilion, an octagonal structure whose name means "moon reflected on the water." Wolyeonggyo is beautiful during the day, but its true magic reveals itself under moonlight and soft illumination at night. From April to October, four times daily (five from July to September), a fountain show springs up across the river. Walk a bit farther toward the folk village, and you'll reach a dock where moonboats and yellow-sail boats are moored—each glowing with colorful lights at night, like crescent moons floating on the water. The 2.08 km Lakeside Promenade connecting Wolyeonggyo to Beopheunggyo Bridge was completed in 2013. Along the way, you'll encounter eight viewing decks and two pavilions. From March to October, the path remains softly lit until midnight, creating an inviting nighttime stroll.

Address 569, Sanga-dong, Andong-si, Gyeongsangbuk-do(Wolyeonggyo Bridge)



Jinmaek Soju: Today's Craft for Tomorrow

In Menge Village, nestled in Gasong-ri, Dosan-myeon, locals produce Jinmaek Soju, a distilled spirit rooted in the recipes of the historic cookbook Soowoonjapbang. The word "Jinmaek" literally means "wheat." The process begins long before distillation—with the cultivation of organic wheat grown by hand in local fields. After harvesting, the wheat is carefully steamed, mixed with nuruk (a traditional fermentation starter), and brewed into wheat-based liquor. Once the wheat liquor is ready, it undergoes low-pressure distillation using a traditional still. But the journey doesn't end there. The undiluted spirit—reaching over 80% ABV—is transferred to natural earthen caves for aging. With time, the flavors become more refined, and the aroma deepens. The most critical ingredient in shaping Jinmaek Soju's character is the oak barrel. Whether it's a cask that once held Spanish sherry or bourbon, the wood infuses the spirit with rich layers of complexity. Jinmaek Soju is available in four expressions: 22%, 40%, 53%, and 54.5% ABV. The 22% is smooth and easy to drink, but the 40% is the most popular and best-selling among them. When served at room temperature, it reveals toasty grain aromas with subtle hints of floral and honeyed notes. Despite the high alcohol content, the flavor is rounded and full-bodied, leaving behind a warm, lingering finish rather than a harsh bite. To fully appreciate its depth, Jinmaek Soju is best enjoyed in a narrow-rimmed Glencairn glass, which helps concentrate the aroma. At Menge Village, visitors can also participate in distillery tours and farm-style picnic programs.

Address 162-135, Gasong-gil, Dosa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Menge Village) **Contact** @mengemaetul_official

세종 밤마실을 즐기는 네 가지 방법

밤이 부드러운 계절, 세종시의 야간 문화관광 브랜드 '세종 밤마실'이 찾아온다. 불 밝힌 이응다리와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을 거닐며 세종의 밤을 만끽할 때다. 크고 작은 공연과 축제도 이 도시를 달빛처럼 밝힌다.



제작 지원 (재)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가는 방법 세종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오송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50분 정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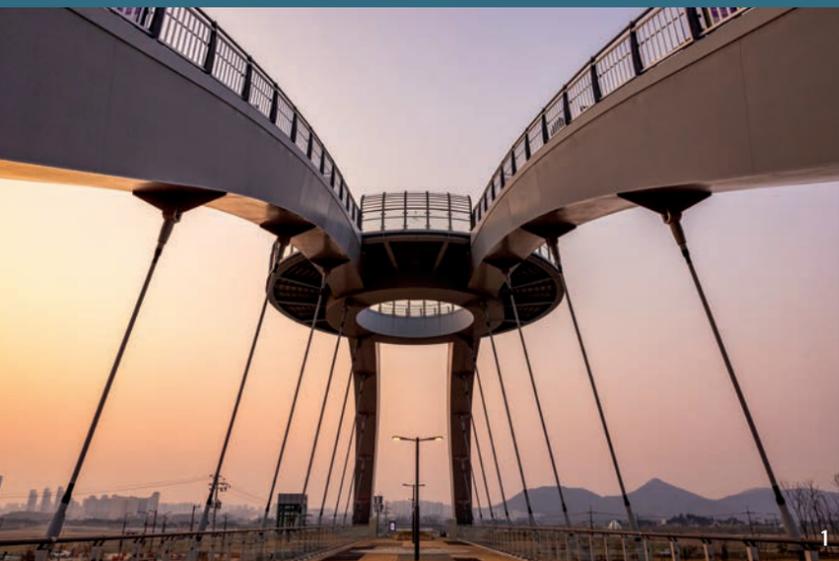
1 야경이 아름다운 이응다리는 연말연시에 열리는 '세종빛축제'의 주무대다.
 2 세종시는 자전거 친화 도시다. 공공 자전거 어울림을 타고 세종시의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를 경험해 본다. 세종 밤마실이 제안하는 코스 또한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3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세종낙화축제'를 여는데, 이는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례 '세종 불교 낙화법'을 소재로 한다. 가을에는 젊고 자유로운 도시의 비전을 드러내는 음악 축제 '세종보헤미안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 | 봄날 야경, 낭만 야행
이응다리 & 세종호수공원

미래 도시처럼 유려한 건축물이 늘어난 세종의 밤은 낮과 다른 표정으로 우리를 매혹한다. 거리를 수놓은 형형한 조명과 스카이라인, 일렁이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의 첫 번째 랜드마크, 이응다리에 닿는다. '금강보행교'라고도 부르는 이 구조물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을 기리고자 둘레 1446미터로 설계한 원형 다리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 복층 구조라 걷고, 달리고, 휴식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달콤한 강바람이 밀려오는 전망대에 다다르자 자음 'ㅇ' 형상의 거대한 다리 전경이 시야를 압도한다.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의 뜻이 이렇듯 크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밤을 완성하는 또 다른 장면은 세종호수공원에 있다. 약 70만 제곱미터(21만 1000평) 규모의 드넓은 공원은 세종 시민의 자랑이다.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습지섬과 물꽃섬, 모래사장으로 꾸민 물놀이섬 등 주제별 섬과 벚나무 길, 이팝나무 길, 나들숲 등 산책로가 자연 친화적 삶을 독려한다. 어둠이 내리면 호수 한가운데 놓인 수상무대섬으로 발길이 모인다. 금강의 조약돌을 형상화한 동형 공연장에 푸른 조명이 드리우니 이내 우주정거장 같은 초현실적 모습이 된다. 우주만큼 검고 깊은 호수에 도시의 밤이 어른거리고, 낭만이 찰랑거린다.

주소 세종시 세종동 29-111(이응다리), 세종시 다솜로 216(세종호수공원) 문의 044-868-9127(이응다리), 044-850-4370(세종호수공원)





1, 2 선홍빛 노을이 스민 금강과 형형한 스카이라인. 해 질 무렵 이음다리를 방문한다면 이 도시의 갖가지 모습을 만날 수 있다. 3 빌딩 숲에 안긴 자연 친화적 쉼터 세종호수공원. 물꽃섬에서 바라본 호수의 반영이 그림 같다.



3



세종 밤마실

세종에는 밤이 되어야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색색의 조명을 밝힌 건축물과 공원, 세종낙화축제와 세종빛축제 등 다종다양한 야간 축제와 행사가 밤의 낭만을 더해 준다. 2025년은 세종시 야간 문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다. 세종시는 올해 야간부시장제를 도입해 예년보다 풍성한 야간 문화 예술 행사와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 도시의 야간 문화 관광 브랜드 세종밤마실은 이들을 하나로 꿰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문의 www.sjcf.or.kr(세종시문화관광재단)



INTERVIEW

세종시 박영국 야간부시장(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한국 최초의 야간부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포부로 임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도시의 야간 문화를 이끄는 일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만큼 기대도 큼니다. 야간부시장은 이미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나이트 거버너(night governor)' 또는 '나이트 메이어(night mayor)'라는 명칭으로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밤을 무대로 벌이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페스티벌 등을 총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직무이자 시스템이지요.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은 물론 여행자가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여러 유관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부시장으로서 세종의 야경 명소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여행 문화 자원이 풍부한 세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꼽힌 랜드마크 이음다리와 2016년 당시 세계 최대 옥상 정원인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등 특색 있는 명소, 세종예술의전당으로 대표되는 공연 예술 인프라를 꼭 즐겨 보셨으면 합니다.

세종의 야간 문화 관광 브랜드 세종 밤마실을 비롯해 앞으로 펼쳐질 야간 문화 행사와 축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세종 밤마실의 대표 프로그램은 '세종 밤마실 주간'입니다. 주요 축제를 개최하는 기간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한데 모아 낮부터 밤까지 즐기도록 하는 것이지요. 상반기에는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 '세종낙화축제'와 세종예술의전당 야외 광장에서 열리는 '어반나잇-세종' '코카카아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세종보헤미안뮤직페스티벌'과 '세종예술의전당 윈터페스티벌' 등을 전후해 연 5회 세종 밤마실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야간 문화 예술 공연, 세종 밤마실 주간 지역 상권 할인 등 크고 작은 행사와 혜택을 준비했으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



4



5



2 | 밤은 노래한다 세종예술의전당 &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한국 음악의 3대 악성 중 하나로 꼽히는 난계 박연은 조선의 제례악과 제례 의식을 개정하고 악기도감을 만들어 아악을 정비한 음악가로,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위인이다. 그의 뒤에는 음악 관련 사업을 널리 펼치고 육성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세종이다. 최첨단 음향 시설과 1063석의 대극장을 갖춘 세종예술의전당은 그 이름과 내력에 걸맞은 품격을 지닌 종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나성동에 들어선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우아한 건물은 비상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2021년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널찍한 야외 광장에서는 어반나잇-세종, 코카카아트페스티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해 밤낮으로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세종예술의전당이 클래식 음악과 발레, 오페라, 뮤지컬 등 목직한 프로그램을 공연한다면 박연문화관에 자리한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은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행사를 기획하는 전략 기지이자 공연장이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1미터로 좁힌 기획 공연 '디깅 라이브세종',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 네 팀이 선보이는 '뮤즈 세종 쇼케이스', 지역 상가와 상생하는 클럽 공연 '공실 상가 라이브' 등 뜻뜻하고 재기 발랄한 무대가 봄밤의 흥을 돋운다.

주소 세종시 국립박물관로 21(세종예술의전당), 세종시 갈매로 387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문의 044-850-8989(세종예술의전당), 044-850-0571(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2



3

1 지역의 예술 부흥을 이끄는 복합 문화 공연 시설 세종예술의전당. 도시의 다양한 문화 시설과 연계한 공연을 기획해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3 박연문화관에 자리한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은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4, 5 세종에는 야경에 활기를 더하는 음악 분수가 여럿이다. 도시상징광장과 방축천음악분수가 대표적이다.

한 걸음 더

도시상징광장 정부세종2청사에서 세종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1.2킬로미터의 광장으로, 세종예술의전당 야외 광장과 연결된 개방형 문화 공간이다. 바닥 분수와 거울 분수 등이 뿜어내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을 즐겁게 하면서 한층 다채로운 밤 풍경을 이룬다.

방축천음악분수 어진동에 있는 방축천음악분수는 황홀한 음악과 눈부신 조명으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명소다. 해마다 5월부터 약 5개월간 가동하는 분수를 감상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온다.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에서 도보 15분 거리에서 함께 구경하기 좋다.



3

향긋한 밤 산책
국립세종수목원

어떤 식물은 밤이 되어야 본격적인 생명 활동을 시작한다. 박꽃, 달맞이꽃, 하늘타라... 수분을 돕는 곤충이 야행성이라 그렇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어둠과 밤을 양분 삼아 움직이는 모든 야행성 생물을 위해 야간 개장 프로그램 '우리함께(야)'를 진행한다. 한낮의 열기가 잦아들 무렵 국립세종수목원에 가면 한층 싱그럽고 상쾌한 공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800여 종의 열대식물을 품은 열대온실, 알람브라궁전을 모티브로 조성한 지중해온실, 테마별 체험 행사가 열리는 특별전시온실 등은 은은한 조명과 신비로운 향기로 발걸음을 이끈다. 호롱불을 손에 들고 정원을 거니는 색다른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서울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와 부용정을 재현한 궁궐정원, 전남 담양 소재원의 특징을 반영한 별서정원, 조선 시대 민가의 소박한 마당처럼 꾸민 민가정원 등 한국 전통 정원을 산책하는 동안 잠시나마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하다. 지역 농가에서 정성껏 기른 꽃으로 꾸민 사계절 꽃길, 희귀 자생 수목으로 조성한 보듬정원, 식물의 향과 촉감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감각정원 또한 산책의 기쁨을 안긴다. 올해 야간 개장 프로그램은 5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주소 세종시 수목원로 136 문의 044-251-0001



1 약 65만 제곱미터(20만여 평)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행사와 더불어,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는 8월 3일까지 식물과 함께한 추억을 포착한 사진을 모아 국민 참여형 기획전 <식물하고 나하고>를 연다.
2, 4 야간 개장 기간에는 지역소상공인과 연계한 플리마켓, 체험·교육 프로그램,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공연 등이 촘촘하게 이어진다.
3 궁궐정원의 밤 풍경. 호롱불을 들고 그림 같은 풍경 속을 거닐 색다른 기회다.



1

4 | 향훈한 조명 맛집 플레저 & 세컨드세컨드

세종의 황훈한 밤 풍경을 건물 49층 높이에서 굽어본다. 금강 지류인 제천 인근에 우뚝 올라선 카페 플레저는 이응다리와 세종호수공원 등 이 도시를 대표하는 야경 명소와 더불어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박물관, 세종예술의전당 등 근사한 건축물의 자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후 8시 이후에는 기존 조명을 소등하고 작은 램프 등 간접조명만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통창 너머 야경이 한층 선명해 보인다. 와인과 하이볼 등 주류 메뉴는 물론 시그너처 메뉴 '플레저 슈페너', 계절 메뉴 '청포도 코코에이드' 등이 봄밤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돋운다. 도시 외곽에 자리한 카페 세컨드세컨드는 이채로운 야경을 선사한다. 1960년대 미국의 레트로풍 인테리어를 충실히 구현한 이 공간은 비행기 격납고를 닮은 거대한 돔 형태 건물에 들어섰다.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색색의 간판과 형형한 네온사인. 외관부터 인테리어까지 정교하게 미국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력 메뉴 또한 미국식 정통 베이글이다. 쫄깃한 식감을 살려 현지 맛에 가깝게 레시피를 조율했다. 감자·토마토 바질·크랜베리 크림치즈 베이글 등이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5월에는 상큼한 풍미를 더한 신메뉴 오렌지 크림 라테와 오렌지 아메리카노를 선보인다.

주소 세종시 중앙공원서로 10(플레저), 세종시 깊은내길 82(세컨드세컨드)
문의 044-272-9488(플레저), 0507-1329-9183(세컨드세컨드)



2



3

1, 2 카페 플레저의 밤 풍경. 청량한 음료에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를 곁들여 본다. 3, 5 도시 외곽에 자리한 카페 세컨드세컨드에는 널찍한 잔디마당이 있다. 이웃 가게인 글램핑 바비큐장 '보글스마켓'도 함께 운영하니 두루 즐기기에 편리하다. 4 세컨드세컨드에는 오래된 주크박스나 공중전화 부스처럼 시선을 끄는 소품이 곳곳에 자리한다.



4



5



Sejong Nights: Four Ways to Experience the City After Dark

2 Sejong Art Center & Sejong Creative Center Nurirock

The Sejong Art Center, equipped with state-of-the-art acoustics and a grand theater seating 1,063 guests, is a fitting tribute to King Sejong, a monarch who deeply loved music. Located in Naseong-dong, the elegant five-story structure embodies the image of a city in flight. Its architectural excellence was recognized in 2021 when it received the Korean Culture Space Award. The spacious outdoor plaza comes alive with cultural events like Urban Night Sejong and the KoCACA Art Festival, offering vibrant entertainment both day and night. Inside Park Yeon Cultural Center, the Sejong Creative Center Nurirock serves as both a performance venue and a strategic hub dedicated to promoting popular music. Its signature event, Digging Live Sejong, features intimate performances with just one meter separating the stage and audience, creating an electrifying atmosphere. Another standout is the Muse Sejong Showcase, where four selected teams present fresh, spirited performances that bring energy and charm to Sejong's spring nights.

Address 21, Gungnipbangmulgwan-ro (Sejong Art Center), 387, Galmae-ro, Sejong-si (Sejong Creative Center Nurirock) **Contact** 044-850-8989 (Sejong Art Center) 044-850-0571 (Sejong Creative Center Nurirock)



“Sejong Nights” offers a refined take on nighttime travel. Whether you’re chasing music, moonlight, or a perfectly lit view, here are four ways to enjoy Sejong after dark.

1 leung Bridge & Sejong Lake Park

By night, Sejong transforms into something almost futuristic, its sleek architectural silhouettes presenting a different charm than by day. As you walk along illuminated streets, past glowing skylines and gently rippling waterways, you arrive at one of the city’s signature landmarks: the leung Bridge. It was designed in a perfect circle measuring 1,446 meters in circumference, in honor of the year 1446, when Hunminjeongeum was officially published. Sejong Lake Park is a beloved space for local residents. With eco-friendly paths weaving through wetland islands, waterflower islands, cherry blossom lanes, fringe tree paths, and forest trails, the park promotes a lifestyle in harmony with nature. When night falls, visitors naturally gravitate toward the floating stage island at the heart of the lake.

Address 29-111, Sejong-dong (leung Bridge), 216, Dasom-ro, Sejong-si (Sejong Lake Park) **Contact** 044-868-9127 (leung Bridge), 044-850-4370 (Sejong Lake Park)



3 Special Night Walk at Sejong National Arboretum

As the heat of the day fades, the air at the Sejong National Arboretum becomes noticeably cooler and more refreshing, welcoming evening visitors with a burst of lush vitality. The tropical greenhouse, home to over 800 species of tropical plants, the Mediterranean greenhouse inspired by the Alhambra Palace, and the special exhibition greenhouse featuring themed interactive events all glow softly under ambient lighting and captivate with their subtle fragrances. Visitors can also enjoy the unique charm of strolling through the gardens with a lantern in hand, adding a whimsical, almost magical touch to the experience. The Korean traditional gardens offer a sense of quiet time travel: the palace garden recreates Juhamnu Pavilion and Buyongjeong Pavilion from Changdeokgung Palace in Seoul; the villa garden reflects the refined aesthetics of Soswaewon Garden in Damyang, Jeonnam; and the folk garden evokes the simplicity of an ordinary courtyard in a Joseon-era village home.

Address 136, Sumogwon-ro, Sejong-si **Contact** 044-251-0001



4 Pleasure & 2cond Second

For a dazzling view of Sejong's nightscape from the height of a 49-story building, head to the café Pleasure—one of the city's signature nighttime destinations. From its panoramic windows, you can gaze out at the silhouettes of iconic landmarks lik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e National Children's Museum, and the Sejong Art Center, all arranged like a glowing backdrop against the dark sky. In addition to a wide selection of wine and highballs, the café's signature drink, the Pleasure Spanner, and seasonal favorite, Green Grape CocoAde, add a festive mood to the refined setting. 2cond Second offers a more eclectic and vibrant nighttime experience. This café faithfully recreates a 1960s retro American diner atmosphere, complete with colorful signage and bold neon lights that immediately catch the eye. Every detail—from the exterior design to the interior décor—evokes an exotic, nostalgic charm. The café's specialty is its lineup of authentic American-style bagels, made with a chewy texture that closely mirrors those found in the U.S.

Address 205-4901, 10, Junganggongwonseo-ro (Pleasure), 82, Gipeunnae-gil, Sejong-si (2cond Second) **Contact** 044-272-9488 (Pleasure), 0507-1329-9183 (2cond Second)



북인도 여행의 정수 조드푸르

인도를 여행할 때 기차를 타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도 드물 것이다.
라자스탄의 사막 도시 조드푸르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인도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다.





1

그는 우리 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인도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출발 공항이 김해였고, 방콕을 경유하는 일정이었다. 하루 전날 집에서 출발해 경남 김해에서 하루를 묵고 타이 방콕에 도착, 공항에서 8시간 동안 대기한 후 인도 델리까지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가야 했다. 오랜 비행 끝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반쯤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는 나와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없었던 팸투어는 인도가 유일하다.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인도 전통 의상 사리를 입은 가이드가 모습을 보였다. 너무 피곤해서 항의할 힘도 없었다. “웰컴 투 인디아.” 가이드는 이를 하얗게 드러내며 두 손을 모았다. 델리에서 조드푸르까지의 거리는 약 585킬로미터. 기차로 11시간 정도 걸렸다.

‘인크레더블 인디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델리역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머리에 커다란 터번을 두른 사람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우리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앞서가기 시작했다. 당연히 우리를 초청한 주최 측에서 보낸 사람으로 알고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좌석 위에 짐을 얹더니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지폐 세는 시늉을 했다. 돈을 달라는 말이었다. 일행 중 누군가가 가이드에게 물었다. “가이드께서 짐꾼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가이드가 대답했다. “아뇨,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요.” 일행 중 한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짐꾼들에게 돈을 주었다. 돈을 받은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도대체 그들은 우리 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도 궁금하다.

라자스탄과 조드푸르

인도 북부에 자리한 라자스탄은 ‘라지푸트들의 땅’이라는 뜻이다. 라지푸트족은 라자스탄을 지배했던 전사 집단이다. 이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누구보다 용감했다. 승리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조하르(Johar)의 전통이 있었다. 여성과 아이들은 화장용 장작더미에 몸을 던지는 사티(Sati) 풍습을 지켰다. 라지푸트들의 이러한 용맹 때문에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무굴 제국도 라자스탄 지역만은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고 혼인 등을 통한 타협책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다고 한다.

라지푸트들은 라자스탄의 수많은 성채와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들은 평지에 성을 지은 인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절벽에 성을 쌓고 소왕국을 세워 군림했다. 자이푸르의 자이가르성(Jaigarh Fort), 조드푸르의 메헤랑가르성(Meherangarh Fort), 자이살메르의 자이살성(Jaisal Castel)은 모두 적이 침략하기 힘든 천혜의 절벽에 들어섰다. 그리고 과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성들은 지금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어 전 세계 여행자를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요새들은 대부분 최고급 호텔로 바뀌어 여행자에게 마하라자(인도 왕)라도 된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라자스탄 지역의 도시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곳은 조드푸르일 것이다.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 서지우(임수정)의 첫 여행지가 첫사랑 김종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주인공인 공유와 임수정이 메헤랑가르성이 보이는 노천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메헤랑가르성에 올라 도시를 굽어 보기도 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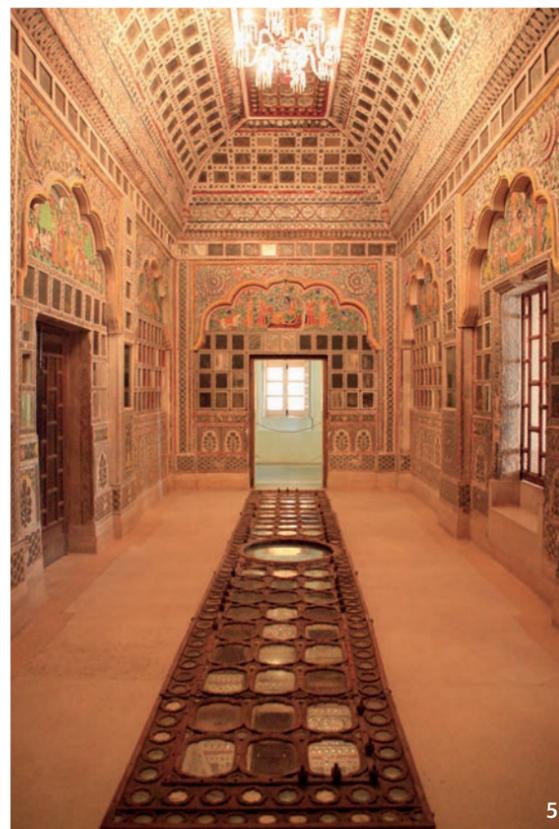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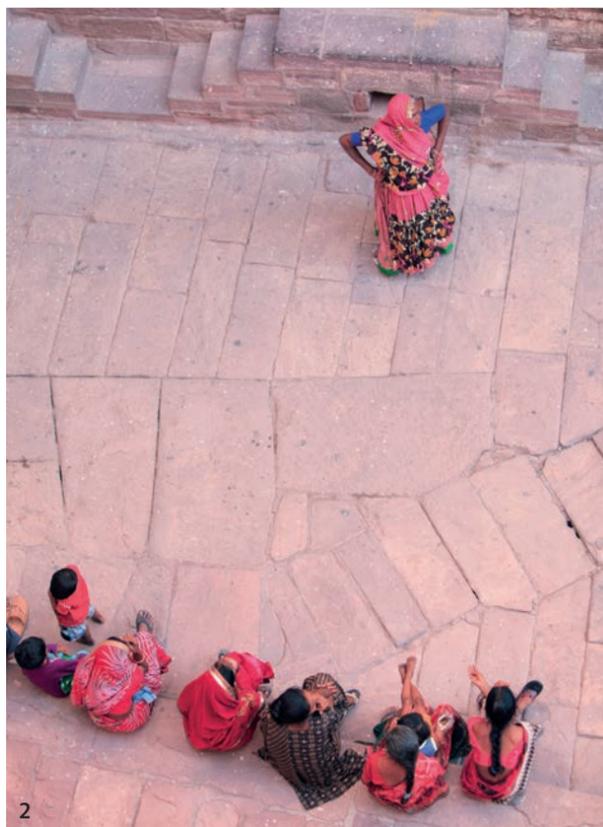


3



4

1 인도에서 기차를 타면 보이는 혼한 풍경. 2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3 델리역 풍경. 인도의 기차는 제시간에 출발하는 일이 거의 없다. 4 메헤랑가르성에서 내려다본 조드푸르. 대부분의 집을 푸른색으로 칠했다.



사막 위에 우뚝 선 불가사의한 풍경, 메헤랑가르

조드푸르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메헤랑가르성이다. 여전히 조드푸르의 마하라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성은 15세기 중엽에 착공해 19세기에 완성했다. 높이 125미터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성은 한눈에 보기에 인근 왕국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개를 180도로 꺾어야 바라볼 수 있는 메헤랑가르성은 사막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가사의하게 다가온다. 여러 개의 안뜰과 궁전으로 이루어진 이곳에는 왕의 행차에 사용하던 소품과 초상화, 풍속화 등이 전시되어 있고,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린 세밀화도 보인다.

미로처럼 뒤엉킨 내부를 구석구석 돌아본 뒤에는 성채 꼭대기로 올라가 보자. 가장 먼저 구시가지지를 향하고 있는 커다란 대포가 눈에 들어온다. 무시무시한 대포와 달리 이곳에서 바라보는 조드푸르 풍경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거의 모든 집의 벽을 푸른색으로 칠한 도시는 말 그대로 푸르디푸르다. 사막 위의 도시 조드푸르가 푸른색에 집착한 이유는 푸른색이 인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고유의 색깔이기 때문이다. 1459년 조드푸르가 마르와르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당시 브라만 계급이 다른 계급과의 신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집에 파란색을 칠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계급 역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으로 자신들의 집을 푸른색으로 칠해 도시 전체가 푸른색이 되었다. 조드푸르를 '블루 시티'라고 부르는 이유다.

메헤랑가르성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면 구시가지에 이른다. 골목은 술래잡기하는 아이들과 담배 피우는 노인, 소 떼와 오토리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여행자로 북적인다. 이 골목을 계속 따라가면 닿는 사다르 바자르(Sadar Bazaar)에는 채소와 향신료, 과자, 직물, 은,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이 즐비하다. 이곳에서 짜이(인도식 밀크티)를 마시며 바라보는 메헤랑가르성의 야경도 꼭 한번 볼만하다.

인도 카레에 대한 슬픈 추억

몽골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또 양고기를 먹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슈니첼을 먹고 슈니첼을 먹고 또 슈니첼을 먹었다. 인도에서는 카레를 먹고 카레를 먹고 또 카레를 먹었다. 호텔 조식을 빼고 매 끼니 카레를 먹었다. 닭고기 카레, 채소 카레, 매운 카레, 덜 매운 카레, 많이 매운 카레 등 카레의 연속이자 카레의 대향연이었다.

1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메헤랑가르 성채. 2 성 담 밑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조드푸르 사람들. 3 조드푸르 시장에서 만난 아이들. 4 조드푸르에서는 낙타를 차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다. 5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메헤랑가르성의 방.

인도 여행 나흘째 되는 날, 일행 중 한 명이 가이드에게 말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이제 카레가 좀 힘드네요. 게다가 인도 카레는 우리나라 카레와 너무 달라서...” 가이드는 “노쁘라브럼”이라고 답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점심으로 또 카레가 나왔다. 다들 으레 그렇듯 당연하게 생각하며 스푼을 들었는데, 한 명이 스푼을 식탁 위로 툭 던지며 말했다. “또 카레다!” 낮았지만 비장하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분노에 찬 시바 신처럼 보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난 이제 더 이상 단 한 숟가락도 카레를 먹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다.

취재를 마치고 방콕으로 떠나는 뉴델리 공항. 기내식을 제공하는 카트가 다가왔다. 인도 국적기니까 당연히 카레가 나오겠지. 아니, 국제선이라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떴다. 스튜어디스가 물었다. “치킨 오아르 치킨?” “어어응, 왓?” “닭 먹을래 아니면 닭 먹을래?”라니. 보통 ‘치킨 오어 비프’ 아닌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스튜어디스는 특유의 인도 억양으로 웃으며 말했다. “완 이즈 스파이시(One is spicy).”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진 일행이 건너편 자리에서 맥스봉 소시지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노쁘라브럼.”



1



3

알아 두세요

조드푸르 가는 법

한국(서울, 부산)에서는 조드푸르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다. 주로 델리나 뭄바이 같은 인도의 주요 도시로 입국한 뒤 국내선 비행기나 기차, 버스를 타고 조드푸르로 이동한다. 델리에서 조드푸르까지 비행기로는 약 1시간 30분, 기차로는 11시간 소요된다. 뭄바이에서 조드푸르까지도 비슷하게 걸린다.

인도 철도 이용 팁

인도의 국영 철도인 인도 철도(Indian Railways)는 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지만 장거리 여행 시 기차가 더 쾌적하고 안전하다. 기차 종류는 1등석 에어컨 침대칸(1A), 2등석 에어컨 침대칸(2A), 3등석 에어컨 침대칸(3A), 슬리퍼칸(SL), 일반 좌석(2S), 무예약 좌석(UR)으로 나뉜다. 장거리 여행에는 1A, 2A, 3A를 추천한다. 슬리퍼칸은 저렴하지만 혼잡하다. 1A는 가장 우등칸으로 개인실이 있는 경우가 많고, 3A는 대중적이면서 에어컨이 작동된다. 예약은 인도 철도 공식 웹사이트(www.irctc.co.in)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출발일 기준 약 120일 전부터 예약이 시작되며, 빨리 예약할수록 좌석 확보에 유리하다. 특히 관광지간 노선(델리-조드푸르, 델리-자이푸르 등)은 금세 매진되므로 조기 예약이 필수다. 관광객 전용 쿼터(Tourist Quota)가 따로 있어, 예약 마감 시 현지 기차역 관광객 창구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출발 전 반드시 기차번호와 플랫폼을 확인하고 승차해야 한다. 역마다 플랫폼이 다르고, 출발 직전에 변경될 수도 있다. 문의 및 예약 www.irctc.co.in

조드푸르 즐길 거리

사다르 바자르에서는 활기찬 인도의 시장 분위기를 느끼며 향신료와 직물, 기념품을 쇼핑해 보자. 시계탑 간타 가르(Ghanta Ghar) 주변에는 짜이를 마시며 휴식하기 좋은 곳이 많다. 조드푸르 왕족의 거대한 궁전이었던 우메이드 바완 궁전(Umaid Bhawan Palace) 일부는 럭셔리 호텔, 일부는 박물관으로 개방한다.



2



4

1 조드푸르 시장의 양탄자 가게. 카메라를 보여 주면 순박한 미소를 짓는다. 2 인도에서 먹은 카레. 걸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한 입 먹으면 강렬한 향신료 맛이 입안에 가득 찬다. 3 거리를 달리는 오토리샤와 오토바이. 4 조드푸르 골목에서 만난 노인들.



궁궐,
공부 말고
산책

오랜 역사를 품은 장소에 가면 왠지 예의와 형식을 갖춰야 할 것만 같다. 김서울 작가는 가벼운 발걸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궁궐을 걸어 보길 제안한다.





1

궁궐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하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신뢰하는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기 마련이다. 중간에 질문이라도 받으면 시험 범위를 숙지하지 못한 학생처럼 멧쩍은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김서울 작가는 우선 눈으로 보라고 말한다. 궁궐을 탐색하는 건 정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선으로 쫓는 일. 쉽게 말해 공부대신 산책을 하라는 뜻이다.

창덕궁에는 돌이 많다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의 저자 김서울 작가는 <유물즈>를 출간하고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기존의 유물 관련 서적과는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유물의 탄생과 기원은 상관없다는 듯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이 가득했다. 국가유산인 금동관 음보살좌상을 보니, 어릴 적 학습지 과제를 끝냈지 못했을 때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모습과 닮아서 고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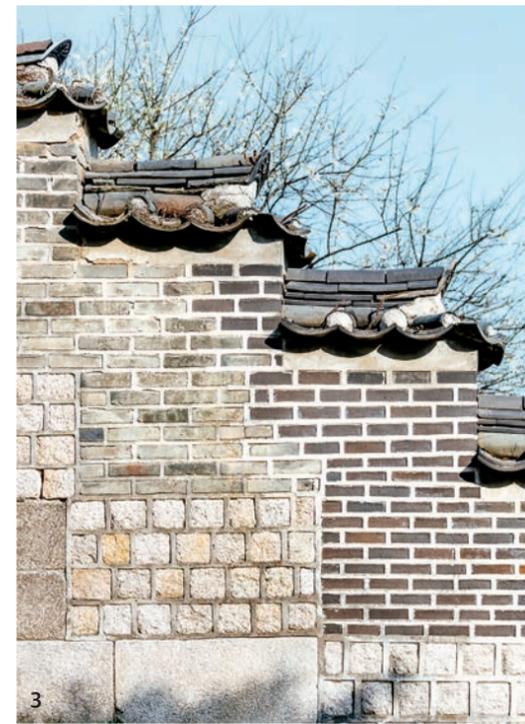
숙이게 된다는 등 유머러스한 내용이 빼곡했다. 이후 궁궐에 대해서도 책을 써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궁궐은 그에게 풀지 못한 숙제 같았다. 전통 회화를 전공하고 보존 처리 일을 하며 유물과 친해졌지만, 궁궐은 자주 찾는 장소가 아니라 낯설었다. 심사숙고 끝에 우선 사계절 동안 서울의 5대 궁,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경희궁을 돌아보기로 다짐했다. 익숙한 유물을 바라보듯 천천히 훑었다. 조금씩 궁궐에 빠져들었고, 매력 포인트를 살살이 찾아냈다. 그렇게 김서울의 궁궐 탐방기를 담은 에세이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이 탄생했다. 그의 추천을 받아 서울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다.

창덕궁에는 궁 하면 흔히 떠올리는 요소가 많다. 정전과 내전을 포함해 건물이 많고, 시기별 건축양식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후원이 조성되어 '궁궐 입문자'에게 제격이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이후 왕실 사람들과 관료들이 창덕궁으로 옮겨 살아 조선 시대의 생활 흔적도 남았다. 나라의 중요 행사를 치르던 인정전에 들어서기 전, 석수가 먼저 눈길을 끈다. 부정한 기운을 막고자 궁 곳곳에 설치한 돌 조각은 위압감을 주기 위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모된 탓에 귀여운 돌 짐승에 가까워 보인다. 김서울 작가는 계단에 털썩 앉아 익숙하게 돌을 쓰다듬는다. "석조 유물은 이렇게 만져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다들 궁궐의 포인트가 비슷했는지 이목구비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유독 매끈하죠."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도 하고, 이빨은 얼마나 뾰족한지 확인하는 그의 모습이 흡사 동물을 살피는 수의사 같다.

인정전에 들어서니 차마 너머로 드러나는 선정전의 청기와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주로 짐부실로 사용하던 선정전의 기와는 화약과 탄약 제작에 쓰던 비싼 염초로 만들었다. "염초를 활용하면 건물의 위엄이 높아지지만, 그 비용을 아껴 국방력에 보태는 방법도 있으니 청기와를 올릴지 말지가 첨예한 주제였어요." 유약을 입혀 구운 기와는 햇볕이 강할 때, 구름이 지나갈 때, 비가 올 때 등 날씨에 따라 빛깔이 변해 궁궐에 방문할 때마다 다른 인상을 준다. 치열한 논쟁 끝에 올린 청기와는 김서울 작가가 창덕궁을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주거 건물인 낙선재는 창덕궁에서 유일하게



2



3



4

1 김서울 작가는 단청을 '사시사철 피는 꽃'이라 표현한다.
2 선정전의 청기와.
3 돌담 표면의 질감이 부분 부분 다르다.
4 인정전 입구 계단에 놓인 석수.



그동안 우리는 궁궐을 공부할 대상으로만 여긴 게 아닐까. 주체적으로 감상하기보다 안내자의 설명과 해설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거다.

단청이 없다. 이를 두고 김서울 작가는 “자극적인 함흥냉면 사이 습습한 평양냉면”이라 일컫는다. 대신 화려한 무늬를 강조했고, 색이 적어 디테일이 돋보인다. 돌담에 새긴 문양도 신기한 벽지를 보듯 찬찬히 살피게 된다. 김서울 작가의 발길을 좇으니 유독 돌 앞에 자주 선다. 유물을 재질별로 분류하는 보존 처리 일을 했던 그에게 돌은 여전히 친근한 대상이다. 동행하는 이에 따라 마주할 풍경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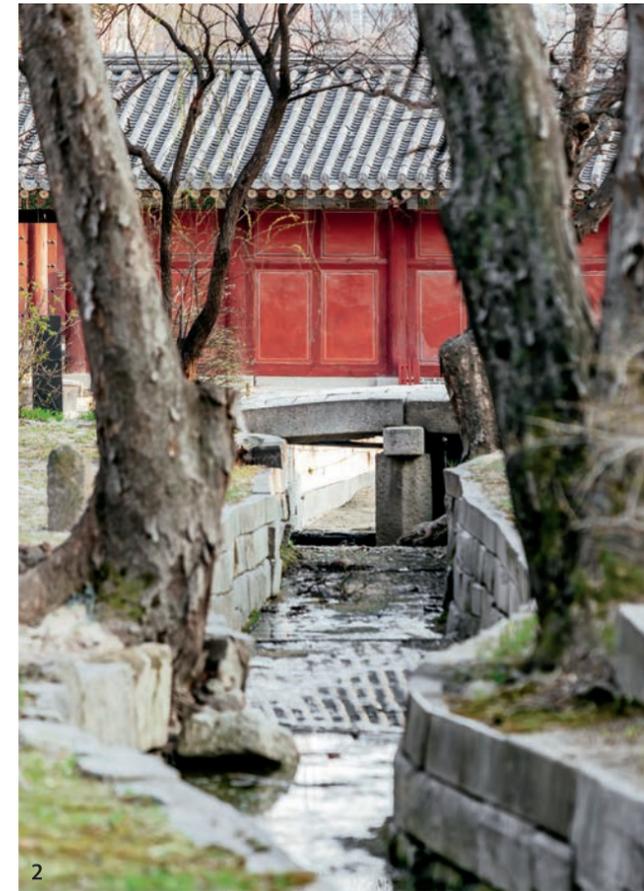
고즈넉한 산책 공간, 창경궁

사람도 건물도 많아 북적거리는 창덕궁과 달리 창경궁에 들어서자 차분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일제강점기에 내부 건물을 대부분 헐고 공원으로 바꾸어 적막하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시선을 뺏는다.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에서 한 차례 만났던 백송이다. 흰빛을 띠는 줄기가 독특하고 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일명 카무플라주 패턴이 반복되는데, 옆 나무도 같은 무늬를 이루고 있다. 나무껍질이 부분 부분 떨어져 여러 색의 퍼즐 조각을 모아 놓은 듯하다.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테다.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궁궐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한 이는 언제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할까. 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나 단풍이 화려한 가을일 거라 확신했으나, 김서울 작가는 뜻밖에도 여름과 겨울이라고 답한다. 무더위와 추위 덕에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이란다.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고요한 궁궐 안에서 그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운다.

하루 동안 나눈 대화를 곱씹어 보니 역사적인 내용은 질문과 답변의 핵심이 아니었다. 전시장에서 나누는 관람 후기와 비슷했다. 형태와 무늬를 눈으로 보고, 자재의 촉감을 손으로 느끼고, 작은 물소리에 귀 기울이

1 창덕궁 직원만 이용하는 문 나무가 만든 음영 때문인지 묘하게 비밀스럽다.
2 줄줄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다.
3 창경궁 안에는 벤치가 많다.



2



3



made in

수원을 만드는 사람과 공간, 일곱 가지 이야기

SUWON



머 마음이 동하는 순간을 자유롭게 주고받았다. 입구에 놓인 안내판은 중요하지 않았다. 궁궐을 방문할 때면 꼭 읽고 지나갔는데도 나중에 떠오르는 건 없었다. 그동안 우리는 궁궐을 공부할 대상으로만 여긴 게 아닐까. 공간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기보다 안내자의 설명과 해설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거다. 무엇을 볼지 정해야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정교하게 설계한 건축물이자 예술 작품인 궁궐은 나의 미적 감각을 깨우고 취향을 파악할 최고의 장소다.



김서을 작가가 추천하는 궁궐 방문 순서

불거리가 다양한 곳을 먼저 들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교적 심심한 궁궐에서도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내기 수월하죠.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창덕궁을 맨 처음에,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자 법궁인 경복궁을 두 번째로 가세요. 이후 내부에 미술관이 있는 덕수궁, 산책하기 좋은 창경궁, 궁의 흔적만 남은 경희궁을 차례대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명정전과 다른 건물을 잇는 회랑. 비나 눈이 내리는 날 특히 유용한 통로다. 2층당지 근처에서 만난 백송.

no.05



1

interview

리누 그런 의미에서 대표

책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책방을 인수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이라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 힘들었고, 독립 출판으로 책을 낸 터라 책방을 운영해 보기로 마음 먹었죠. 2년 전에 매탄동에 있던 책방을 행궁동으로 이전했다고요. 행궁동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존 책방은 북 토크나 모임을 하기에 공간이 좁았어요. 마침 행궁동에서 적당한 공간을 발견해 이전을 결심했죠. 행궁동은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는 장점도 크게 작용했어요. 수원 시민은 물론 여행자들도 많이 찾아와요. 주변에 책방이 늘면서 책방 투어를 하는 분도 많아졌고요. 현재 북 토크나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는 오은 시인의 북 토크를 열었는데, 대전에서 온 분도 있었어요. 글쓰기 모임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책방 창업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향후 계획이 궁금해요. 작가와 독자, 출판사가 머리를 맞대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현재 3주에 한 번 출판사 기획전을 열고 있고, 5월부터는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작가 기획전'도 열 생각이예요. 독립 출판 작가 중 한 분을 선정해서 작가가 쓴 책과 그 작가를 소개 만든 책을 함께 전시하는 거죠. 책방에 온 독자들이 출판사 기획전을 보고, 작가 기획전도 감상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읽는 사람이 곧 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행궁동 벽화 골목, 금보여인숙 맞은편에 자리한 '그런 의미에서'는 책에 오롯이 집중하기 좋은 곳이다. 계단 끝 3층에 다다르면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빈티지한 인테리어의 책방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저절로 걸음이 멈춘다. 시, 소설, 에세이에 더해 독립 출판물이 꽂혀 있는 서가에는 읽고 싶은 책이 가득하다. 자몽 허니 블랙 티, 페퍼민트 루이보스, 피리 블로섬 등 4~5종의 차와 함께 위스키, 맥주도 판매해 책을 보면서 가볍게 음주를 즐기기도 좋다. '책방은 읽고 싶은 책을 만나는 공간이자, 읽는 사람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리누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의 북 토크를 자주 연다.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4주에 단편소설 하나를 완성하는 '나의 첫 소설 쓰기'와 술을 마시며 글을 쓰는 '주절주절' 모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책방을 운영하기 전부터 독립 출판으로 책을 만들었던 리누 대표는 지난 4년간 서점과 출판사를 병행하며 11권의 에세이와 소설을 출간했고,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5년째 서점을 운영해 온 고군분투기를 에세이집 <도대체 책방이 뭐라고>에 담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72번길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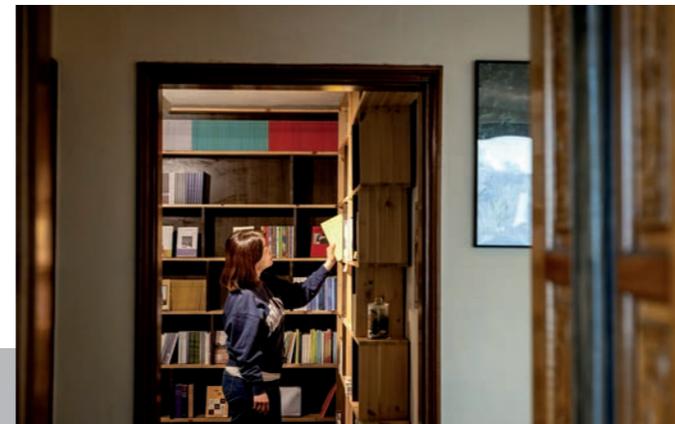


3



4

1 그런 의미에서 서점에는 군데군데 책 읽기 좋은 테이블이 놓여 있다. 2 그런 의미에서를 운영하며 리누 대표가 출간한 책들. 3 서점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거울에는 책 속 문장들이 붙어 있다. 4 가정집을 개조해 개인 서재 같은 분위기가 나는 서가.





1



2



3



4



5

1 온실에서는 <모네×일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2 지중해를 테마로 한 온실 풍경. 3 나무 덕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습지원. 4 수목원의 관문, 방문자 센터를 찾은 사람들이 수목원 전망을 즐기고 있다. 5 온실에서 마주한 선인장. 6 이국적인 건물과 거대한 식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온실.

도심속 오아시스
일월수목원

일월수목원은 2023년 '더 살아 있는 자연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를 모토로 일월저수지 옆에 조성한 공립 수목원이다. 방문자 센터에 들어서면 유리창 너머로 수목원 정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사계절 좋아하는 공간은 온실. 지중해·호주·남아공이 곁향인 식물 302종이 빼곡한 온실에 들어서면 따뜻한 지중해로 순간 이동을 한 듯한 기분이 든다. 온실에선 '정원을 사랑한 지중해 화가 모네'를 주제로 한 <모네×일월 특별 기획전>이 한창이다. 일월수목원의 야외 정원은 여유롭다. 회귀종 해오라기 난초가 피는 습지원 주변을 거닐거나 벤치가 놓인 숲 정원에서 쉬어 가기 좋다. 다산정원은 수원화성을 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조성한 공간으로 사각형 연못과 정자도 자리해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방문자 센터만 들른다면 입장료(4000원)를 내지 않고 유리창 앞 소파에 앉아 '식물멍'을 즐겨도 좋다. 5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개장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1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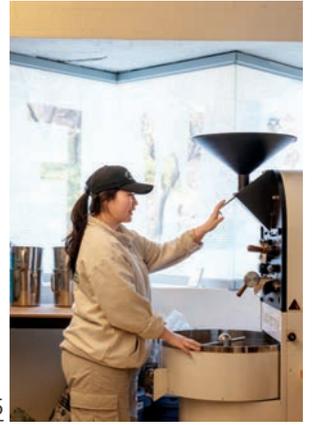
2



3



4



5

수원의 색을 담은 스페셜티 커피
노스모크위드아웃파이어

“수원의 문화를 스페셜티 커피에 담아 높이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널리 확산하고 싶어요.” 박채령 노스모크 위드아웃 파이어(No Smoke without Fire) 대표는 커피를 매개로 수원을 알리는 로컬 브랜드를 꿈꾼다. 대학생 때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박 대표는 수원 토박이 남편과 함께 로스터리 카페를 6년째 운영 중이다. 2019년 수원 구도심 교동의 양옥을 리모델링한 교동점을 시작으로, 2022년 팔달산 자락에 유림점을 오픈했다. 창 너머로 수원향교가 내려다보이는 유림점은 향교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 신랑 신부가 피로연을 여는 유림회관 내에 자리한다. 수원 시민에게 익숙하지만 여행자에게 낯선 이 지역에 카페를 연 건 발길이 뜸해진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림점에서 로스팅한 원두에도 수원의 색을 담았다. 포트리스(Fortress) 블렌드는 수원화성에서 착안해 콜롬비아, 브라질 생두로 농밀하고 묵직한 맛을 표현했다. 박 대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원두를 탐색하며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저녁 무료로 퍼블릭 커피를 진행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17(유림점)

- 1 수원향교 옆 유림회관을 modern하게 리모델링했다.
- 2 노스모크 위드아웃 파이어에서 로스팅한 원두.
- 3 포트리스 원두로 만든 아인슈페너와 바닐라빈 라테.
- 4 드립백도 판매한다.
- 5 노스모크 위드아웃 파이어의 로스팅 룸.
- 6 오래된 벽돌 건물 앞마당이 노천카페가 되었다.

6





1

너른 마당을 품은 카페 경안당은 한옥 특유의 따스한 감성이 흐르는 곳이다. 수원의 역사가 깃든 행궁동의 은은한 매력에 반해 경안당을 연 김경아 대표는 '처음 행궁동에 왔을 때 인 사동과 북촌이 공존하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한다. 어떻게 하면 행궁동에 살며 이 동네와 잘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당이 넓은 집을 사서 전통 한옥을 지었다. 김 대표는 경안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정조의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 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브랜드 '루하루' 차와 함께 떡, 꽃감, 딸기 모찌, 견과류 등의 다과를 맛보며 정조의 어록을 필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조의 하루 일과를 일러스트로 그린 병풍 카드에 "생각의 어긋남을 경계하라"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등 정조의 어록을 펜으로 쓰거나 스탬프로 찍으며 왕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도 흥미롭다. 정조가 남긴 말처럼 알아 간다는 것은 진정 기쁨이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1번길 8-15

정조의 어록을 아로새기며
경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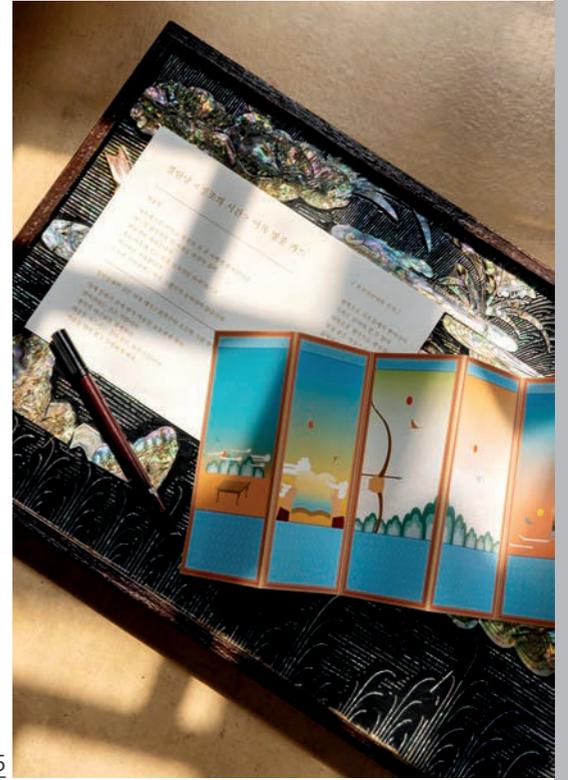
2



3



4



5



6

1 '정조의 시간'을 예약하면 정성껏 차린 다과를 맛볼 수 있다. 2 멋스러운 한지 문과 장식. 3 한옥 카페의 정취와 좌식 테이블의 편안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내부. 4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안당 입구. 5 정조 어록과 병풍 카드. 6 마당에서 바라본 경안당.



1



2



3



4



5

<선재 업고 튀어> <그 해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공통점은? 모두 수원 행궁동에서 촬영한 K-드라마다. 과거 행궁동은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단독주택과 한옥이 많은 동네였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던 행궁동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K-드라마의 인기 덕분. 특히 <선재 업고 튀어>의 주인공 선재(변우석)와 솔(김혜윤)이 살던 파란 대문 집 앞 골목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아침부터 북적인다. 선재네 집은 실제 가정집이라 들어갈 수 없지만, 솔네 집은 카페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선재와 솔이 오가던 벽화 골목과 선재의 고백 장소로 알려진 화홍문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원화성 북쪽 수문인 화홍문은 누각 아래 아치형 터널을 뚫어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과 수원천에 놓인 징검다리 가 고아한 자태를 뽐낸다. <그 해 우리는>의 주인공 최웅(최우식)의 작업실 겸 집이었던 장소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박은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우영우 김밥'도 여행자들의 인기 촬영지다. 우영우 김밥은 실제로 김밥집으로 운영하며 간판을 그대로 사용해 드라마의 여운이 느껴진다.

- ❶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14
- 드라마 <그 해 우리는> 촬영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1번길 22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23번길 61

화성연행궁동의 재발견
K-드라마 길

1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로 유명한 화홍문.
2 선재의 집 앞에서 인증샷 삼매경에 빠진 외국인 여행자들.
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김밥 간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4 화홍마트에서 마주한 <선재 업고 튀어> 속 장면들.
5 행궁동 벽화 골목도 K-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다. 6 <그 해 우리는> 속 최웅의 작업실 겸 집 풍경.



6



1



2

"예술' 말 그대로 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전술적 가치로 술을 다루고 싶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공존공간' 멤버들은 우리
보였다.

"다양한 예술가와 타부음이 생각났고, 맛있는 커피
있는 독립서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멋지게 빠
라는 뜻이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깝게는 예전
각종 축제가 있었고, 만리동들과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우리 동네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共在)할 때 더욱

interview

박승현 공존공간 대표

왜 행궁동을 선택했나요? 공존공간의 슬로건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드는 일상'이예요. 저에게 가장 가까운 공간은 제가 나고 자란 행궁동이고요.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를 만든 건가요? 맞아요. 공존공간이 하는 일은 곧 '재생'이라고 생각해요. 신도시양조회를 통해 팔딱산과 원천유원지를 소개하며 수원의 낮은 이미지를 없애고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그 연장선으로 술 빛는 문화를 전하고 싶어 '재생'에 술을 전한다는 뜻의 '전술'을 합쳐 재생전술이란 이름으로 우리 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수원 내 기업부터 외국인까지 꽤 높은 호응을 얻었어요. 로컬페스타는 계속 진행할 계획인가요? 지역 상인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콘텐츠화되어야 상권이 살아나잖아요. 로컬페스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행궁동에 집중해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즈음에 열 예정이예요.



5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소
공존공간

공존공간은 로컬 콘텐츠로 행궁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지역 경영 회사다. 시작은 행궁동 토박이 박승현 대표가 2012년부터 6년간 운영한 게스트 하우스 '공존공간'이었다. 박 대표는 이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궁동 골목 야시장 축제 '행페부림'과 '행궁동 로컬 페스타'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원의 로컬 문화를 이끌었다. 2021년에는 공존공간 사옥을 지으며 로컬 브랜드를 만들기 로 뜻을 모아 양조를 시작했다. '정조가 만든 신도시에서 양조장을 하는 친구들'이란 의미에서 이름도 '신도시양조회'라고 지었다. "수원 토박이들은 팔달산을 팔딱산이라고 불러요. 지역민이 사용하는 애칭을 브랜드화해 팔딱산 맥걸리를 출시했죠. 그다음으로는 추억의 원천유원지를 선보였어요." 수원을 전면에 내세운 맥걸리 브랜드는 꽤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 대표는 이에 힘입어 팔딱산의 온라인 판매도 추진할 생각이다. '재생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국내외 여행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 2021년부터는 행궁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나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코워킹 스페이스 '행:그라운드'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시작했다. 행궁동의 로컬 문화를 보다 깊고 널리 알리기 위한 그의 행보는 쉴 틈이 없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5번길 32

4



- 1 정조가 꿈꾸었던 가장 오래된 신도시, 행궁동에서 만나는 신도시양조회의 맥걸리들.
- 2 우리 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 3 수원화성 옆에 자리한 공존공간 사옥. 4 사옥 안에 신도시양조회 양조장이 있다.
- 5 팔달산의 애칭을 브랜드화해 호응을 얻은 맥걸리 브랜드, 팔딱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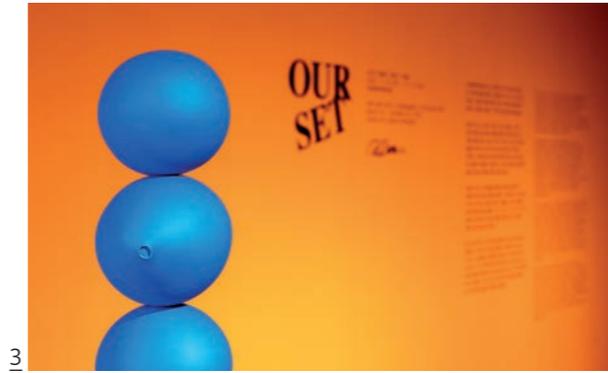


1



1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의도로 만든 박길종 작가의 '휴거(휴지 거치대)'. 2 박길종 작가의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전시 보행기와 김홍석 작가의 '여덟 개의 숨' '공공의 공백'. 3 <아워 세트> 전시는 현대미술의 실험정신을 보여 준다. 4 김홍석 작가가 트럭 운전사, 대학생, 청소부 등을 극사실적 인체 조각으로 표현한 '침묵의 고독'. 5 전시와 연계된 체험 공간. 6 수원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자리한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 7 박길종 작가의 사물+오브제 작품들과 '언덕 위의 팔방풍'.

2



3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
홍수엽 열린 미술관

5



빌딩 숲과 호수가 드넓게 펼쳐진 곳에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가 있다. 원천유원지가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2013년 광고호수공원으로 태어났다면, 2019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는 수원컨벤션센터 개장과 함께 광고호수공원과 이어지는 열린 미술관으로 조성됐다. 호숫가에 산책하러 왔다가 가볍게 발걸음하기에도 부담 없는 위치다. 가족 체험 전시부터 예술의 창의성을 일상에 전파하는 현대미술전까지 전시 내용도 다채롭다. 모든 전시가 무료인 것도 매력적이다.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에서는 2022년부터 서로 다른 매체를 다루는 창작자 간 협업 프로젝트 <아워 세트(Our Set)>전을 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김홍석, 박길종 두 작가의 2인전은 10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에 들어서면 김홍석 작가의 작품 '오발 토크(Oval Talk)'와 박길종 작가의 작품 '서울 허수아비' 너머로 광고호수공원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퍼포머처럼 보이는 김홍석 작가의 극사실적 인체 조각 '침묵의 고독'을 관람하다 보면 작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이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유아차를 개조해 폐지를 담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박길종 작가의 작품 '전시 보행기'는 관람객이 직접 밀어 보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 보행기'를 미는 순간 관람객은 퍼포머가 된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6



4

7



no.05
SUWON
X
KTX MAGAZINE

그런 의미에서

일월수목원

노 스모크 워드아웃 파이어

경안당

K-드라마 길

공존공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고

WRITER 우지경(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장은주

지금 여기

세상을 조립하는 시인이자 사진가 이훤 | 극사실주의작가 론 뮤익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독특한 색과 무늬를 창조하는 공예 브랜드 쿤스트호이테 | 이국적 감성이 담긴 서울 신사동 브런치 카페
전주국제영화제 시즌을 맞아 떠나는 전북 전주 오감 여행



세상을 조립하는 시인 이훤

수많은 장면이 이훤의 시선 속에서 새롭게 배치된다.
카메라로 담거나 글로 풀어낸 이야기는 계속해서 쌓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팽창시킨다.



문학에 관심 있는 이라면 이훤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테다. 지난해 11월 그의 산문집 <눈에 덜 띄는>이 출간된 이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 싱어송라이터 김사월과 함께 집필한 에세이 <고상하고 천박하게>와 시산문집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에 수록된 동시 '놀러와'는 방송인 김나영과 그의 두 아들 이준, 신우에게 선물하는 영상으로 먼저 공개됐다. "신우야 이준아/ 너희의 모국어가 월계/ 엄마라는 나라에 계속 놀러와/ (중략)/ 내가 제일 그리운 표정은 다 거기 삽니다/ 엄마도 여기 계속 놀러와/ 그냥 놀러와". 시에 나오는 '놀러와'는 김나영이 과거 패널리로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명인데, 단어가 거듭 반복되자 엄마와 아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환대의 목소리로 확장된다. 작품에 묻어낸 이훤 작가의 세심한 관찰과 다정한 심성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큰 화제가 됐다. 시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작품이 귀하기에 어느 하나를 대표작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잘 표현한 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진과 시의 언어를 빌려

시에 등장하는 '모국어'라는 단어는 이훤 작가의 작품에서 여러 번 쓰인다. 타국에서 오래 생활한 그에게 모국어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 그는 열아홉살에 혼자 미국으로 이주한 후 1년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 일상에 스며든 단절감을 표현할 장면 앞에 자꾸만 멈춰 섰다. 당시 카메라에 담긴 풍경이 그의 마음을 대변했다. 10년 정도 지나니 한국어가 되찾고 싶은 욕망이 살아났다. 그러나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기에는 언어 능력이 부족했고, 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전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파편적으로 끊어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됐어요." 시가 과거를 설명하고 현재를 받아 적었다. 현재 그의 직업이자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진과 시는 한때 그의 모국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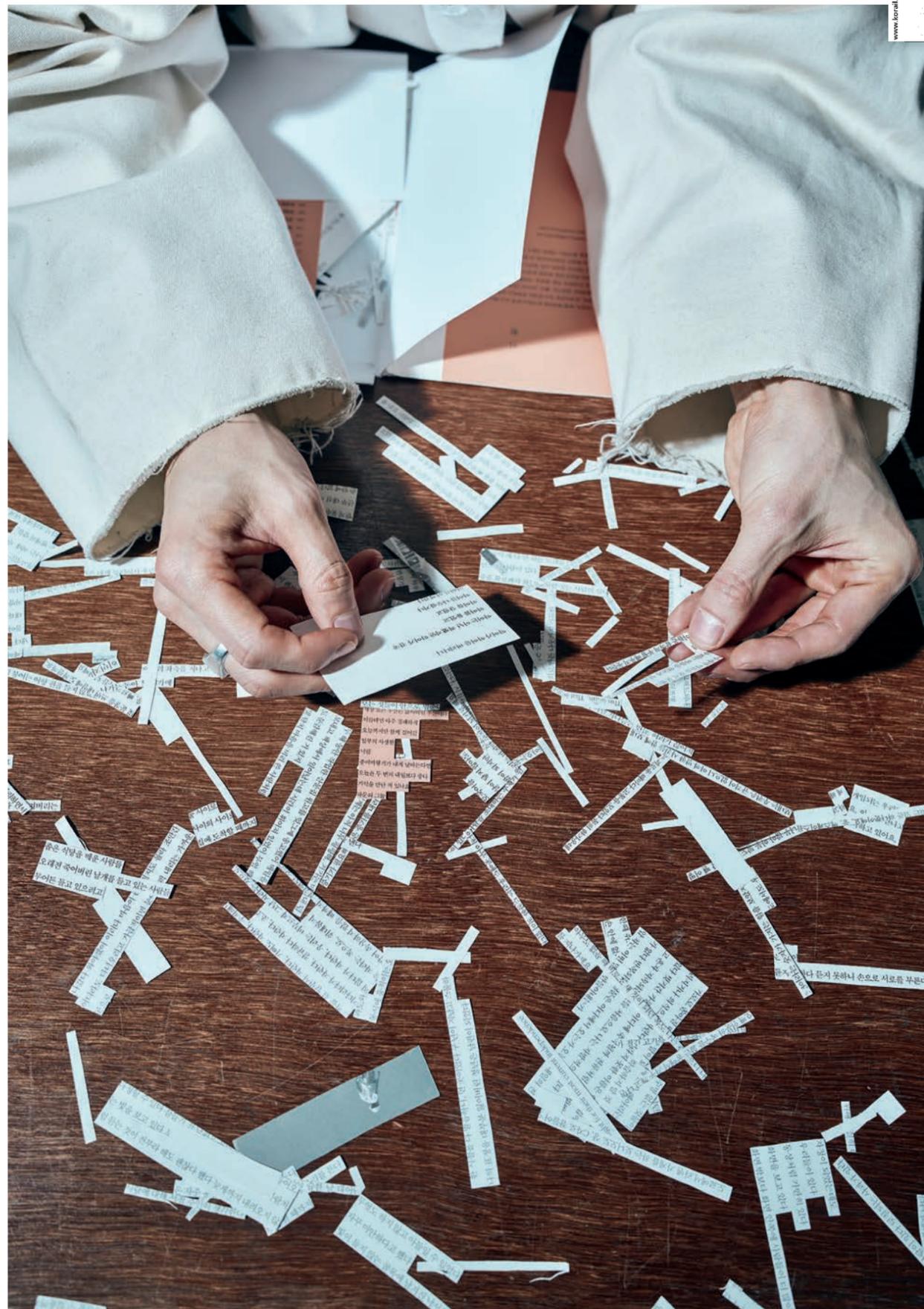
이훤은 2014년 <문학과 의식> 신인문학상 공모전 시 부문에서 수상하며 시인이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얻

는다. 2년 후 시집 <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로 독자와 처음 만나고, <우리 너무 절박해지지 말아요> <양눈잡이>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이슬아 작가의 <끝내주는 인생>, 신형철 평론가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 등에 사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과 시를 엮는 작업 또한 이어간다. 하루에 한 편씩 읽도록 구성한 책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의 4월 16일 파트에는 단원과 학생들을 기리며 시인들이 써 내려간 시 모음집 <엄마, 나야.>에서 발췌한 문장과 이훤 작가가 촬영한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 "작별이 아니어서 인사하고 오지 않았어"라는 문장과 빛 번짐에 의해 사람의 형상이 가려진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니 두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해진다. 글과 이미지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이야기를 부풀리는지 그의 작품을 통해 잠시 체험한다.

세계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물

이훤 작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중국, 캐나다, 스코틀랜드에서 서른 번 넘게 사진전을 열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시를 멈췄다. 기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시 형태로 발표해야 하는 작업물이 생기면 재개하려고 미뤘다가, 얼마 전 좋아하는 기획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5년 만에 전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회화 작가 김보민과 함께 공간을 꾸릴 예정이라고 한다. 타 장르의 예술가와 협업하며 영감을 주고받을 생각에 설렘이 크다.

그는 누구든 사진을 볼 때 해석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단 사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말과 행동이 느린 이방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 외로웠기에 사람들이 서로를 기다리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양한 의견을 반기는 이유도 같다. 하나가 아닌 수많은 정답을 탄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가 천천히 쌓아 올리는 세상을 눈을 감고 그려본다. 긴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이 들었던 문장이 떠오른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의 장면도 허투루 보지 않는 이의 감사 인사다.





1

“우리가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는 건 프레임 단위로 성실하게 폐기되는 시간을
누군가 얇게 잘라 보관했다는 뜻이다.”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중에서



4



2



3

- 1 이원 작가의 안경. 그의 시선이 렌즈를 통과해 곳곳에 가닿는다.
- 2 연극 <엔들링스> 대본에 만년필로 단상을 적고 있다.
- 3 2018년에 출간한 시집 <우리 너무 절박해지지 말아요>. 앞 페이지 사진 속 오린 문장들이 이 책의 구절이다.
- 4 사진가 이원이가 2017년부터 작업 중인 'Tell Them I Said Hello 나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시리즈 중 하나.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담았다.
- 5 신작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6 직접 수집한 다양한 패턴의 컵.



5



6

미국에서 이민자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진이 본인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매체였다고요. 처음에는 카메라로 어떤 대상을 많이 찍었나요?

그때도 비인간을 찍는 걸 선호했어요. 인간의 표정을 직접 포착하는 일도 즐겁지만, 인간이 부재한 곳에서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모으는 걸 좋아했나 봐요. 흔적을 찾는다고 할까요. 대상을 한번 경유 해서 볼 때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사진 작업 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이거예요. 기획해서 찍는 시리즈도 있지만, 어떤 사진은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었음에도 궤를 같이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사진으로 옮겨졌구나, 깨닫죠. 찍은 후에 의미를 발견하는 형태의 작업이에요. 무엇을 받아 적을지 모른 채 탄생한 작품들 사이에서 일관된 화두가 있다는 점은 사진을 찍는 일 자체가 그 사람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행위라는 걸 뜻하죠.

원래 사진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보다, 낯설게 느꼈던 사람들이 작업물에 관심을 가졌을 때 더 반갑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좋아하는데, 전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다 보니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본인의 방식으로 읽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 한 장에도 풍성한 내용이 담기지만,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연이어서 보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텍스트나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사진들로 꿰어서 만든 하나의 세계를 온전히 체험해 보는 거예요. 독자들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연결점이 다 달라요. 참 신기해요. 본인 모습을 투영해서 읽기도 하고, 사진 속 인물의 입장을 상상해 보기도 하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 대신 능동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많아지면 삶이 윤택해져요. 영혼을 건드리거든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랑 마음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사진이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강하죠.

이전에 출간한 시집 <양눈잡이>의 제목이 '나라 또는 직업이 한 가지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각각의 눈에 어떤 사람과 장면을 담고 싶었나요?

당시에는 제가 각각의 눈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주시하고, 사진 또는 시를 보니까 비슷한 사람을 조명하자는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이주하지 않고, 직업을 여러 개 가지지 않은 사람도 두 눈으로 다른 대상을 관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골몰하는 주제가 다르니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겠죠. 요즘은 한쪽 눈으로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잘하는 창작자를 주목하고, 나머지 눈으로는 다른 장르에서 빛나는 동료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동료란 같이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이겠죠? 연극 <엔들링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웠어요. 참여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요.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다닐 때 연극 수업을 들었어요. 무대에 관심이

있어서요. 다만 배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두 달 전쯤 이래은 연출가가 캐스팅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 혹여 누가 될까 봐 망설였는데 본인도 배우가 아니지만 무대에 섰고, 장면을 같이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분명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는 확신에 찬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계속 새로워지고 싶었어요. 북 콘서트에서 독자를 만날 때 마다 다른 발화자가 되고, 섬세하게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기존 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작품을 만든다는 점에서요.

보통 글을 쓸 때는 혼자잖아요. 연극은 여러 명이 논의하며 만드니까 엄청 풍요로우워요. 모두가 다른 속도로 말하고,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다른 표정을 지으니깐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던 방식도 시도해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고요. 활자 속 인물을 자신의 톤으로 흡수해서 표현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글쓰기도 제 안에서 변화하는 중이죠. 오랫동안 여러 화자가 되어 본 동료들이 각각의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나누는 시간이 소중한데요.

낭독회를 통해 독자와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듯해요. 때론 노래도 부르죠. 활자 안에 있던 시인이 독자 앞에서 소리 내어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독자들이 시간 내어 방문한 이 공간이 무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가와 특별한 시간을 공유했다는 인상을 남길 방안을 고민해요. 혼자 책을 읽을 때와는 차별화된 지점을 만들려고요. 작가들도 본인이 쓴 글이지만 여러 사람 앞에 꺼내 놓을 때 낯설게 느껴져요. 특히 처음으로 소리 내어 읽는 순간, 그제야 진짜로 마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눈물이 나나 봐요. 시를 읽고 이야기하는 동안 독자분들 표정을 한 번씩 봐요. 내 언어가 어떻게 도착하는지 궁금해서요.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 기쁘고, 결코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본이 시간인데, 그걸 내주셨으니 저도 최대한 많은 걸 드리고 싶죠. 음악가가 아니라서 노래 실력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작 제목을 언급하고 싶어요.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한 청년을 스쳐 지나간 많은 존재가 결국 청년이 시를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청년이 시에 관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요?

시를 읽는 사람이 더 먼 곳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어요. 훨씬 많은 사람을 궁금해하고, 세계를 깊이 파악하고자 노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를 해석하는 독자는 비밀을 공유해요. 시인이 작품에 녹여 낸, 그만 아는 관계성이 있잖아요. 여러 권의 시집을 펼치고 덮는 동안 나와 타인이, 혹은 나와 세계가 관계를 맺고 쌓아가는 방식을 폭넓게 이해하죠. 그게 우리를 더 넓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엄청나게 크거나 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인형들의 집. 국립현대미술관과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아시아 최초로 론 뮤익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 고요한 테마파크에선 누구도 말이 없다.



6미터가 넘는 크기의 조각 작품 '침대에서'(2005).



관객이 잠든 이 얼굴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다. '마스크 II'(2002).



10대 연인의 수줍은 뒷모습 뒤에 반전이 숨어 있다. '젊은 연인'(2013).

마치 모든 게 멈춘 듯하다. 침대에 누워 어딘가를 응시하는 여자, 데이트 중인 젊은 커플, 갓난아이를 외투로 감싼 채 식료품 봉투를 들고 가는 엄마, 식탁 위의 흰 닭과 이를 노려보는 팬티 차림의 노인... 머리카락 한 올, 피부의 주름과 미세한 혈관까지 생생한 이 조각들은 누군가 세상을 향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생의 한순간에 멈춰 있다. 이 리모컨의 주인은 론 뮤익이다. 호주 태생의 극사실주의 작가인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토로 생명체의 뼈대를 빚고 실리콘이나 유리섬유, 레진 등으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 왔다. 작가의 손끝에서 정교하게 재현된 조각은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실제 모습과의 차이라면 크기가 훨씬 크거나 작다는 것.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7월 13일까지 론 뮤익 개인전이 열린다. 아시아 전시로는 최대 규모로, 조각 작품과 함께 작가의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연작, 다큐멘터리 필름 등 30여 점을 전시한다. 뮤익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반드시 실제로 봐야 한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저 '놀랍다' '잘 만들었다'라는 감탄만으로는 부족하다.

걸리버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려 보라. 외과 의사이자 모험심 많은 선장 걸리버는 항해 중에 거인국과 소인국을 지나며 기묘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은 걸리버보다 키가 12배 크거나 12분의 1만큼 작다. 천공에 떠 움직이는 섬 라퓨타의 주민들은 또 어떤가? 선장의 여행 일지에 따르면 라퓨타인은 늘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 말하고 듣는 기관

(입과 귀)에 외부적 접촉을 가해 깨어나게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뮤익의 작업은 그 자체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전시장을 찾은 관객은 먼 옛날 걸리버가 그랬듯이 낯설고도 익숙한 세계를 관찰하면서 강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작은 솜털 하나까지 완벽히 모사했지만 비현실적인 그의 작업이 지닌 양면성은 두에인 헨슨이나 존드 안드레아 같은 다른 극사실주의 조각가들과 그를 구분 짓게 한다. 뮤익은 단순히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외피를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 사실적인 조각안에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예를 들어 '치킨/맨'(2019)을 보자. 노인인 닭의 한 판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을 현실감 있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디테일이다. 의자에 앉은 노인의 엉거주춤한 자세와 볼품없는 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살



'어머니와 아이'라는 미술사의 오랜 주제를 다르게 풀어낸 '소핑하는 여인'(2013).



실체사실보다 작게 제작한 '치킨/맨'(2019).



'마스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기면 숨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치킨/맨'은 노인의 발뒤꿈치까지 잘 봐야 한다.

은 너무 커서, 또 어떤 작품은 너무 작아서 자꾸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점이다.

100개의 해골과 실존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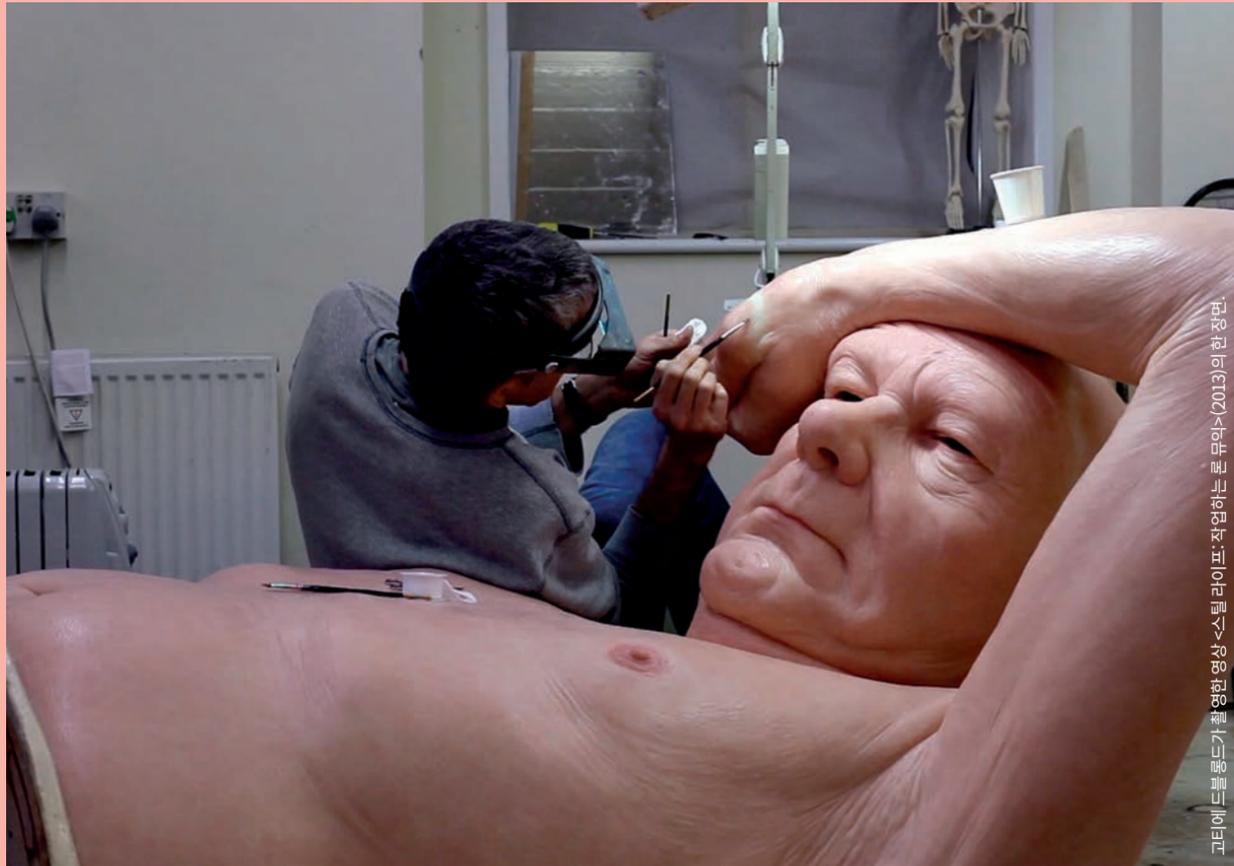
“저는 실물 크기의 모형은 만들지 않습니다. 전혀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2003년 1월 영국의 예술 잡지 <조각(Sculpture)>에 실린 한 인터뷰에서 뮤익은 이렇게 말했다. 참고로 그는 공개적인 장소는 물론 자신의 작품 기자 간담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대신 그에게는 20년 이상 호흡을 맞춰 온 조력자들이 있다. 이들은 작가의 대변인이자 눈과 손이 되어 전시 현장에서 작품 설치와 세부 계획을 관리한다. 하지만 작품 자체는 어디까지나 절대적 창조자 뮤익에게서 비롯된다.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놀랍게도 그는 혼자 일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출품작의 작업 과정과 작가의 수행자적 면모를 보여주는 영상,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을 공개한다. 이 기록물은 작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프랑스 사진가 고티에 드블롱드가 25년간 촬영한 것이다.

몇 해 전 뮤익은 영국 남쪽 해협 화이트섬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벤트너로 스튜디오를 옮겼다. 스튜디오의 살림살이는 단출하고, 그의 일과는 늘 변함없이 느리게 흘러간다. 거대한 두개골이 놓인 스튜디오 안에서 까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고집스러운 정도로 묵묵히 일만 한다. 온종일 조각을 주무르고 매만지다가 만히 바라보고, 다시 이를 반복한다. 실제 모델이 존재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책 속

작 뒤틀린 눈썹과 입술, 발끝의 불편한 긴장감, 뒤통지의 열린 굳은살 같은 것이 포착된다. 이런 사소한 요소는 인물의 신체적 상태는 물론 불같은 성미와 평소 버릇까지 짐작케 한다. 또 '젊은 연인'(2013)을 보면, 몸을 밀착한 남녀의 등 뒤에서 힘이 들어간 소년의 팔과 소녀의 손동작을 통해 곧 일어날 비밀스럽고 위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관찰 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옷차림과 매무새, 청결 상태 또한 시선을 끈다. 작가는 일상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장면이나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 하찮아서 놓치기 쉬운 삶의 작은 흔적을 놀랄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했다. 흥미로운 건 어떤 작품



두개골 100개로 방 안을 가득 채운 '100개의 해골'(2016-2017).



고티에 드블롱드가 촬영한 영상 <스틸 라이프>: 작업하는 론 뮤익(2013)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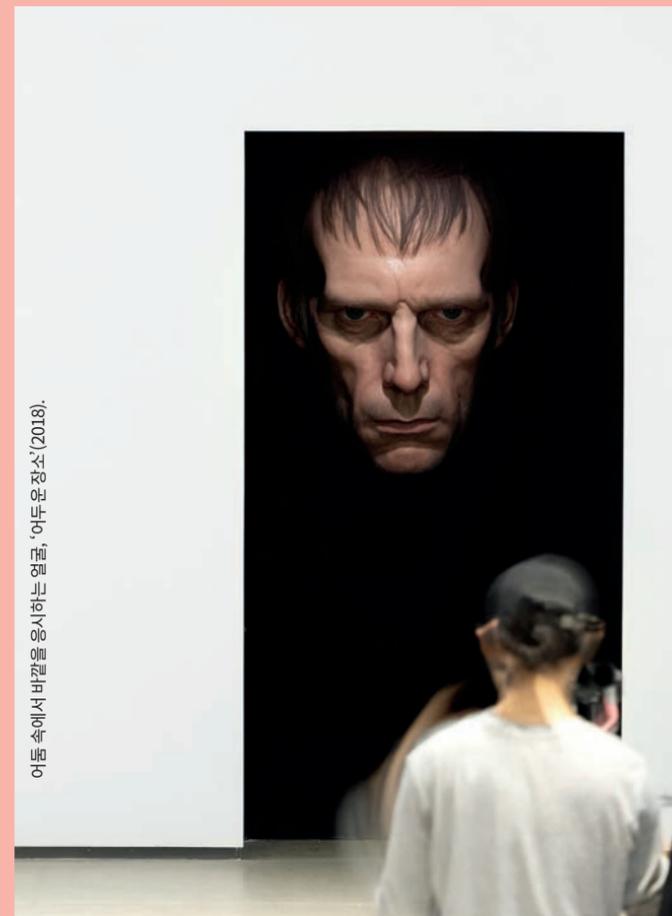
전시실 한쪽에서는 그가 작업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상영된다.

사진이나 이미지, 자신의 모습을 참고해 밑그림을 만든다. 그리고 해가 지면 해변을 따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장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하는 수공예품이 그렇듯 그가 1년 동안 만드는 작품은 고작해야 한두 점. 작가의 국제적 명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다. 영상 속에서 스튜디오 안뜰에 있던 두개골은 이번 <론뮤익>전의 하이라이트다. 사람 키만 한 크기의 하얀 두개골 원본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렸고, 남은 99개를 만드는 데 다시 또 1년이 걸렸다고 한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2017년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의 의뢰로 제작한 '매스'는 전시 장소에 따라 설치 방식이 달라진다. 중세 시대 흑사병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둔 파리의 지하 무덤 카타콤브에서 무수한 해골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작가는 서울 전시에서 작은 창이 난 14미터 높이의 전시실에 100개의 해골을 쌓았다. 국군기 무사령부 옛터이자 조선 왕조 종친부의 경근당과 옥

첩당이 자리한 미술관에서 관람객은 초현실적인 바니타스(vanitas)를 경험한다. 해골, 시계, 꽃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구성된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가 생명의 유한함과 세속적 가치의 덧없음을 상기시킨다면, 이 현대적 바니타스는 산 자의 형상(조각)과 죽은 자의 형체(두개골),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관람객)과 만나 무엇보다 강렬한 생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뮤익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실감 나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조건,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가 만든 조각 공원은 테마파크처럼 환상적이지만 인간과 똑같은 형상에 잠재된 진실성은 관객에게 실존적 질문을 던지며 기시감과 함께 묘한 거리감을 자아낸다.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잠시 멈춰 있던 세상은 전시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다시 움직인다. 시간은 바빠 흐르고 주변은 시끄럽다. 사람들은 오늘도 분주하다. 어쨌거나 삶은 계속된다. 수천 년 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비록 공명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잔상은 꽤 오래 남는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던 반짝이는 울림. 어쩌면 그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바깥을 응시하는 얼굴, '아두운 장소'(2018).

론 뮤익 Ron Mu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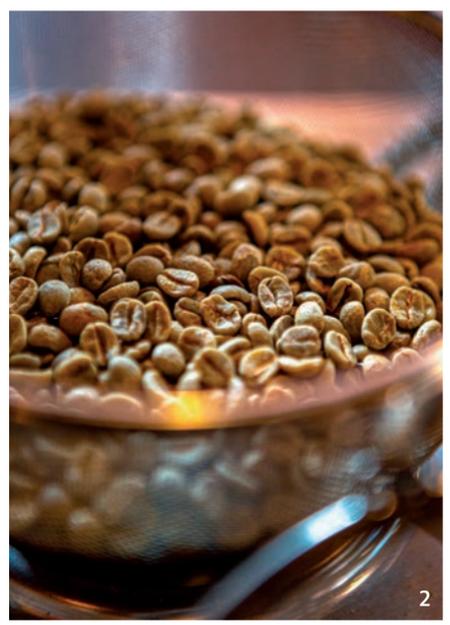
장난감 제작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론 뮤익은 영화·TV용 마네킹을 제작하며 상업 미술 세계에서 활동해 왔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그가 예술 활동을 시작한 건 1996년 영국화가 파올라 레고의 전시를 위한 피노키오를 제작하면서부터다. 유명 컬렉터 찰스 사치가 이 조각품을 보고 그의 예술적 재능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영국 런던 왕립 미술원에서 열린 전시 <센세이션: 사치 컬렉션에서 온 젊은 영국 작가들>에서 눈감은 아버지의 모습을 3분의 2 크기로 재현한 작품 <죽은 아버지>(1996~1997)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2001년에는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년'(1999)을 출품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미국의 휴스턴 미술관, 영국 테이트 모던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머물며 즐기는 커피 여행 제1회 세계커피축제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강릉 옥계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회 세계커피축제가 열린다. 커피 향 그윽한 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커피 만들기 체험을 하며,
옥계오일장에서 지역 특산물도 살 수 있는 기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된
황금연휴를 가장 알차고 낭만적으로 보낼 방법이 강원도 강릉에 있다.



1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든 안목해변. 2 맛있는 커피의 첫 번째 조건은 질 좋은 생두. 3 카페 커피커피 안목점에서 바라본 안목해변. 4 강릉커피박물관의 커피 유물, 프라이팬 로스터. 5 옥계해수욕장 앞에 자리한 한국여성수련원. 6 강릉커피박물관에선 로스팅 체험이 가능하다.



강릉은 어떻게 커피의 도시가 됐을까

커피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강릉이 커피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리기 시작한 건 불과 20여 년 전. 2000년대 초 커피 자판기 몇 대가 놓여 있던 안목항에 커피 전문점이 하나둘 들어서고,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명장들이 강릉에 터를 잡으면서 '진짜배기 커피는 강릉에 있다'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 이후 안목해변에 커피 거리가 형성되고 커피박물관에 더해 상업용 커피 공장까지 들어서면서 강릉은 커피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2009년 안목해변과 사천해변, 경포 시내 전역에서 제1회 강릉커피축제가 열렸다. 그 세월이 벌써 17년. 해를 거듭하며 강릉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에는 방문자수 40만 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1년에 단 며칠, 가을에만 열리는 축제는 커피 문화를 제대로 만끽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봄에도 커피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5월에 열리는 제1회 세계커피축제는 동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를 만끽하며 강릉의 커피 문화를 느긋하게 즐길 절호의 기회다.

해수욕장과 특별한 축제 공간

제1회 세계커피축제는 개최 장소부터 특별하다. 여행자로 북적이는 초당이나 안목항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의 옥계해수욕장이 주무대. 커피 체험 시음 부스와 세계 유명 커피를 알리는 부스, 강릉 공예가들이 꾸민 부스 30~40개 동을 설치한다. 옥계해수욕장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라 봄바다의 낭만을 만끽하며 커피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고운 모래에 폭 100미터가 넘는 백사장 앞,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한국여성수련원에는 50여 동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된다. 스치듯 들러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가는 축제가 아닌, 하룻밤 묵으며 강릉의 커피 문화를 천천히 즐길 수 있다. 세계커피축제 공식 여행사 '따라와 트래블'에서 확보한 솔라뷰호텔과 한국여성수련원 숙박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 여행 상품권을 구매



1

2



3

1 커피커피박물관 3층 전시실.
고종 황제와 커피를 주제로 공간을 꾸몄다.
2 카페 커피커피의 시그너처, 오스만 커피.
3 씬옥호텔에서 운영하는 씬옥 베이커리 카페.
4 500년 전통의 오스만 커피.
카페 커피커피에서 맛볼 수 있다.

하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기간에 숙박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수련원의 대형 식당에선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옥계해수욕장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는 씬옥호텔도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5월 2일 개막식과 함께 축하 공연, 퍼포먼스가 이곳에서 열린다. 20여 개국 주한 대사와 대사 부인들이 궁중 한복 패션쇼를 하고, 세계 각국 대사들이 직접 커피를 추출해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이자 목조각가인 김종홍 명인이 장승을 타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씬옥호텔에서 운영하는 씬옥 베이커리 카페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이니 꼭 들러 볼 것.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울창한 소나무 숲과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이 광천수로 만든 소금빵은 꼭 먹어 봐야 할 이곳의 시그너처다.

5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 한마당

축제는 상시 프로그램과 날차별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커피커피박물관과 강릉커피박물관

관에선 세계 커피 유물을 상시 전시하고 커피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한국여성수련원 솔밭에는 무료 텐트촌과 함께 커피를 생산하는 각 나라의 대사관 빌리지도 설치하고, 바이크 쉽터도 마련한다. 금진해수욕장에서는 유료로 서핑 체험도 가능하다. 5월 4일에는 옥계오일장이 서고 투호놀이 경연대회가 열린다.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기념식에 더해 긴꼬리연날리기, 시민노래자랑 등이 열기를 더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커피나무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커피커피박물관은 세계적 규모의 커피유물 전시관이자 체험관. 이곳의 최금정 관장은 강릉의 커피 문화를 이끈 인물로 이번 축제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아라비카 커피나무를 들여와 강릉에 커피 농장을 설립한 그는 국내 최초로 상업용 커피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2001년 횡집만 준비하던 안목해변에 처음으로 카페를 연 최금정 관장은 강릉커피축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릉커피박물관, 커피커피박물관과 함께 강릉에 두 곳의 커피커피 카페를 운영한다.



제1회 세계커피축제
기간 5월 2일~6일
장소 강원도 강릉 옥계해수욕장 일원
문의 033-652-5599
홈페이지 ddalawa.com

INTERVIEW

“강릉을 세계적인 커피 도시로” 제1회 세계커피축제 최금정 공동 집행위원장



제1회 세계커피축제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릉의 커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국여성수련원과 씬옥호텔, 복지TV, 등명락가사 등에서 봉사와 기부 형태로 뜻을 모아 주었습니다.

축제 장소를 옥계해수욕장 일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옥계해수욕장은 초당이나 안목과 달리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 정동진부터 심곡, 금문, 옥계로 이어지는 해안로가 무척 아름다운데, 여행객 대부분이 옥계까지는 오지 않아요. 이번 세계커피축제를 통해 옥계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옥계면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축제에 주민도 참여하나요? 옥계면영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5월은 해수욕 시즌도 아닌데 축제를 위해 화장실과 소방 시설, 주차 공간 등을 손보고 소나무 군락지도 정비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 옥계부녀회는 푸드 마켓을 열어 강릉의 먹거리를 선보이고, 옥계오일장에서 주민들이 강릉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분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세계커피축제에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브라질·베트남·라오스 등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과 커피 소비 대국인 미국·중국 등 20여 개국 주한 대사, 그리고 전 세계 커피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이름에 걸맞은 그야말로 글로벌 커피 축제가 될 겁니다. 5월 2일 개막식 날 오전에는 해외 내빈들이 먼저 커피커피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커피커피박물관이 소장한 수만 점의 커피 유물과 자료를 보면 강릉이 얼마나 커피에 진심인 도시인지, 왜 강릉에서 세계커피축제를 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제1회 세계커피축제의 영어 표기가 ‘World Coffee Festival in Gangneung’입니다. 강릉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세계커피축제를 열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축제에 오신 주한 대사들이 그들 나라에서 커피 축제를 열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세계적인 커피 도시인 시애틀이나 케냐, 멜버른 등에서도 커피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커피축제 도메인도 이미 구매해 두었습니다.

제2회 세계커피축제 계획도 있나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회 세계커피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에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계커피축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5·6월 강릉아트센터의 야심작 〈강릉, 사계〉 〈단오, 봄의 제전〉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주 공연장으로 개관한 강릉아트센터는
국내외 수많은 예술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공연 예술 공간이다.
온 세상이 연둣빛으로 물드는 계절,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황홀한 두 무대를 마련한다.



강릉아트센터
심규만 관장

강원도 강릉시는 2020년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6년에 걸쳐 진행 중이다. 경포 환상의 호수, 오죽헌 전통 뱃놀이, 폐철길과 페터널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구도심 중심의 축제 사업 등 강릉의 문화 특성에 맞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강릉아트센터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강릉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을 제작하는가 하면, 미디어를 활용한 국공립 및 지역 예술 단체와의 협업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왔다. 강릉아트센터 심규만 관장은 “2024년 11월부터 총 3개의 공연과 1개의 미디어 전시 작품을 선보였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미디어퍼포먼스’ 시리즈도 전개했다”라며 “오는 5월과 6월, 지난 1년여에 걸쳐 진행한 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2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라고 밝혔다. 〈강릉, 사계〉와 〈단오, 봄의 제전〉이 그것이다. 먼저 관객을 맞을 작품은 〈강릉, 사계〉로, 5월 10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황홀한 무대를 선보인다. 강릉의 사계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배경으로 동서양의 아름다운 선율로 공간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강릉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들려주는 비발디의 〈사계〉와 함께 해금 연주자 강은일을 필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이 〈강릉, 사계〉의 국악 버전을 선보인다. 이어서 6월 7일과 8일에는 〈단오, 봄의 제전〉이 강릉의 초여름을 화사하게 물들인다. 강릉의 대표 축제 ‘강릉단오제’를 소재로 강릉시립교향악단과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호흡을 맞춘 총체극이 무대에 오른다.

© KIM YOUNG IL



동서양의 음악으로 만나는
사계의 아름다움
<강릉, 사계>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

김창환

일시 5월 10일 오후 5시
장소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문의 033-660-6800,
www.gn.go.kr/artscenter/

<강릉, 사계>는 어떤 공연인가요? 강릉아트센터의 기획 공연으로 마련한 <강릉, 사계>는 강릉시립교향악단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만드는 무대입니다. 계절의 흐름을 주제로 동서양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특별합니다.

<강릉, 사계>를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은 동서양의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강릉에서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관객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비발디의 <사계>와 <강릉, 사계>를 동서양의 음악으로 만나는 무대가 흥미롭습니다. 공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강릉시립교향악단은 비발디의 <사계> 전곡을 통해 서양 고전음악의 섬세하고 정교한 계절 묘사를 들려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만끽할 수 있죠.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판소리 단가 '사철가'를 서곡 삼아 계절의 정취를 표현합니다. '춘무(春舞)로 봄의 생명력을, '벌어 아리다'로 여름의 기원을, 해금 협주곡 '추상(秋想)으로 가을의 사색을, 그리고 비발디 <사계>의 '겨울'을 국악 편성으로 재해석해 계절의 깊이를 국악적 감성으로 그려 냅니다. 특히 '겨울'은 이전에 시도했던 단순한 트랜스크립션이 아닌, 국악 고유의 장단과 선율 어법,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편곡 방식으로 구성해 우리 소리만의 정체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도 이번 무대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강원도 유일의 국악 관현악단입니다. 이번 무대는 단지 하나의 공연을 넘어 지역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강원도의 문화 예술 지평을 넓히는 데 중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단오제의 자연성과 에너지를 담은 **<단오, 봄의 제전>**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가

김진미

<단오, 봄의 제전>은 어떤 작품인가요?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모티브로 한 무용극입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봄의 도래와 함께 펼쳐지는 생명의 폭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희생 의식을 다뤘죠. 이번 공연은 <봄의 제전>의 강렬한 음악에 한국무용의 제의적 형식을 더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공연 주제를 '단오'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릉단오제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비롯된 전통 예술이지만 인류학적·예술적 측면에서 공통된 연결점이 있습니다. <봄의 제전>은 러시아의 고대 제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인간이 자연에 느끼는 경외, 그리고 생명을 위한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 역시 농경 사회의 풍요를 기원하며 신과 인간이 만나 제사를 올리고 굿을 벌이는 전통이죠. 두 작품 모두 '의례'를 중심으로 음악과 무용,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단오제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공통점이 흥미롭습니다. 두 문화의 예술 형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강릉단오제는 제사와 굿, 가면극과 영신행차 같은 공연 예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의례이자 축제입니다. 반면 <봄의 제전>은 대지의 부활과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레 음악입니다. 두 문화 모두 전통 의례가 단순한 제의적 행위를 넘어 예술적 형식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무에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요. 살풀이, 진혼굿 등 우리 춤에 담긴 제의의 몸짓은 단순한 움직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힘을 지닙니다. 음악의 긴장과 폭발 속에서 무용수들은 이 땅의 정서와 호흡을 담아내며, 관객에게 마치 굿판 한가운데 선 듯한 몰입감을 전달합니다.

<단오, 봄의 제전>은 관객에게 어떤 무대로 다가갈까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예술을 통한 감정의 집단적 표출을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동서양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용 작품이 큰 울림으로 다가갈 바입니다.



일시 6월 7일 오후 5시, 6월 8일 오후 3시
장소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문의 033-660-6800,
www.gn.go.kr/artscenter/



스무 살 맞은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되었다. 올해는 '스무 살 단오'를 주제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한국의 4대 명절인 단오.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리는 2025 강릉 단오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다. 2005년 11월 25일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축제 기간 중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CCN)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회 참석 국가들의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서막은 5월 2일에 열리는 신주 빚기. 강릉 시민이 모은 쌀로 만든 술을 신에게 바칠 준비가 되면 5월 12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 5월 29일 영신제와 영신 행차, 6월 3일 송신제 등이 차례로 열린다. 강릉단오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충북 영동 지역의 안녕과 생업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여러 신을 차례로 모시는 단오굿이다. 올해는 단오제단에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 동안 열린다. 굿당에 모인 사람들을 깨끗이 정화하는 부정굿, 강릉 지역 수호신을 모시는 대관령 국사성황굿, 여러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굿, 천왕에게 인간의 복을 비는 천왕굿, 신에게 바친 모든 것을 태워 신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소제 등 20가리 내외의 굿이 펼쳐진다.

관노가면극도 놓치지 말자. 조선 시대 관청 노비들의 놀이였던 관노가면극은 국내 유일의 무언가면극이다.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등이 등장해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연희를 보여 주며 권선징악의 의미를 전하고 풍요를 기원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강릉 시민이 정성껏 모은 쌀로 만든 신주와 수리취떡 맛보기, 액운을 막아 주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관노가면극 캐릭터로 나만의 자개 키링 만들기, 한여름 더위를 막아 줄 부채 그리기 등이 행사 기간 내내 펼쳐진다.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전국 남녀 시조 경창 대회도 흥미롭다. 2025년 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축제, 강릉단오제로 달려가자.

2025 강릉단오제
기간 5월 27일 ~ 6월 3일
장소 강원도 강릉 남대천 일원
문의 danojefestival.or.kr





오늘의 예술, 쿤스트호이테

어느 것 하나 똑같지 않은 색과 무늬, 자연 염색과 섬유공예를 기반으로 한 쿤스트호이테의 작업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의 협업이다.

인천 서구는 과거 제조 산업의 중심지였다. 1965년 국가에서 가좌동을 공업 단지로 지정하고,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하자 1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거대한 산업 단지를 이뤘다. 환경문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개발 등이 맞물리며 공단은 점차 쇠퇴했고, 당시 가좌동의 산업을 이끌었던 코스모화학 단지마저 2016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쓸모를 잃은 건물과 텅 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역의 큰 고민이 되었고, 뜻을 함께하는 몇몇 사람이 폐공장 한동을 사들여 복합문화공간 '코스모40'을 만들었다. 이후 인천의 젊은 창작자들이 하나둘 가좌동으로 모여들었다. 자연 염색 기법을 바탕으로 개성 있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쿤스트호이테의 스튜디오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일상에서 발견한 영감

독일어로 '쿤스트(Kunst)'는 예술, '호이테(heute)'는 오늘을 의미한다. 이 둘을 합친 쿤스트호이테는 '오늘의 예술'을 뜻한다. 코스모40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한 쿤스트호이테 스튜디오는 1970년대에 열처리 공장과 금속 공장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공간이다. 붉은 벽돌과 직사각형의 징크 패널로 완성한 외관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쿤스트호이테를 이끄는 공동대표이자 연인인 오재엽, 윤서현 씨는 이곳에서 식물염료를 이용한 패브릭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과 제작도 한다. 스플릿 플로어 구조로 설계된 네 층의 스튜디오는 높은 층고 덕분에 크고 긴 패브릭 작품을 전시하거나 작업하기에 적합하다. 3층 일부 공간에 쇼룸도 갖춰 놓았다.

2014년부터 생산한 쿤스트호이테 작업은 카페, 레스토랑, 호텔, 플래그십 스토어, 전시회장 등 다양한 상업 공간에서 쓰이고 있다. 최근 이들이 작업한 곳은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 서울' 다이닝 룸으로 향하는 중문과 코트룸의 옷장 문을 장식한 짙은 쪽빛 패브릭을 쿤스트호이테가 만들었다.

쿤스트호이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저희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어요.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를 오가며 연출과 미술 작업을 했죠.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은 고민이 많은 때였어요. 창작에 대한 갈증은 컸지만, 동시



버려진 이케아 소파를 염색했다. 쿤스트호이테의 첫 작품.



염색은 인내를 요구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어느 과정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추출 온도와 시간의 차이는
빛깔의 농담을 결정짓는다.

에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생각
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실용적인 형태로 구
현하는 염색 공예의 자유로움에 매료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오재엽 작가의 어머니가 패
션 디자이너셨거든요. 덕분에 식물염료를 구하고 작
업의 기초를 닦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함께 염색 공예를 해보자 의기투합한 둘의 눈에 들어
온 건 버려진 소파. 쿤스트호이테의 시작을 알리는 강
렬한 계시와도 같았다. “소파를 보는 순간 생각이 꼬리
에 꼬리를 물었어요. 왜 버려졌을까, 여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서툴렀지
만 소파에 색을 입혔을 때 물질적인 변화를 넘어서 소
파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섬유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어떻게 만
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
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두 대표의 상상력을 자극했
고, 덕분에 쿤스트호이테의 영역은 점차 확장되기 시
작했다. 전공을 살려 영화 기획과 연출, 편집도 했다.
섬유 염색과 승무를 소재로 만든 아트 필름 <수련,
The Water Lily>에선 그들이 직접 만든 한복과 패브
릭 소품이 등장한다. 가좌동에 위치한 신진말공원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패브릭을 활용한 설치
작품 '산호초의 자리'를 전시하고, 무인양품 코리아와
함께 헌 옷을 석류 껍질로 염색해 재활용하는 '리무지
(ReMUJI)'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자연에서 온 깊고 아름다운 색

오재엽 작가가 섬유 염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
여 주겠다고 작업실로 안내한다. 먼저 천연 재료를 염
료화하는 과정이 첫 번째다. 직접 수확해 말린 금잔화
꽃을 푹 달인 뒤, 체에 걸러 염액을 만든다. 꽃 색만큼
이나 짙은 노란색 염액이 식기 전에 정련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원단을 담근다. 염색은 뜨거운 온도
에서 가장 잘된다. 천이 염료를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손
으로 충분히 주무른 뒤 매염 작업에 들어간다. 매염은
염료가 섬유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다. 원하는 색을 낼 매염제(명반, 철 등)를 푼 물에 천을
담갔다 헹궈 말린다. 원하는 색을 얻기 위해선 수차례
반복해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염색은 인내를 요구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어느 과정

1 말린 금잔화꽃은
노랑과 황록색을
낸다. 회색빛은 석류
껍질에서 얻는다.
2 금잔화꽃으로
만든 염액이
패브릭에 잘
스며들도록 손으로
주무른다. 접은
천은 껌쇠를 사용해
특정 부분에 염료가
배어지지 않는다.
3 <빛과 그림자로
본 만화>전에서
우리나비와
협업한 패브릭
설치 작업 '황금동
사람들'(2024).
4 쪽으로 염색한
패브릭을 원하는
크기로 재단한다.





1

섬유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쿤스트호이테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4



2



3

1 섬유 염색과 승무를 소재로 만든 아트 필름 <수련, The Water Lily> (2017).
2 나무 손잡이에 쪽으로 염색한 보자기를 묶어 만든 가방.
3 빈브라더스가 운영하는 카페 '결'에 설치된 패브릭 작품 '선셋 글로우(Sunset Glow)' (2019).
4 겨울 솔방울을 패턴화한 캔버스 코스터와 책갈피.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추출 온도와 시간의 차이는 빛깔의 농담을 결정짓는다. 염료에 따라 발현되는 색도 다르다. 푸른빛은 쪽에서, 붉은빛은 쪽두서니, 노랑과 황록 계열은 금잔화, 분홍과 다홍은 홍화에서 나온다. 회색빛은 의외로 석류 껍질에서 얻는다. 같은 염료로 염색하더라도 직물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실크는 부드럽고 은은하게, 소창·무명은 담백하게, 리넨은 투명하게, 삼베는 투박하게 색을 머금는다. 여기에 다양한 기법이 더해진다. 원단의 일부를 묶어 무늬를 만드는 홀치기염색, 천을 접고 꺾쇠(클램프)를 사용해 특정 부분에 염료가 스며들지 않게 하는 클램핑 기법, 풀을 활용해 문양을 내거나 바느질을 해 실로 당겨 방염 효과를 내고 무늬를 만드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이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브릭을 완성한다.

자연 염색 재료에 대한 탐구는 두 사람을 염료 재배로 이끌었다. 재료를 이해하면 더 많은 색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작가 어머니가 일구던 밭을 함께 가꾸며 재료를 수급했어요. 올해부터는 강화도에 약 660제곱미터 규모의 밭을 마련해 금잔화와 쪽, 홍화 등 염료로 쓰일 꽃과 식물을 심었습니다. 여름부

터 수확할 꽃이 어떤 색을 보여줄지 벌써 설레요.” 계절마다, 지역마다 자라나는 식물이 다르니 얻는 색도 달라진다. 오재엽, 윤서현 작가는 지금 살고 있는 인천에선 얻을 수 없는 색을 찾으러 종종 여행을 떠난다. 이를테면 초여름 군산에서 수확한 흰찰쌀보리나 겨울 산자락에 떨어진 솔방울 같은 것. “사계절을 마주하며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풍경과 정취, 그리고 색을 연구합니다. 자연의 색을 패브릭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건 단순히 천을 물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름엔 바다, 겨울엔 꽃감처럼 떠오르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끊임 없이 고민합니다. 새로운 색을 찾는 작업은 저희가 평생 해야 할 숙제 같아요.”

브랜드 팝업 스토어, 협업 프로젝트, 마켓 참가 등 외부 작업으로 분주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텍스타일 상품을 만드는 공예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로서 쿤스트호이테의 정체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쿤스트호이테만의 색을 찾는 여정도 계속된다. 더 깊이, 더 세심하게 실험을 거듭하며 색을 탐구해 나갈 것이다. 자연과의 협업은 늘 예측할 수 없기에, 쿤스트호이테는 유연한 마음으로 색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오늘의 예술이 만들어진다.



| 1 |

산미의 다종다양한 매력

애시드하우스

적당한 산미의 와인과 커피는 입맛을 돋우고 기분을 산뜻하게 만든다. 애시드하우스는 이름부터 산미에 진심인 브런치 가게. 이곳의 모든 메뉴에는 시트러스, 그릭 요거트, 사워도 등 산미를 대표하는 식재료가 들어간다. 애시드하우스의 대표 메뉴는 칠리 에그. 사워도에 곁들여 먹는 요리로,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 위에 부드러운 반숙란과 새콤쌉싸름한 자몽, 향긋한 바질을 올려 낸다. 상큼한 맛에 지배당한 입안을 매콤한 칠리 오일 맛이 훑 치고 들어와 감칠맛을 한껏 끌어올린다. 덴마크인이 즐겨 먹는 브런치를 경험하고 싶다면 데니스 브런치 플레이트를 추천한다. 매장에서 직접 만든 사워도와 라이 브레드를 휘 버터, 콩테 치즈, 퀴스 잼, 반숙란과 함께 한 접시에 담아낸다. 시큼한 빵에 치즈와 퀴스 잼의 양을 조절해 함께 맛보면 산미를 다양한 층위로 즐길 수 있다. 입가심이 필요할 때는 '블로'를 마셔 보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생산하는 노알 코울 스파클링 차로, 시트러스 향을 가미해 애시드하우스의 모든 메뉴와 잘 어울린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18 문의 @acidhouse.seoul



도심 속 브런치 세계 여행

148 서울 신사동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그리스, 덴마크, 프랑스 등 이국적 감성이 느껴지는 강남 브런치 가게를 소개한다.



| 2 |

신선한 재료로 채운 든든한 한 입

날리

건강한 식재료로 속이 편한 브런치를 즐기고 싶다면 날리로 향하자. 이곳의 시그너처는 연어 소바 롤. 모양새는 김밥 같지만 밥 대신 메밀 면으로 속 재료를 담은 것이 독특하다. 신선한 생연어와 폭신한 달걀말이, 고소한 아보카도가 한데 섞여 부들부들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빠삭거리는 새우튀김과 꼬득꼬득한 단무지가 씹는 재미를 더한다.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다면 부라타 투움바 파스타를 주문하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꾸덕한 투움바 파스타와 달리 날리의 부라타 투움바 파스타는 예상을 깨는 신선한 맛을 선사한다. 크림이한 소스 맛보다 매콤하고 새콤한 토마토 맛이 더 진하며, 통째로 올린 부라타 치즈 한 덩이를 함께 섞으면 부드러운 맛이 난다. 식전 빵으로 제공하는 소금빵도 별미이니 놓치지 말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0길 10 문의 02-3444-3227

| 3 |

도심 속 작은 그리스

이야이야애프렌즈

그리스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브런치 카페이자 소름. 이름부터 흥이 나는 이야이야애프렌즈는 그리스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이야이야'와 영어로 친구들을 뜻하는 '프렌즈'를 합친 말로, 할머니와 동물 캐릭터로 만든 귀여운 굿즈가 눈을 사로잡는다. 메뉴도 그리스 가정식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했다. 후무스, 샐러드, 구운 채소, 심지어 라테에도 올리브 오일을 아낌없이 넣는다. 시그너처는 그리스 전통 빵, 피타. 납작한 형태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피타는 그릭 요거트, 오이, 레몬즙, 올리브 오일로 만든 그리스 대표 소스 차지키와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 여기에 그리스식 숯불 닭고기 꼬치와 토마토 절임까지 더하면 그리스 한상 차림 수블라키가 완성된다. 이 외에 당근 라페, 부라타 치즈, 토마토 올리브 등을 더한 피타도 판매한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1길 22 문의 @yiyiaandfriends_cafe



4

메밀전에서 느껴지는 낫선 프렌치 맛 르봉구떼

프랑스 파리 여행에서 갈레트의 매력에 푹 빠진 김상우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해 7월 르봉구떼를 열었다. 갈레트는 메밀가루로 만든 크레페에 다양한 식재료를 얹은 프랑스 요리다. 김 대표는 국산 메밀을 사용해 프랑스 갈레트의 맛과 향, 색을 비슷하게 구현해 냈다. 인기 메뉴는 스모크 살몬 갈레트와 머시룸 소테 갈레트. 원형의 크레페를 세모 형태로 접은 스모크 살몬 갈레트에는 당근 라페, 루콜라, 올리브 등을 듬뿍 올린다. 식용 꽃과 훈제 연어를 꽃처럼 말아 장식한 모양은 실제 꽃밭을 보는 듯하다. 정사각형의 머시룸 소테 갈레트는 가장자리에 버섯과 루콜라를 두른 뒤 가운데를 반숙란으로 메운다. 녹진하게 구운 양파가 달짝지근한 맛을 내고, 발사믹 특유의 신맛은 감칠맛을 끌어올린다. 잠봉 치즈, 새우, 소시지 등을 곁들인 갈레트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즐기면 된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64길 34-2 문의 02-518-7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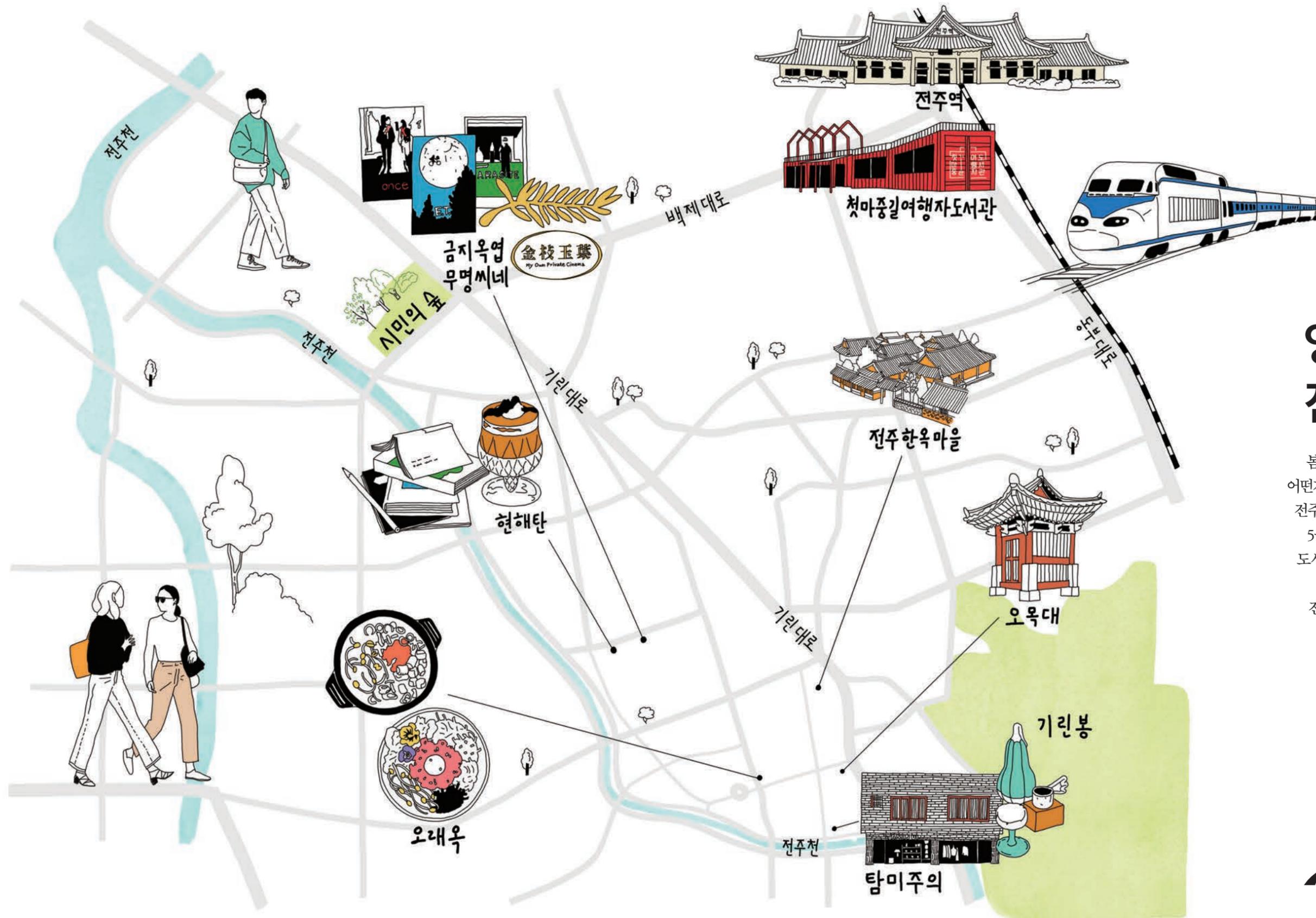


5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비건 요리 핀치브런치바

채소만으로 예술 작품 같은 요리를 내는 비건 브런치 바. 대표 메뉴는 비트 후무스 샐러드다. 비트의 고운 핑크색으로 물들인 후무스를 커다란 접시에 그림을 그리듯 담고, 그 위에 레몬 드레싱한 방울토마토와 완두콩을 푸짐하게 올린다. 마치 후무스라는 정원에 방울토마토라는 꽃이 핀 듯하다. 후무스만의 독특한 향신료 맛이 강렬하게 스치다가 이내 달콤 상큼한 채소가 입안을 산뜻하게 만든다. 샐러드와는 상반된 매력을 지닌 따뜻한 요리, 완두콩 그린 커리도 인기 있다. 알알이 터지는 완두콩의 달콤함과 타이 칠리의 알싸함이 잘 어울리고, 부드러운 수제 소스 속 쫄득한 노키가 씹는 즐거움을 더한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 간 조합을 고민해 지난여름에는 복숭아, 자두 등 과일을 넣은 복숭아 멜로우 커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9 문의 @pinch_brunch_bar



영화 보고 전주 구경

봄이 다가기 전에 영화 여행은 어떤가. 국내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린다. 전주역 앞 도서관부터 영화가 끝나고 들을 소품 숍과 식당, 전망대까지. 전북 전주의 멋과 맛을 즐겨볼 장소를 찾았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전주역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책과 휴식을 함께 즐기다 문화쉼터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7 문의 063-714-3524

전주 여행의 시작과 끝인 첫마중길에 위치한 예술·여행 특화 도서관. 화장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2021년 4월에 도서관으로 변모했다. 공간은 '여행자 라운지'와 '아트북 갤러리'로 나뉜다. 여행자 라운지는 무료 충전과 무료 짐 보관 서비스는 기본이고, 도서관 여행 코스를 안내한다. 전주 관련 여행책을 비롯해 리커버 북과 매거진 등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 비치되어 있고, 컬러링 엽서와 글감 상자는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아트북 갤러리는 예술 분야에 집중한 공간. 루이 비통, 반 고흐, 무민 일러스트 아트북은 물론 마블의 만화 <어벤저스> 최종 모음집, 베르사유궁전 사진집까지 패션, 미술, 영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아트북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영화 포스터, 음반 커버 등 상징적인 그래픽 카드를 전시하는 '한 칸 미술관', 달마다 여행책을 선정해 소개하는 '월간 여행자' 등 자체 큐레이션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무게가 38킬로그램에 달하는 한정판 도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버거 북>을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니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현해탄
이민과 활자 너머 커피에서 얻는 위로



조도가 낮은 공간에 차분히 내려앉은 햇살. LP 음악과 빛바랜 종이책, 그리고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 이 모든 요소가 존재하는 현해탄은 머무르기만 해도 따뜻한 위로를 받는 곳이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일자 형태로 길게 뻗은 테이블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위에 <백범일지>를 비롯한 한자와 옛 한글을 섞어 세로로 쓴 서적들이 꽂혀 있다. 책은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며, 언제나 공간에 대한 감상과 생각 정리를 도울 연필과 방명록도 마련해 두었다. 현해탄의 시그니처는 현해탄 커피. 처음엔 쓴맛이 나다가 우유의 깔끔한 단맛으로 마무리되는 차가운 라테다. 곁들이 메뉴로 수제 피낭시에도 추천한다. 곁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진한 버터의 풍미가 가득해 씹쓸한 커피와 잘 어울린다. 현해탄의 맛과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봄비는 주말보다 평일 방문을 권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타미주의 매력의 소품 숍



전주한옥마을 향교길에 위치한 감각적인 소품 숍. 탐미주의 1호점은 컵·커트러리 등 소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2호점은 가구·조명 등 부피감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운영한다. 이곳의 한아름 대표는 발리, 인도네시아, 타이, 인도 등에서 큐레이팅해 수입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소개한다. 반죽을 주무른 흔적이 남은 숟가락, 울퉁불퉁한 토기, 두 갈래로 나뉜 컵 손잡이 등 탐미주의의 물건은 정형화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자유로운 형상을 띤다. 어글리 컵이 대표적으로,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만져 보면 의외로 반질반질한 질감이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정해진 용도는 없다. 동일한 패턴이나 모양이 없는 이 컵은 인센스 받침대, 주얼리 보관함 또는 술잔이 되기도 한다. 내 공간에 두면 어떻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화 감상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관련 소품을 소장하고 있다. 영화 포스터, OST LP부터 영화 관련 서적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을 갖춘 금지옥업 무명씨네는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다. 무명씨네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곳은 옛날 상가 주택 구조를 그대로 살려 내부에 나선형 계단과 미닫이문이 있고, 방 구조로 이뤄진 점이 독특하다. 고전 영화부터 최근 개봉작까지 아우르는 포스터와 LP는 물론, 원작 소설과 비평서 등 영화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전문 서적까지 갖췄다.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도 판매한다. 자체 제작 굿즈부터 전주국제영화제 굿즈, 지역 청년 디자이너와 협업한 굿즈, 영화 배급사 굿즈까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회와 영화제를 여는 것은 물론, 지역 청년들이 영화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 대여 사업도 한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제 티켓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일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영화계 사랑하기 이네이 케이트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4(전주한옥마을길) 문의 063-252-2118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55 문의 063-281-2114



근사한 한옥에서 콩나물국밥과 육회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맛집. 오래옥의 콩나물국밥은 전주 남문식으로, 수란을 국물에 넣지 않고 토렴해 먹는다. 국물 세 숟가락을 수란 그릇에 넣고 기호에 따라 콩나물과 김 가루를 섞어 먼저 구수한 풍미를 낸다. 그런 다음 국물을 맛보면 콩나물의 시원하고 뜨끈한 기운이 발끝까지 전해진다. 마지막 한술까지 부족함 없도록 콩나물과 밥은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 주문할 때 국밥용 오징어는 꼭 추가할 것.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는 콩나물과 쫄깃한 오징어의 조합이 별미다. 오래옥에선 육회비빔밥도 인기다. 콩나물, 상추, 당근, 애호박, 무채, 김 가루를 푸짐하게 넣고 수제 비빔장과 함께 신선한 한우 육회와 달걀노른자를 올려 낸다.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가 한입 가득 어우러져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운다. 식당을 나서기 전, 전통성당이 한눈에 담기는 창문 앞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어래야

국립국립 박물관의 비빔밥 전시관이 전주 이그드

어목대

전주한옥마을이 한눈에 담긴 전망대



1974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오목대는 전주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작은 언덕이자 정자다.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남산의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 장군이 일가친지를 모아 승전을 자축한 곳이기도 하다. 그가 조선 왕조를 개국한 후 정자를 지었는데, 주변에 오동나무가 많아 정자 이름을 오목대라 지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전주 시민에겐 휴식 공간으로, 여행객에겐 전주한옥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로 사랑받고 있다. 완만한 계단으로 이어진 정상까지는 단 5분 만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있는 널찍한 정자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 잠깐 쉬어 가기 좋다. 오목대 정상은 사방이 나무에 가려져 전주한옥마을이 잘 보이지 않으니, 오목대로 올라가는 길목에 놓인 나무 데크를 추천한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노을이 질 무렵. 웅기종기 어깨를 맞댄 전주한옥마을의 기와가 주황색 노을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과시하라, 책 읽는 나를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책 읽는 나를 과시한다.
텍스트힙이 불러온, 책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의 충전 정도를 가늠한 뒤 거치대에 끼워 넣는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컴퓨터를 놓고 유튜브 화면을 켜다. 책상 위를 굳이 치우지는 않지만, 기왕이면 예쁜 색의 차관과 컵을 올려 둔다.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두르고, 오늘 읽을 책의 표지가 잘 보이는지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으로 다시 점검한다.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 클릭. '박사독독'이라는 이름으로 책 읽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한 지 반년쯤 됐다. 낭독은 인상적인 구절이 있을 때 가끔 하고, 대부분 혼자 눈으로 읽다가 틈틈이 웃고 수다를 떠다. 어쩌다 고양이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실시간 채팅 창이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다. 나는 '과시용 독서'

중이다. 그것을 요즘 유행하는 '텍스트힙'이라는 단어로 슬쩍 가려 본다. 텍스트힙(text hip)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힙(hip)하다(멋있다)'를 합성한 신조어다. 텍스트힙은 이전의 독서와는 사뭇 다르다. 독서는 혼자서 조용히 하는 취미로 여겼지만 텍스트힙은 공유를 기본으로 한다. '책 읽는 멋진 나를 전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 텍스트힙을 '과시용으로 책을 읽는다' 하여 비난할 수는 없다. 비난의 목적으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책 읽는 사람들은 일제히 유쾌한 웃음을 터트렸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X(구 트위터)에서는 출판사 공식 계정을 중심으로 과

시용 독서 유행이 번졌다. 과시용으로 책을 읽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싶은 벽돌 같은 두께의 책들과 표지가 멋진 책들이 타임라인 위로 넘실거렸다. 평소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장에서 과시용 독서를 위한 책들을 꺼내 자랑했다. 이때다 싶게 벌어지는 리트윗 이벤트에 동참해 나도 표지가 멋진 책 한 권을 얻었다. 그렇게 책들이 흘러 다녔다. 뜻하지 않은 책의 흥행에 사람들은 나름의 분석을 내놓는다. 하나는 쇼트폼으로 대표되는, 순간적으로 명멸하는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피로감'이라는 것이다. 좀 더 긴 호흡의 콘텐츠에 대한 갈망이 책으로 향했다는 것. 맞는 말이겠으나 독서의 결과물이 쇼트폼과 SNS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면, 디지털이 싫어서 아날로그를 찾는다기보다는 디지털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책이 재발견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스타그램(#bookstagram)이라는 태그가 사용되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왓즈인마이책장 태그를 누르면 뻑뻑하게 책이 꽂힌 책장 사진이 쏟아진다. #오운완(오늘의 운동 완료의 줄임말)만큼이나 핫한 것이 #오독완이다. '오늘의 독서 완료' 상황을 보고하는 데에도 열심이라는 뜻. 틱톡에서는 1분 내외의 짧은 독서 후기를 올리는 #북톡(#booktok)이 유행이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르기 위해 쇼츠와 릴스, 틱톡을 찾아보는 이도 많아졌다. 유튜브에서는 '사일런트 북 리뷰(silent book review)'라는 독특한 영상이 유행한다. 말없이 극적인 표정과 행동만으로 책의 후기를 보여 준다. 텍스트힙을 추구하는 이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책을 소비한다. 아이돌, 모델 등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불이 붙었다는 분석도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독서 클럽을 운영하는 미국의 모델이자 배우 카이아 거버가 인터뷰에서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Reading is so sexy)"라고 한 말이 텍스트힙의 시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뉴진스 멤버 민지가 '버블검' 뮤직비디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읽는 장면을 보여 준 뒤 책 판매량이 여덟 배로 뛰었다든가, 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여부처의 말>을 권한 뒤 베스트셀러가 되

었다는 이야기가 들었다. BTS 멤버 RM, 아이유 등 연예인이 요즘 무엇을 읽는지에 대한 관심은 책 판매량으로 증명되었다. 파파라치 컷의 단골 배경인 공항 사진에서 사람들은 이제 공항 패션 대신 '공항 책'을 먼저 찾는다. 그러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보다 더 단단하고 힘 있는 것은 독자들이 서로 책을 권하는 문화다. 책 읽는 개인이 큐레이터 역할을 맡아서 누가 읽을 책을 골라 준다. 유명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역주행하는 책에는 수많은 '입'이 있다. 혼자 책장을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닌 과시용 독서의 장점인 셈이다. 책은 새로운 놀이의 중심이 되었다. SNS를 통해 과시하는 것은 책 표지만이 아니다. 도서전, 낭독회, 북 콘서트, 독립 서점, 북 카페, 책 읽는 바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공간과 그곳의 풍경을 SNS에 올린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북 카페는 역사가 유구한 반면, 책을 읽으며 맥주를 마시는 북맥은 비교적 최근의 풍조다. 책을 읽으며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독립 서점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책을 매개로 한 공동체를 만든다. 책을 중심으로 하는 소개팅도 생겼다. 기발하고 예쁜 독서 관련 아이템도 눈에 띈다. 엄지손가락에 끼워 책장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독서 링, 책을 잡아 주는 문진, 북 커버, 북 파우치, 책 표지 장식용 스티커, 책 전용 가방, 책 조명 등 상상력이 넘친다. 인터넷 서점 MD들은 각종 굿즈를 만들며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고, 작은 서점들도 재미있는 아이템을 궁리해 낸다. 한강 작가가 운영했던 '책방 오늘'의 '비밀의 책 꾸러미'나 정현주 작가의 '서점 리스본'에서 판매하는 '생일 책 세트'도 인기다. 고전적인 독서가라면 하지 않을 위험한 선택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젊은 텍스트힙 세대의 특징이다. 책을 읽는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에 더해 텍스트힙 세대는 꼭 말을 해야겠나 보다. '독파민'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을 보면, '독서'와 '도파민'의 합성어인 독파민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갖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다. 그 즐거움을 널리 함께 나누는 이들을 보니, 책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다. 좁은 책장 사이에 앉아 혼자 책을 읽던 시절의 나보다 지금의 텍스트힙 세대가 훨씬 즐거워 보인다.



사실 아역 배우란 말은 다소 모호하다. 아역(兒役)이란 단어는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어린이 역할 또는 그 역을 맡은 배우를 뜻하는데, 요즘은 '주인공 누구누구의 어린이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캐릭터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인공의 어린 시절 역할로 짧게 등장해서 성인 배우 못지않은 열연을 펼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 재미있게도 올해 어린이날 저녁에 방송하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는 2009년생 문우진과 2011년생 김태연이 각각 영화와 방송 부문 신인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성인 배우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연기를 선보였던 소리다.

요즘 제일 잘나가는 얼굴들

최근 남자아역 배우 중 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 김강훈과 문우진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동갑내기, 몇몇 배역을 읊으면 바로 알아챌 만큼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먼저 김강훈.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꺾어안에서 떨어진 어린 유진 초이로 얼굴을 알린 그는 <동백꽃 필 무렵>의 필구 역으로 어머머마한 사랑을 받았다. <마우스>의 어린 사이코패스나 <재벌집 막내아들>의 어린 진도준도 많은 이가 강렬하게 기억하는 얼굴. 최근 개봉한 영화 <승부>에선 어린 이창호로 분해 조훈현 역의 이병헌에게 당돌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초반부 긴장감을 책임졌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강훈이 이병헌의 아역이었던 걸 생각하면 딱 재미난 인연이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서 '연기 천재'로 눈길을 끌었던 문우진의 커리어도 만만치 않다. <무인도의 디바>의 채중협 아역, <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풋풋한 소년 한준우로 얼굴을 알렸는데, 특히 올해 실 틈 없이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영화 <검은 수녀들>에서 악령에 쫓겨난 소녀가 되어 유니아 수녀 역의 송혜교에게 수위 높은 욕설과 침을 내뿔으며 백상예술대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게 시작. 드라마 <트리거>에서 미스터리한 소년으로 소름이 돋게 하더니, <그놈은 흑염룡>에선 '중2병' 그 자체인 어린 반주연이 되어 시청자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5월부터 방영하는 <사계의 봄>에도 주인공 아역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김강훈과 문우진은 이미 <나의 나라>에서 주인공들의 아역으로 합을 맞춘 바 있는데, 화제작 <폭삭 속았수다>에도 문우진이 중학생 양관식으로, 김강훈이 금명의 조카 양제일로 등장하며 지금 제일 잘나가는 아역임을 증명했다.

여자 아역 배우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김태연은 <폭삭 속았수다>의 어린 애순으로 골골찬 연기를 펼쳐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됐다. <파친코>의 어린 선자와 <굿파트너>에서 주인공의 딸 김재희로 열연한 2011년생 유나도 업계와 대중이 주목하는 이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담보>와 드라마 <악귀> <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 전천후로 활동하는 2012년생 박소이도 성인 배우 못지않은 노련한 연기로 사랑받고 있다.



잘 자란다, 될성부른 아역 배우들

지금 가장 빛나는 아역 배우들과 시대를 주름잡은 아역 배우 변천사.

- 1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염혜란과 호흡을 맞춘 김태연.
- 2 영화 <승부>에서 어린 이창호로 분한 김강훈.
- 3 영화 <검은 수녀들>에서 부마자 소년으로 눈길을 끈 문우진.
- 4 1979년 영화 <하늘 나라에서 온 편지>에 출연한 옛된 얼굴의 강수연.
- 5 영화 <마음이...>에 함께 출연한 아역 스타 유승호와 김향기.

귀한 만큼 빛났던 20세기 아역 배우들의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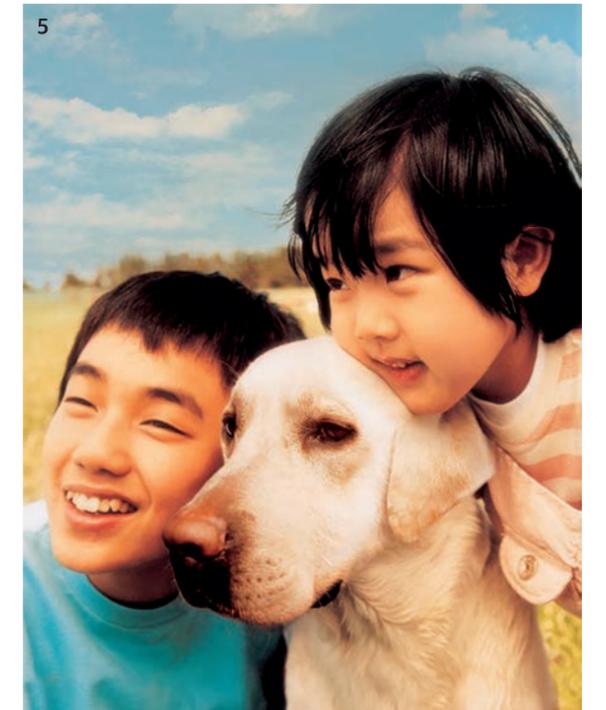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했던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아역 배우는 누군가의 아역이란 한계 때문에 배우 자체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었다. 그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성공한 아역 배우 출신으로 손꼽히는 이름은 안성기와 고(故) 강수연 정도였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민배우'로 불린 안성기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여섯 살이었다.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에서도 까불까불한 어린 소년 안성기를 만날 수 있다. 만 세 살에 영화로 데뷔한 강수연은 아역 배우가 성인 배우로 성공한 첫 케이스다. 안성기는 공백기를 거치며 아역 배우의 잔상이 얼어진 후에 성인 배우로 나섰지만, 강수연은 아역 배우로 인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하이틴 스타로, 다시 월드 스타로 꾸준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1980~1990년대에는 '세자·세손 전문 배우'로 불린 이민우를 필두로 양동근, 김민정, 정태우 등이 뿔뿔뿔망한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양동근은 드라마 <서울뚝배기> <형> 등에서 성인 배우 못지않은 존재감을 발휘했고, 김민정은 1991년에만 무려 20편의 CF를 찍었다. 그러나 이들 외에 성인 배우로 안착한 케이스는 드물었다. 드라마 <달동네>의 '뚝순이'로 전국구 인지도를 쌓은 김민희나 <한지붕 세가족>의 '순돌이'로 큰 사랑을 받은 이견주처럼 시대를 호령한 아역 배우도 있었지만, 아역 배우 시절의 강렬한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했다. 게다가 아역 배우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시기였기에 상처를 입고 사라지거나 일찌감치 얻은 인기와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 연예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아역배우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징크스가 옛말이 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 이야기다.

성공한 아역 배우의 계보를 잇다

2000년대 들어서며 성인 뺨치는 존재감으로 스타급 인기를 구가하는 아역 배우가 많아졌다. '국민 여동생'이라 불린 문근영이 대표적.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송혜교의 아역을 맡으며 눈도장을 찍은 문근영은 영화 <장화, 홍련>을 거쳐 <어린 신부>로 스타덤에 올랐다. 문근영 이후로 '국민' 타이틀은 여러 배우가 경쟁적으로 나눠 가졌다. 남자 배우 계보로는 1993년생 유승호에서 1997년생 여진구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첫 영화 <집으로...>에서 주연을 맡은 유승호는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걸출한 스타 탄생을 예고하더니, '잘 자란' '훈훈한 동생' 포지션으로 인기를 끌었다. 여진구는 그 뒤를 이어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어린 세자로 등장해 '잘생기면 다 오빠' 타이틀을 달았고, 영화 <화아>로 그해 각종 영화제 신인상을 거머쥐며 총무로의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여자 아역 배우들의 활약상은 더욱 화려하다. 드라마 <스토브리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인도의 디바> <하이퍼나이프>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광폭 행보를 보이는 박은빈과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열녀박씨 계약결혼연>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이어 최근 <재혼황후> 캐스팅 소식을 알린 이세영이 아역 배우에서 성인 스타 배우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 케이스다. 1992년생인 이들의 뒤를 잇는 차세대 스타로는 1999년생 동갑내기인 김유정, 김소현이 있다. 이들은 <해를 품은 달>에서 여진구와 함께 초반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는데, 이후로도 라이브 구도를 이루며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영화 <중안>으로 만 19세에 각종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2000년생 김향기, 영화 <곡식>에서 "뿔이 중헌디"란 대사로 화면을 씹어 먹은 2002년생 김환희, <폭삭 속았수다>의 오제니로 시선을 강탈한 2006년생 김수안과 드라마 <지옥>에서 풍부한 감정 연기를 보여 준 2006년생 이레 등이 성공한 아역 배우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HIBITION

<Paradise of Colour: 색채의 낙원>

독특한 기법과 색채로 동물을 조형적으로 담아내는 김우진작가의 조각전. 사육사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신기하게 느꼈던 동물에 대한 감상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유년 시절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 우러러보아야 했던 동물의 인상을 담기 위해 작품 속 동물을 실제보다 크게 제작한 점이 독특하다. 어렸을 때 품었던 순수한 감성과 추억을 되새길 시간이다.

기간 5월 31일까지 문의 041-933-8100(충남 보령 모산조형미술관)

<바람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자연의 움직임은 섬세하게 캔버스에 옮기는 안웅철 작가의 개인전. 이번 전시에서 그가 선택한 대상은 바람. 안웅철 작가는 바람이 불어올 때 바다와 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다가 고요해지고, 흔들리다가 이내 차분해지는 찰나를 포착했다. 바람 따라 거세게 맞부딪치는 파도,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 살랑거리는 핑크빛 꽃발. 그의 작품 속 시간은 멈췄지만 바람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된다.

기간 5월 8일~6월 8일 문의 070-4222-3327(서울 향월재 갤러리)

BOOK

<단 한 번의 삶>

<여행의 이유>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김영하의 산문집. 진솔한 가족사와 시기별 기억이 담긴 열네 편의 이야기는 독자가 자신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 나는, 내 앞에 놓인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영하지음 북북서가 펴냄

<절로 힐링>

2시간이면 끝나는 초스피드 템플스테이부터 사찰 고양이와 함께하는 냥플스테이, 혼자 갔다 돌아 돌아오는 솔로 탈출 템플스테이까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사찰의 인기 있고 이색적인 프로그램 50개를 엄선했다.

신익수지음 생각정거장 펴냄

<홍콩 백끼>

50여 일간 130곳의 식당을 취재하고, 500여 가지 음식을 맛본 뒤 선정한 홍콩 맛집 100곳을 소개한다.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부터 100년 넘은 딤섬 노포, 주윤발이 자주 간다는 죽집까지 정통과 현대, 고급과 서민 음식을 아우른 홍콩 미식의 총체다.

손민호·백종현지음 중앙북스 펴냄



VIDEO

<나미비아의 사막>

"나도 날 잘 몰라." 멋대로 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방향하는 20대 소녀 카나의 내면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얼핏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그의 얼굴은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 모습이 사회에 갑자기 내던져진 또래들이 흔히 겪는 내적 방향과 닮아 공감을 자아낸다. 5월 개봉.

감독 야마나카 요코 출연 카와이유미, 카네코 다치

<아마테우스 오리지널 리마스터링>

아카데미 8관왕을 차지한 명작이 개봉 4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 오리지널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오스트리아 궁정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시점에서 전개한다. 4K로 리마스터링한 만큼 더욱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28일 개봉.

감독 밀로스 포만 출연 톰 헬스, F. 메레이아 브라함

SHOW

<갓>

클래식 공연부터 창작 발레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윤별발레컴퍼니가 갓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 가치를 재해석한다. 패랭이, 삿갓, 족두리 등 계급과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로 테마를 나눠 구성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강경호, 김유찬, 정성욱 무용수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6월까지 전국 투어가 이어진다.

기간 5월 5·17·18·29일 장소 경북 안동, 서울, 전남 여수 문의 070-8983-6477

<호모 파베르-애프터 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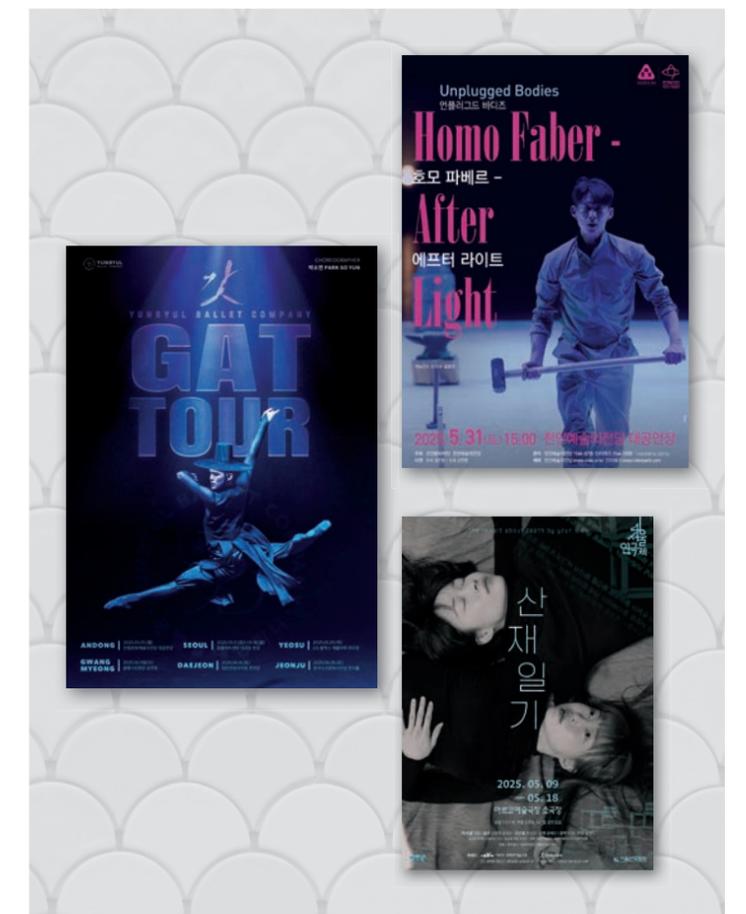
언플러그드 바디즈는 기술, 철학, 사회적 주제를 결합한 현대무용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무용단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개념인 호모 파베르에서 출발한 이번 공연에서는 인간이 만든 도구가 되레 인간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에 집중한다. 변화하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며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일시 5월 31일 오후 3시 장소 충남 천안 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산재일기>

연극은 2개의 숫자로 시작한다.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2,080'과 재해자 수 '122,713'. 통계는 수많은 비극을 명료하게 정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운다. 두 배우가 인터뷰이 17명의 말을 대신 전하며 산업재해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사건임을 밝힌다. 제46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이다.

기간 5월 9일~18일 장소 서울 아코예술극장 문의 02-3668-0007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5회 철도사진공모전 특별상 '새로운 시작, KTX-청룡' © 노환석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KTX의 21년 성과



지난 4월 1일 KTX가 개통 21주년을 맞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KTX가 11억 4000만 명을 싣고 6억 9000만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밝혔다. 경부-호남선 20개 역에서 출발한 KTX는 현재 8개 노선, 77개 역을 운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24만 6000명으로, 이는 KTX가 개통한 해와 비교하면 3.4배 증가한 수치다.

간편결제로 열차 탑승



KTX 개통 21주년을 맞아 간편결제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10일까지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토스페이클릭결제로 승차권을 2만 원 이상 결제하고 6월 10일까지 열차를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포인트 4000원을 지급한다. 누적 결제 금액 21만 원 이상인 고객 중 2100명에게는 열차 운임 1만 원 할인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 구축



국내 철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 간 철도, 광역 철도, 도시 철도 등 전국 21개 철도 기관의 경영 현황과 역 개수, 영업 거리 등을 알 수 있다. 메인 화면에 '한눈에 보는 한국철도통계'를 배치해 주요 수치와 그래프로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교외선 열차 하루 왕복 20회 운행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이 하루 20회로 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1년 만에 교외선 운행을 재개하면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을 보수하고 운행 횟수도 이전과 비슷하게 조정했다. 하루 동안 교외선 전 구간을 입석으로 제한 없이 이용하는 철도 패스 '교외하루도 마련했다. 이 용일 일주일 전부터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KTX와 함께 돌이 하나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완성한 21주년

KTX 개통 21주년
21st ANNIVERSARY

#N카드로 결혼까지



@serenaskkang

#서울과 부산사이



@princess._woo

#돌이 셋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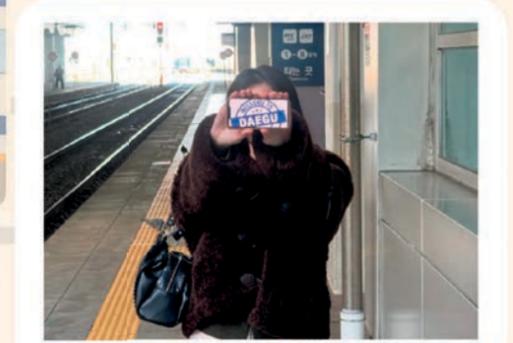
@siwon_mom44

#애뜻한 방문너머



@bk_sk0416

#KTX에서 첫만남



@ellas.daily_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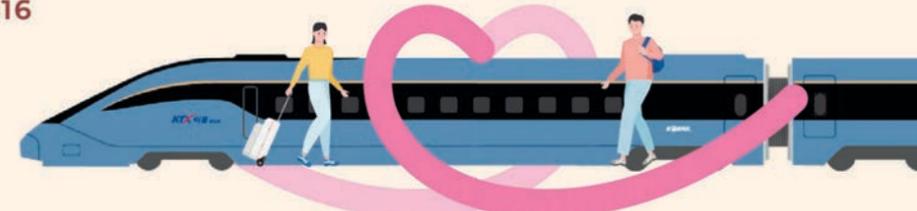
#군인부터 주말부부까지



@csb19970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TX21주년 #KTX돌이하나로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사연을 확인하세요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 93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 112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5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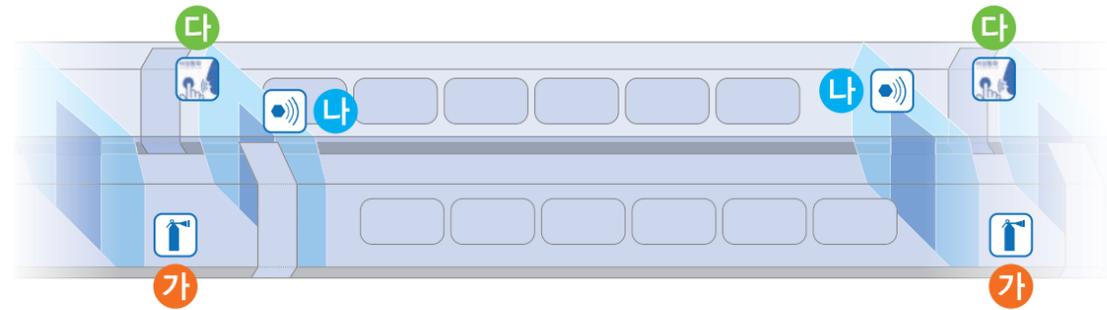
기한	출발 전		기한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개월~출발 1일 전	무료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20분까지	15%
당일~출발 3시간 전	무료	5%	20분 경과 후~60분	40%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5%	10%	60분 경과 후~도착	70%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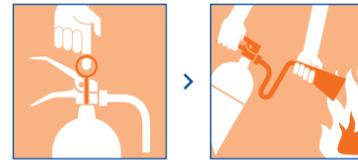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Free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Up to 20 minutes	15%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Free	5%	20-60 minutes	40%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5%	10%	60 minutes-arrival time	70%
			After arrival time	No refund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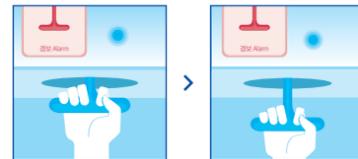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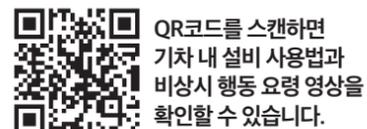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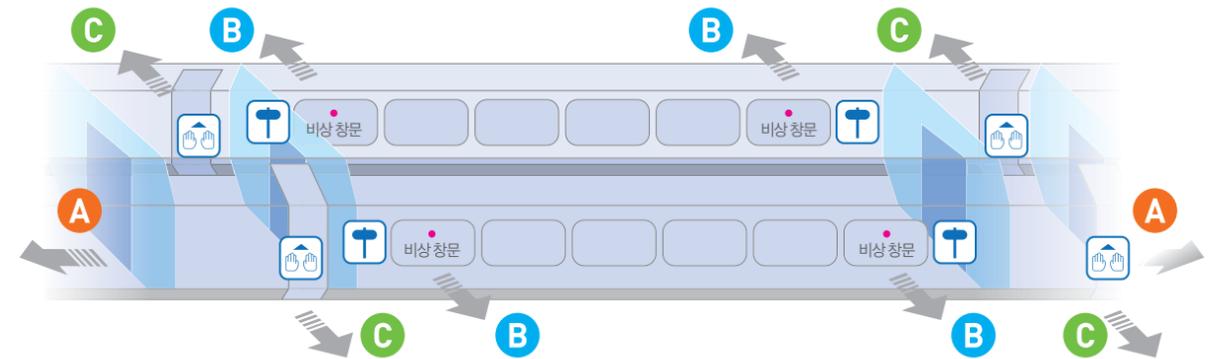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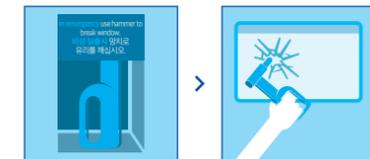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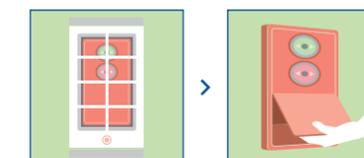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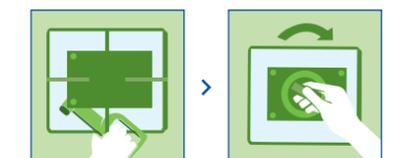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지소쿠리클럽

지소쿠리(보컬·기타),
홍비(베이스), 빈(건반),
신제로(기타), 문산수(드럼)로
구성된 5인조 밴드. 2022년
앨범 <Orientation>으로
데뷔하고, 같은 해 '올해의
헬로루키' 대상을 수상했다.
취미인 캠핑과 음악을 결합해
'캠핑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음악을 추구해 특히
휴양지와 잘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대표곡으로
'Peanut Butter Sandwich'
'Under the Sea' 등이 있다.



지소쿠리클럽과 떠나는 음악 여행

무대 위에서 자유로운 몸짓과 행복한 표정으로 연주하는 지소쿠리클럽.
다섯 멤버의 취향이 담긴 음악이 기차의 출발을 알린다.



음악 듣기

자연과 캠핑을 좋아하는 다섯 너구리의 플레이리스트

지소쿠리
Tramp Like You 오라클 시스터즈
기차 안에서 마음이 적적해질 때 들어보세요. 날것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소리로 채웠어요. 정제되거나 없애지지 않아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빈
Kaze Wo Atsumete 해피 엔드
듣는 내내 잔잔한 바람이 부는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멜로디만으로도 좋지만 가사를 보면서 감상하면 여행 분위기가 물씬 날 거예요.

문산수
Home 베케이션즈
<Vibes> 앨범을 좋아하는데, 그중 이 노래를 가장 아껴요. 평상시 리닝할 때 많이 듣고요. 앨범 분위기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과 어울려 추천합니다.

홍비
Cottage Roads 더 월터즈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져 있어요. 음악을 트는 순간 드넓게 펼쳐진 초원 위에 기차가 달리는 풍경이 그려져요. 통기타와 목소리가 어우러져 빈티지한 매력을 풍기죠.

신제로
C'est la Vie 커먼 세인츠
도입부에서 기타와 드럼이 울려 퍼지는 순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법이니까요!

지소쿠리클럽
Take On 지소쿠리클럽
첫 EP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연인과 떨어지기 싫어 캐리어 속으로 들어가는 남자 주인공의 황당한 모습을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해보세요.

© 지소쿠리클럽, 엠콘 버스

'2025 경북 방문의 해' 기념 안동관광택시 할인 이벤트

관광택시 최대 5만원 할인

2025.03.10. ~ 예산 소진 시까지

“쉽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매력적인 안동 여행”

<p>WOW</p> <p>SALE COUPON 2만원</p> <p>상시할인</p> <p>내국인 2만원 (300팀) 외국인 5만원 (50팀)</p>	<p>SALE COUPON 3만원</p> <p>추가할인</p> <p>매달 추가이벤트로 최대 5만원까지</p>	<p>WELCOME KIT</p> <p>웰컴키트</p> <p>안동특산품을 선물로 드려요! (100개 한정)</p>
---	---	--

※ 안동관광택시는 최소 이용 시간 5시간이며, 택시 1대당 4인 기준입니다.
※ 할인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웰컴키트는 안동 여행가는 달에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예약방법 : '안동관광택시' 홈페이지 <http://andongtourtaxi.com>





enjoy culture and create new values

강릉아트센터

GANGNEUNG ARTS CENTER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미디어퍼포먼스

I. 강릉, 사계
2025.5.10.(토) 17:00

II. 단오, 봄의 제전
2025.6.7.(토) 17:00 | 6.8.(일) 15:00